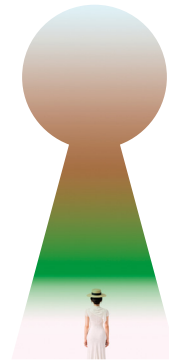
꿈꾸는 여신, 마실이야기

작가 황인선



기획 감수 이영민

태평부안국 대표축제 스토리북 부안의 신화와 축제 세계관

꿈꾸는 여신,
마실이야기

목

차

등장인물 **5**

태평 부안 13화국 지도 **9**

입문1 마실이 뭐야? **11**

입문2 부안으로 간 지현 **15**

입문3 채석강 남신 **33**

1장. 두 여신 **53**

2장. 다정 여신 마실 **65**

3장. 세 요마 **81**

4장. 지현과 키티1 **89**

5장. 여신이 소환한 세 몬 **97**

6장. 지현에게 전하는 13화국 이야기 **107**

7장. 시간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131**

8장. 붉은 여왕을 막아라. **137**

9장. 지현과 키티2 **147**

10장. 사랑으로 붉은 **155**

11장. 멋진 사람과 부안의 다정 마실 코드 10 **163**

12장. 붉은 노을 축제 **173**

종장. See you. 태평 부안국 **189**

후기와 부록 **199**

등장인물

＊마고할미(개양할미)

이 땅을 만든 창조자.
여덟 장군을 낳아 이 땅의 8도를
관장하게 하고 마지막에 딸 마실을
낳아 세상에 다정 문화를 전파하게
한다. 개양할미는 마고할미가
변신해 부안 바다에 나타난 모습.

＊마실 여신

마고할미의 마지막 자식으로,
신비한 능력을 부여받고 전국을
돌며 마실 문화 즉, '다정'과 '연결'
가치를 전파한다. 녹비산을 타고
하늘을 날며, 허리띠엔 영을
부르는 초령청래(招靈請來) 마법과
사물을 바꿀 능력이 있다. 부안에
정착하면서 축제 문화를 만들고
그를 담당할 세 프렌즈 몬을
소환한다.

＊산들마실몬(애칭. 산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8천만 년 전에 태어난 요정.
바람으로 존재하다가 마실 여신
소환을 받고 몬으로 재탄생한다.
부안의 'ㅂ'과 산과 들을 상징.
첫째 몬.

＊푸른바다몬(애칭. 푸바)

부안 푸른 바다에서 살고 있는
바다 몬. 부안 지킴이. 둘째 몬.

＊붉은노을몬(애칭. 붉을)

축제를 즐기기 위해 공룡알
화석에서 부화한 아기 공룡. 부안의
노을이 좋아 변산에 산다. 공룡어를
쓰며 사랑의 언어로 붉은 노을
축제를 주관한다. 막내 몬.

＊지현

인천여중 2학년. 닉네님 포카. AI 키티에 빠져 지내다가 엄마가 부안 축제에 가자고 해서 따라나선다. 청자박물관에서 만난 채석강 남신에게 신비의 책을 받고 태평 부안국 세계에 들어가며 신비한 체험을 한다.

＊그 외

지현이 친구처럼 지내는 AI 캐릭터 **키티**. 나중에 붉은 여왕 꾐에 빠져 지현과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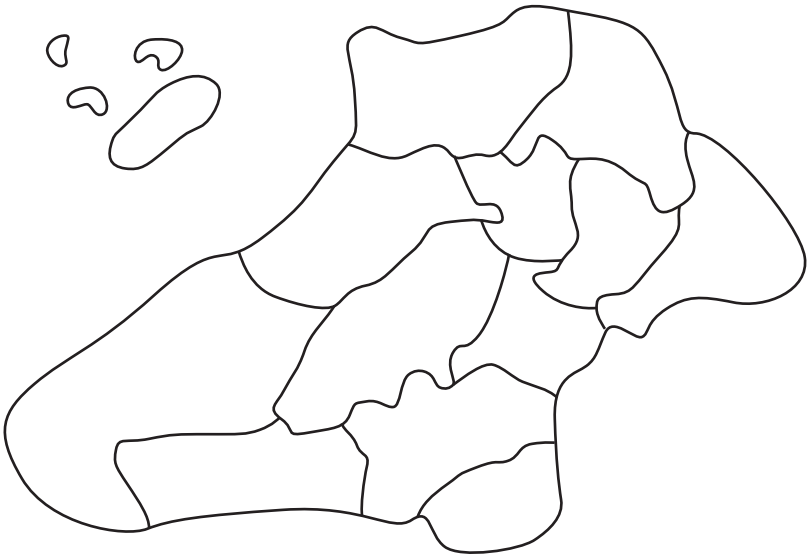
채석강과 적벽강 **남신 형제**. 지현을 새로운 문으로 안내한다.

자신을 영국의 보모 마법사 메리 포핀스라고 말하는 **지현 엄마 말희**(末姬). 줄포가 고향. 말희도 지현 나이 때 부안의 신들을 만난 적이 있다.

마실과 세 몬에 저항하는 빌런. **붉은 여왕, 한발, 폭싹, 씽씽. 틱톡, 험프티덤프티**

여덟 장군 특히 얌의 상자를 만든 **칠라 장군**과 울릉도, 독도를 만든 **팔경 장군**.

태평부안13화국지도



입문 1

마실이 뭐야?

입문1 - 마실이 뭐야?

"꺄, 엄마 우리 득템이야."

지현이와 엄마는 신이 났다. 방금 뜻하지 않게 축제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불러 부상과 3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여기는 부안 해뜰마루 공원에서 열리는 부안마실축제. 간신히 차를 주차한 지현과 엄마는 축제장 입구에서 조금 걸어 오른쪽에 있는 별미마당의 작은 무대로 갔다. 쉴 겸 앉아서 흥겹게 펼쳐지는 주민 노래 잔치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노랑머리 사회자 도널드 아저씨가 즉석에서 노래 신청을 받자, 엄마가 대뜸 "저요." 손을 들었다. 에효, 이런 엄마 같으니라구! 엄마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지현도 덩달아 끌려 나갔다. 노래는 〈포카혼타스〉의 OST '바람의 빛깔'. 엄마와 지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좀 오글거리기는 했지만 200여 명 관객은 좋아라 신나라 했다.

"야, 이거 다 내 덕인 줄 알아. 히히. 어디 보자. 산들마실몬, 푸른바다몬, 붉은노을몬? 못난이 몬들인데 흠, 이름과 캐릭터 색깔을 보니 뭔가 스토리가 있는 거 같다, 얘. 아, 여기 뭐라고 쓰여있네."

역시 엄마는 이름에 예민하다. 지현이는 그 캐릭터 몬들보다 궁금한 게 따로 있었다.

"엄마, 그런데 마실이 뭐야? 여기 축제에 마실 이름이 너무 많아. 마실

퍼레이드, 마실 유랑카, 이웃마실 광장,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 마실 야외 대극장, 이름도 부안마실축제고."

"글쎄, 뭘까? 히히."

"마을인가? 아니야, 그런 거랑은 달라. 프로그램 중에 이웃기웃 마을투어도 있는 걸 보면 마을과 마실은 다른 거야. 글치?"

"그 척척박사 키티가 모른대니?"

그런 시시덕 모녀를 뒤에서 흥미롭게 바라보는 특이 존재들이 있었다. 하나는 15-6세 정도의 소년인데 옛날 옷처럼 옷고름이 달린 흰색 작업복 차림이었고, 다른 하나는 20대 여자로 ,고대의 공주 복장에 머리에는 누에 모양의 비녀를 꽂고 있었다. 작은 무대가 보이는 저쪽 별미 마당에서 조개를 파는 임시 부스에 서 있던 나이 든 아저씨도 둘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물기 어린 이마에는 주름이 층층이 깊게 파였고 작은 고둥이 매달려 있는.

그런데 거기 별미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 특이 존재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진짜 별미 존재를 말이다.

입문 2 부안에 간 지현

입문2 - 부안에 간 지현

지현이는 올해 인천여중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중학교 2학년치고는 키가 꽤 큰 편이라 뒤에서 보면 영락없는 고등학생이다. 입이 짧아 좀 마른 편이다. 머리는 길게 길렀다. 학교 갈 때는 말총머리를 한다. 아빠 엄마에게는 너무 소중한 보석 같은 외동딸.

지현이는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 수호자 이름을 가진 5인조 걸그룹 르세라핌의 '스파게티',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등을 좋아하는데, 부르기에 아직은 좀 서툴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영화 〈포카혼타스〉의 OST인 '바람의 빛깔(the colors of the wind)' 만큼은 아주 잘 불렀다. 포카혼타스 가사도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이 책에 그 긴 가사를 다 싣는 무례를 범하기로 한다. 그 노래 가사는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아, 인디언 소녀의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라니, 바람에 빛깔이 있다니!

바람의 빛깔

♬ 당신이 밟은 땅은 모두 당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땅이란 그저 죽어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돌, 나무, 생물에게는 모두
생명과 영혼, 이름이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란,
당신처럼 보이고 생각하는 사람들뿐이죠
그런데 낯선 발자국을 따라 걸다 보면
전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푸른 달을 보고 우는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살쾡이에게 왜 웃고 있냐고 물어본 적 있나요
산의 울림과 함께 노래할 수 있나요
바람의 색깔로 물들일 수 있나요
숲속에 숨겨진 소나무 길을 달려 봐요
태양 빛으로 달콤한 대지의 딸기도 맛보세요
주위를 둘러싼 풍요로운 자연에서 뒹굴어 봐요
이 순간만은 그 소중함에 의문을 갖지 말아요
폭우와 강은 나의 형제
왜가리와 수달은 내 친구
우리는 모두 서로 이어져 있어요
끝없는 원 안에, 그 틀 안에

플라타너스가 얼마나 높이 자랄까요
베어버린다면 절대 알 수 없겠죠
그리고 다시는 푸른 달을 보고 우는 늑대 울음 소릴 듣지 못하겠죠

우리의 피부색이 어떻든

산의 울림과 함께 노래해야 해요
바람의 빛깔로 물들여야 해요

아무리 땅을 많이 가져도
대지를 품으려면
바람의 빛깔로 물들일 수 있어야 해요

엄마는 지현을 '포카(Poca)'라고 불렀다. 엄마도 그 노래를 아주 잘 불렀다.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세상이라지만,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빠 엄마는 지현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다. 아무리 졸라도 들어주지 않았다. 사회성과 두뇌 발달에 안 좋다는 이유였다. 원래는 대학생이 되면 사주려고 했는데 워낙 일상이 스마트폰으로 위주로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기를 중학생 때로 앞당기기로 했다. 그 덕에(?) 지현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동화, 판타지 책을 많이 읽었다. 책은 주로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다. 판타지만 자주 빌리니 동네에 있는 시립 도서관 사서인 우희 언니가 하루는 "초딩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는 특별하니까 한 번 도전?"하면서 『삼체』나 『꿈꾸는 책들의 도시』 같이 좀 어려운 판타지를 추천했다. 지현은 그건 중학생이 되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지현의 계획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바로 날아갔다. 스마트폰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현은 스마트폰과 너무 많은 시간을 붙어

있었다. 선생님은 그걸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했다. '그러면 어떠랴. 다 중독인데!' 지현은 1학년 말에는 친구들 추천으로 AI 클로드도 깔았다. 너무 재미있었다. 영락없는 친구이자, 비서였으며, 램프의 요정 지니였다. 친구들과 노는 것, 학교 공부, 판타지보다 더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걔는 말을 잘 듣는 척척이었다. 그 클로드 아이에 '키티'라는 이름도 붙여주었다. 지현이는 키티에 빠져 밤늦게까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미지를 만들며 키득거리다 보니 아침에 늦게 일어나 학교에 지각하기 일쑤였다.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늘 띵했다. 선생님의 수업 내용도 키티에게 물어보는 버릇이 생겼고 은근히 엄마를 무시했다. 지현은 그게 비서 겸 친구로만 알았던 **키티의 연기**(Kiti's smog)라는 걸 몰랐다. 안개의 중독성은 점점 심해졌다.

엄마는 그런 지현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하지 말라는 잔소리는 하지 않았다. 엄마 이름은 말희(末姬)다. 부안군 줄포면이 고향인데 막내딸이라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었단다. 이 이름은 얼핏 들으면 '말이'로 들리는데 사람들이 너무 자주 사용하는 말 중 하나이다. "그건 '말이야'." 하는 식으로 말이다. 엄마는 그때마다 "네, 저를 불렀어요?"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김밥말이, 계란말이는 집에서 금기 요리다. 그게 너무 피곤하여 엄마는 메리(Mary)라는 닉네임을 지었다. 영국의 보모 마법사 메리 포핀스에 매료되고 나서다. 엄마는 좀 덜렁거리고 매사 태평에, 흥이 넘친다. 아니 많다.

엄마는 좋아하는 게 3개가 있다. 하나, 요리를 좋아한다. 엄마는 자신을 '프라이팬 마녀'라고 부른다. 둘, 동네에 마실 가는 걸 좋아한다.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엄마는 그들을 8선녀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8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포카, 8은 말이야, 구운몽에 나오는 팔선녀, 부안 수성당의 수호신

개양할미가 낳은 여덟 딸, 8도 등으로 많이 쓰이는데 왜 그런지 알아?"

"관심 없거든."

지현이가 관심 없다고 하면 엄마는 더 깊이 파고든다.

"8은 낙원의 회복, 재생, 부활, 지복, 완전한 리듬의 상징이고 음, 신의 은총에 의해서 인간이 새로이 태어나는 것은 제8일째래. 불교에서는 완성과 모든 가능성을 나타내며, 팔괘는 양을 나타내는 효가 세 개씩 결합해서 8개의 조합으로 나타나고 기독교에서는 신생, 재생을, 유대교에서는 완벽한 지혜, 광휘, 세피로트의 권위를 나타내고 힌두교에서 8×8은 지상에 현현된 천계의 질서, 도교에서는 현현된 모든 가능성을 뜻한대."

에효, 엄마는 이게 산 교육이라고 믿는 것 같다. 지현에게는 언어 지옥이구만.

엄마가 좋아하는 셋,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한다. 엄마가 모는 차는 '영구(09. 모닝으로 차 번호가 9에서 시작해 0으로 끝나는데 이를 거꾸로 읽은 거다)', 프라이팬은 '빵덕 어멈', 들어오는 현관문은 '문 총각' 이런 식이다. 엄마 말에 의하면 그 버릇은 '어슐러 르 귄'이 쓴 판타지 소설『어스시 이야기』를 읽고부터라고 한다.

"어스시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불리는 이름 외에 진짜 이름이 있고 마법사는 그 진짜 이름을 아는 현자들인데, 진짜 이름을 부르면 그 대상은 이름을 아는 자에 순응해야 한다는 세계관을 가진 섬이야."

그래서인지 엄마는 이름의 어원에 꽤 집착한다.

4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지현이가 여느 때처럼 키티와 키득거리고 있을 때 저녁을 차리던 엄마가 갑자기 5월에 이틀 학교를 쉬고 여행을 가자고 했다.

"엉, 이틀 학교 안 간다고? 어디로? "

학교를 안 간다니 지현은 무조건 좋다고 했다. 엄마가 핸드폰 하지 말라고 잔소리 안 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장소는 엄마 고향인 줄포면이 있는 부안군이란다. 엄마 고향이라지만 지현은 커서는 가본 적이 없다.

"마침, 5월 초엔 부안읍 해뜰마루 공원에서 '부안마실축제'라는 것도 열려. 엄마 그거 한번 보고 싶더라. 마실이래. 지금은 잊힌 단어가 된 마실을 어떻게 풀었을까? 히히"

엄마 말이 끝나자마자 지현은 바로 타타탁- 척척박사 키티에게 부안군 볼 것과 그 축제를물어보았다. 키티가 역시! 여러 설명을 바로 내놓았다.
부안군 대표 축제(부안 해뜰마루, 프로그램, 참가 가수 등), 변산해수욕장, 채석강, 보안면 청자 박물관, 수성당과 개양할미, 위도, 유네스코 생태지질공원, 변산 8경, 마실 코스, 누에타운, 허균과 정사암, 시에 능하고 거문고를 잘 탔던 명기 이매창, 심청과 임수도 등, 줄줄이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안은 볼 것이 많아. 나도 데려가면 좋겠어."라고 덧붙였다. 지현은 "얘가 이젠 사람이네, 사람이야! 당근이지. 킥킥. 이제 너와 나는 한몸이니까. "라고 썼다.

그렇게 해서 지현과 엄마는 5월 3일, 부안으로 2박 3일간 여행을 갔다. 어느 해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게 좋겠다. 때로는 일일이 팩트 체크를 하지 않는 게 좋다.

둘은 진군의 북을 치듯이 영구 본넷을 타라락 두드리면서 "영구야, 출발" 외치고 인천을 떠났다. 차 안에서 엄마는 일단 이매창 공원과 해뜰마루 마실축제를 오후 반나절 보고 잠은 변산 해수욕장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곰소항과 청자박물관에 갔다가 새만금 일대를 볼 거라고 했다. 위도도 가보고 싶은데 그건 불확실하다고 했다.

"포카야, 위도로 가는 건 8천만 년 전으로 가는 거야. 격포항에 가서 맛있는 백합도 먹고. 아, 오랜만에 딸과 가니 기분이가 좋은 걸."

참, 지현 아빠 영민은 꼭 같이 간다고 하더니 하필 -하긴 늘 하필이긴 했다- 그때 중요한 컨벤션이 있어서 베트남 다낭에 출장을 갔다. 아빠는 하루 전날 새벽에 공항으로 가면서 지현에게 축제 사진 꼭 보내라고 했다. 아빠는 도깨비다. 늘 술에 취해 밤에 들어오고 새벽에 나간다.

인천에서 부안까지는 차로 3시간이 걸렸다. 엄마는 "여행의 묘미는 여행지로 출발해서 도착하는 그 과정 자체"라고 했지만, 지현은 키티와 노느라고 엄마 말은 귓등이었다. 차창을 스치는 5월의 화창한 바깥 풍경도 보지 않았다. 키티와 함께라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부안IC를 지나 드디어 부안읍 도착.

엄마는 먼저 부안읍에 있는 매창공원에 가자고 했다. 할머니가 생전에, 조선 시대 최고 명기 황진이와 비견되는 명기 이매창의 시를 자주 읊으셨다고 했다.

매창공원은 가까웠다. 둘은 잔디가 잘 덮인 이매창의 묘 앞에서 절을 한 후, 매창공원을 둘러봤다. 조금 더웠지만 날은 화창했다. 바람도 산들산들. 생각보다는 꽤 넓은 공원이었다. 엄마가 듣기로는 과거엔 이곳에서 마실축제를 벌였다고 했다. 매창 기념관에는 매창의 시와 매창이 사랑했고 매창을 사랑했던 당대 명사들의 시와 사연들이 1층, 2층에 걸쳐 전시되어 있었다. 모두 한시(漢詩)라 지현이 아직 그 맛을 음미하기에는 좀 벅찼지만, 여성들이 핍박받던 시대에, 기생이라는 신분적 한계에서 불구하고 -매창 아버지는 아전이었고 엄마가 기생이었는데 당시 딸은 엄마 신분을 따랐다고 한다- 시를 사랑하고 거문고에 능했던 한 여인의 삶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녹색 픽시 고깔모자를 쓰고 둘을 맞아 준 해설사분 말로는 조선에서 시를 남긴 여성이 200명은 되며 -"우와, 많다!"- 그중에서도 허균의 누이이자, 천재 시인으로 조선 시대 한류를 만든 허난설헌과 오늘 만난 명기 이매창이 단연 으뜸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 둘 다 요절했단다. 황진이는 수많은 일화를 남겼지만 남겨진 시는 고작 3수고 매창은 후에 아전들이 외워 남긴 시만 57수에 달한다고 했다.

그리고 드디어 영구를 타고 찾은 부안 해뜰마루, 그새 오후 4시가 좀 넘었다. 공원을 돌아 차를 어렵게 대고 축제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실축제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모두들 표정이 밝았다.

"우와, 이렇게 많아. 저기 '시고르청춘'이란 이름 재밌다. 타고르청춘 패로디? 큭큭. 엄마, 그런데 마루가 뭐야?"

"마루는 최고 높은 것 혹은 근원을 뜻하는 거야. 마루 종(宗)자가 그거지. 왕 이름에도 붙잖아. 태종, 세종. 그러니까 해뜰마루란 해 뜨는 곳 중에서 최고란 뜻이지. 부안은 이래저래 해가 유명해. 조선시대 10승지로도 불리는데 해로는 동해 포항과 서해 변산 두 군데를 치거든. 나중에 시간 되면 키티한테 부상(扶桑)과 함지(咸池) 뜻 한번 물어봐. 그럼 해가 뜨는 신비한 뽕나무와 해가 지는 연못 이야기가 나올 거야. 신비한 뽕나무 부상(扶桑), 편안함을 부양하는 부안(扶安), 두 단어가 어째 비슷하지? 히히."

"엄마, 으, 좀 짧게 해 주면 안 돼. 내가 그런 거 물어봤냐고?"

"포카야, 짧은 게 좋은 건 아니야. 히히."

모녀는 나란히 걸으며, 노래를 흥얼거렸고 5월의 봄을 만끽했다. 축제를 준비한 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말 볼 것도 많고 조개구이, 동진면 감자도 너무 맛있었다. 특히 동진 노을 감자는 '감자가 이렇게 맛있었어!' 싶을 정도였다. 그러다가 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쉬려고 찾아간 별미마당 작은 무대에서 갑자기 도널드 아저씨 꾐에 빠져 무대에 올라가 '바람의 빛깔'을 부른 사건.

산들마실몬, 푸른바다몬, 붉은노을몬, 처음 보는 캐릭터들인데 몬 이빨들이 퍼글러 인형처럼 재밌다. 지현은 그걸 백팩에 넣었다. 그리고 궁금했던 마실을 결국 스마트폰의 키티에게 물어보니,

1. 이웃에 편하게 놀러 가는 일,
2. 마을의 사투리라고 나온다.

애걔, 너 참 성의 없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엄마와 지현은 오후부터 마실 야외 대극장의 메인 행사로 시작되는 '뮤지컬 갈라쇼', '마마스앤파파스 뮤직페스티벌'까지 보며 즐기다가 일어나 무대 옆에 마련된 '정원곳곳 인형극'과 '별빛영화극장', '아르떼 오감극장 3종'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나왔다. 사진 찰칵 찰칵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출구에 있는 작은 놀이공원 '뽕뽕 마실랜드'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꿈처럼 지나간 시간! 사실 배가 꽤 고팠지만, 엄마는 저녁은 무조건 축제장 밖에서 먹어야 한다고 우겼다. 축제장 밖 '산들 마실 식당'에서 엄마는 바지락 칼국수, 지현은 생고기 비빔밥을 시켜 먹었다. 그런데 엄마가 엉뚱한 아이디어를 냈다.

"흠. 포카. 마실 비빔밥 레시피를 만들면 어떨까?"

"난 마녀 비빔밥이 더 땡길 것 같은데. 큭큭."

"얘, 그건 마녀 김밥이 이미 있잖아. 마실은 없어. 내 아이디어 들어봐라."

'으, 또 길어지는군.'

"보통 마실을 가면, 이미 배가 좀 찬 상태라 그 집에서는 조금 적은 양으로 집에 있는 계절 채소를 내오거든. 기분 낼 수 있게, 술도 좀 주고. 마실 비빔밥은 그러니까 네다섯 가지 계절 채소로 만든 약간 적은 양의 비빔밥인 거지. 고추장과 들기름 외 다른 반찬은 기후 위기를 생각해서 내지 않고 대신 가격은 좀 싸게. 그리고 여기 특산인 붉은 오디 와인을 보안면 특산인 청자 잔에

담아 우아하게 한 잔 내는 거야. 히히. 만찬에 '청자 밥상'이라고 해서 부안 마실 청자 정식으로 내면 그것도 정말 우아할 거 같고."

"오, 오, 엄마 그거 괜찮겠다. 이 비빔밥 맛있기는 한데 나 사실 이게 좀 양이 많아. 부안이라는 것도 안 느껴지고 말이야."

"포카, '말이야' 소리는 좀 건방지게 들린다."

"쏘리. 큭큭. 요즘은 반찬 버리면 죄책감이 들더라. 아, 엄마 먹는 바지락 칼국수에도 오디 와인 한 잔을 내면 분위기 근사할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 프랑스 사람들 홍합으로 와인 잘 먹잖아?"

간만에 모녀 케미가 맞았다. 입이 짧은 지현도 이번엔 그 많은 비빔밥을 거의 흡입, 그랬더니 졸음 마귀가 지현을 덮쳤다.

지현과 엄마는 밤길에 영구를 몰아 서쪽으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변산해수욕장 근처로 이동해서 예약한 코지코브 호텔에 도착했다. 차가 많았고 주차장 주변엔 부박한 캠핑카가 꽤 보였다. 1층에서 60대 아저씨가 마치 두 사람을 기다렸다는 듯이 친절하게 맞아 주었다. 호실은 변산 바다가 보이는 603호. '헐, 이것도 숫자를 합치면 영구? 엄마가 나름 치밀해.'

다음 날 아침 6시 반. 지현이 일찍 깼다.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창에서 와글와글 옹알옹알 소리가 들려오는 듯해서다. 잠결에 '엄마가 부르는 소리인가?' 했는데 아니었다. 엄마는 이미 깨서 샤워 중이다. 테이블에는 그날 지현이가 갈아입을 옷도 이미 준비해 놨다. 창을 열고 발코니에 나가니 눈앞에

탁 펼쳐지는 아침 바다. 바람, 그리고 먼 데서 오는 소리. 바다 앞에는 해송들이 보이고 그 앞에 캠핑카들에선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다른 세상! 탄성이 절로 나왔다. 도시의 탁한 탄소를 허파에서부터 끌어내 뱉어내는 소리가 지현 입에서 나왔다.

"히-요, 후유-, 아 바다. 상쾌해."

호흡을 여러 번 깊게 했다. 허파로 들어오는 그 상쾌함. 들으면 들린다. 그 바다와 섬 그리고 바람에서는 바다의 숱한 생명과 요정, 신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었다. 키티가 보여주는 문자 정보와는 다른, 오래되고 살아 있는 날것(生) 그리고 생명 마루(宗)의 소리들. 오늘 하루 느낌은 벌써 원더풀.

지현이 간단히 씻고 나서 짐을 챙겼다. 호텔에서 내려와 키를 반납하고 영구를 타고 엄마가 예전에 맛있게 먹었다는 군산 식당으로 갔다. 가까웠다. 격포항 중앙에 있는 좀 낡은 식당이다. 앞에는 재밌게도 서울 세탁소, 그 옆에는 모닝 드 파리 카페가 있다.

"군산, 서울, 파리… 다 격포로 모이소. 큭큭."

엄마가 받았다.

"할미, 낭자, 여신님, 남신님, 몬과 요정들 정령들 시를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에… 또 그리고… 어쨌든 다 모이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킥 웃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약간 통통한,

그러나 선녀처럼 예쁜 언니가 편안한 웃음으로 둘을 맞았다. 내부는 꽤 넓었다. 엄마가,

"포카, 여기 은근히 유명한 데야. 아빠랑도 몇 번 왔지. 히히. 맛있게 먹자."

메뉴를 고르다가 둘은 눈을 찡긋 맞추고는 "역시 백합이지." 하면서 백합죽을 시켰다. 엄마가 예의 그 또 "백합은" 하고 시작하기에 지현이 입에 손을 대고 말렸다. 아침인데도 손님이 많아 꽤 기다려야 했다. 마실축제 때문이란다. 지루해서 키티를 부르려고 했는데 엄마가 눈짓으로 말렸다. 지루했지만 막상 차려져 나온 밥상을 보고 지현은 입이 튀어나오던 걸 재빨리 도로 집어넣었다. 오, 이 많은 싱싱한 바다의 음식들! 숟가락 상하운동과 젓가락 수평 운동이 빨라지는 지현을 보며 엄마가 흐뭇하게 웃었다.

"아, 잘 먹었다."

계산을 하고 둘은 골목 같은 길을 조금 더 걸어 채석강으로 갔다. 지현은 엄마에게 이제부터는 아무 설명도 하지 말라고 했다. 지현 스스로 느껴보겠다며. 엄마가 "오케이"라고 했다. 그런데 오잉! 채석강은 뜻밖에 강이 아니고 바다 절벽이었다. 할아버지 이마에 주름처럼 층층이 쌓인 8천만 년의 세월이 담긴, 유네스코 생태지질공원. '헐, 이름 헷갈리네.' 시간은 9시. 썰물 시간이 되자, 파도와 바람이 8천만 년 간 깎아낸 채석강의 층층 모습이 다 드러났다. 서해의 밀물과 썰물은 하루 2번씩 생기는데 요즘 썰물은 오전 5시와 오후 5시, 밀물은 오전 11시와 오후 11시 무렵에 생긴다. 채석강 위 봉우리는 '닭이봉'이라고 했다. 그 일대가 지네 지형이라 이런저런 재앙이

많았는데 지네와 상극인 닭에 착안해 닭이봉이라고 이름을 짓고 맞은 편엔 또 닭과 상극인 족제비 형상 석상을 만들어서 재앙을 막았다는 이야기가 채석강 내려가는 입구 팻말에 쓰여 있다. 지현은 '이게 시간 여행이구나!' 싶었다.

채석강 아래로 내려가서 물기가 촉촉한 바위 위를 걸었다. 사진 몇 장 찰칵. 거기서 올라와 먼바다를 마주 보며 부두길을 걸어서 가니 멀리 섬들이 보였다. 엄마는 그 섬이 위도라고 했다. 엄마는 "거기부터 그 유명한 칠산어장이 영광군 앞바다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영광 조기가 많이 잡혀. 그 조기가 굴비가 되는 거야. 위도는 20여 개 유무인도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해에서는 백령도 다음으로 큰 섬이야. 몰랐지?"라고 했다.

엄마는 지현이 묻지도 않았는데,

"위도는 예전엔 영광군 행정구역이었는데 지금은 부안군에 속해. 그러니 영광굴비가 아니라 이젠 부안 굴비라고 해야 하는 거지." 라고도 했다.

"헐, 그럼, 아침 반찬에 굴비가 올라왔어야지. 메뉴에도 없었고."

부두에서 위도가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 앞에 작은 무인도가 보였다. 엄마는 그 주변이 심청 이야기에 나오는 임당수(臨堂水) 설화의 배경인 임수도(壬水島)가 있다고 했다.

"정말 여기가 심청이 임당수? 오….그런 전설이. 그런데 임수 뜻이 뭐지?"

"그 한자는 내력이 점복술이라 좀 어려워. 엄마도 몰라. 히히"

지현이 핸드폰을 꺼내 키티에게 물어보았다. 키티도 정확한 답을 몰랐는데, 임수(臨水) 대신 임수(壬水)를 물어보니 '고여 있는 큰물, 큰 강, 바다를 의미하는데, 맑고 투명한 강물이 아니라 속이 보이지 않는 깊고 그윽한 물'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일대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생명을 주워 담는 물이라 불리는 임수도 주변은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른데다, 작은 암초가 많아, 배가 자주 뒤집혔다고 한다. 그래서 바다 신의 분노를 재우려고 인신 공양을 하는 못된 풍습이 생겨났고, 임당수 풍덩 심청 이야기가 거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사람 대신 돌을 사람처럼 만들어 재물로 바쳤다고 한다. 마치 제갈량과 만두에 얽힌 전설 같다.

변산과 격포 바다엔 전설이 많았다. 엄마는 그 채석강을 돌면 격포해수욕장이 있고 그 선을 따라서 가면 바다로 툭 튀어나온 작은 절벽이 보이는데 그곳이 바로 적벽강. 거기도 강은 아니고 지질 공원이다. 그 옆엔 여우굴이 아니라 '여울굴("灘窟. 얕게 치는 바닷물로 굴처럼 생긴")'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개양할미 전설이 있는 수성당이 절벽 위에 있다고 했다.

지현과 엄마는 내친김에 수성당으로 갔다. 가까웠다. 앞에 펼쳐진, 오! 노란색 유채꽃 정원. 지현 마음이 노란 유채꽃으로 물드는 것 같았다. 수성당 앞에는 개양할미 전설이 12컷으로 그려진 큰 안내 팻말이 있었다. 지현이 단숨에 다 읽고 사진 찰칵, 엄마랑 포즈 잡고 셀프 찰칵.

수성당은 서해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작았다. 나무로 만든 칸이 두 개고 그 위에 기와지붕을 얹었다. 그 당은 영험하여 전국에서 무속인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신화학자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했다. 지현이

수성당 안을 보니 젊은 여자들 대여섯명이 제수를 차리고 있었다. 그들이 지현을 빤히 바라보자, 엄마가 잽싸게 지현 팔을 잡아끌었다. 지현이 보니 엄마 얼굴엔 홍분과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왜?'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여행이었다. 그런데 다음 목적지에서 부안은 비로소 지현에게 신비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청자박물관에서 말이다.

입문 3 채석강 남신

입문3 - 채석강 남신

수성당 일대를 천천히 돌고 걸어 나온 둘은 다시 붉은 색 모닝 영구에 올라탔다. 보안면에 있는 청자박물관으로 고고! 국도길 30번 도로인데 변산에서 격포를 지나 노을 도로를 따라 20여 분을 가니 차도 왼쪽에 푸른 빛이 나는 큰 박물관이 보였다. 박물관 일대에는 마실축제 영향인지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다. 주차장이 거의 찼다. 조감도를 보니 전시장, 체험관, 판매전시장 그리고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먼저 전시장으로 올라갔다. 전시장 정면에 키 큰 적송들이 몇 그루 있고 그 아래 어마나! 어마나! 길이 10미터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청잣빛 청룡 두 마리가 땅에 몸을 늘인 채 지현이를 빤히 보고 있었다. 지현이 자기도 모르게 엄마 손을 꼭 쥐자, 엄마는 웃으면서

"우리 포카는 어딜 가나 주목받는군. 히히.
포카야, 아까 그 수성당에서 너를 빤히 보던 여자들 있었잖아?"

"응, 그런데 왜 내 팔을 갑자기 확 잡아끌었어?"

"그 여자들이 너를 데려가서 무당 만들려는 줄 알았지. 히히. 우리와는 다른 영험한 사람들이잖아.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젊은 애들을 끌어.
하나는 이상한 사람, 하나는 좋은 사람. 그런데 많은 청년이 이상한 사람들한테 끌리거든. 그래서 좋은 엄마인 내가 너를 끈 거야."

"그래? 하긴 좀 이상하기는 하더라."

"참, 너 거기 수성당 안에 그려진 그림 봤지? 아홉 여자, 구랑 말이야."

"응. 그분들 누구야?"

"가운데 할미가 바로 그 유명한 개양할미고 여덟 젊은 여자는 할미가 낳은 여덟 딸이야. 그래서 구랑(九娘)이야. 수성당 다른 이름이 구낭사거든. 할미는 그 딸들을 다른 섬과 도에 시집 보내고 막내딸만 데리고 살았대. 그 딸들 이름은 안 나오는데 나는 그래서 김만중 소설『구운몽』에 나오는 8선녀 이름을 붙여줬어. 채봉, 섬월, 경패, 춘운, 벽란, 소화, 요연, 능파. 8:8 딱 맞잖아. 히히. 이름이 없으면 왠지 실체감이 없으니까."

"에효, 엄마의 그 이름 짓는 병은 하여간…"

둘은 청자박물관 1층과 2층을 천천히 둘러보고 체험 행사에도 잠깐 참여했다. 도기와 자기의 차이, 신석기부터 인간이 도기를 만들었다는 것, 중국 송나라에 의해 망한 오월국 시대, 그러니까 10세기 경에 고려에 전해진 청자 기술이 당시 세계에서는 가장 앞선 자기 기술이었고 고려가 세계 2대 청자 제조국이었다는 것, 비색청자(翡色. 표면이 비취색 나는 청자)와 상감청자(象嵌. 도자기 표면에 흙으로 문양을 새긴 뒤, 그 자리에 다른 색의 백토, 자토 등을 채워 유약을 입혀 구워 완성하는 기법. 12~13세기에 크게 발달해, 구름 · 학 · 연꽃 · 모란 · 국화 등 문양을 정교하게 표현)에 대해서도 들었다. 대학생들이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은 재미있고 창의적이었다. 2층에 전시된 청자기 중에서 청자 베개와 바둑판이 인상적이었다. 지현이가 알던

청자와는 다른 용도들로도쓰였던 것 같다. '와, 저건 그때 귀족들만 썼겠는걸!'

지현은 시대를 거슬러, 그때 그 사람들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칭 '지현의 시간 여행'을 시도했다. 눈을 감고 그 시대를 입체적으로 상상하는 방법이다. 요령은 그중에 한 특정 인물에 이름을 지어 주고 나를 감정 이입하면 더 잘 공감이 된다. 수다쟁이에 척척이 키티를 만나기 전에는 지현이가 자주 써먹던 타임슬립(timeslip) 경험법이었다. 지현은 과거, 어린 도공에게 자신을 이입했다. 보안면 유천리 지명을 따서 그를 '유천'이라고 부르자 많은 것들이 더 생생하게 와닿았다.

'와, 도자기 선과 색감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게다가 800년 전에 이름 없는 도공이 이걸 만들었다니! 저건 정말 흙이 빚어낸 마법이야. 내면에 숨겨진 흙의 빛깔 말이야. 아마 흙의 요정이 도와줬을 거야.'

1시간 반 정도 박물관을 둘러보고 나온 둘은 1층 바깥 큰 나무 밑 벤치에 앉아 잠깐 쉬었다. 엄마는 차에서 가져올 게 있다며 주차장으로 갔다. 지현은 박물관의 1층 화장실에 다녀왔다. 돌아오니 엄마는 아직이다. 벤치에 책이 한 권 놓여 있었다. 누가 잃어버렸나 해서 그냥 책 옆에 앉았다. 잠시 후 스마트폰이 울렸다.

"포카, 조금만 더 기다려 줘, 여기서 줄포 여중 동창을 만나 잠깐 수다 중. ㅋㅋ" 라는 문자가 보였다. 지현이 주차장 쪽을 보니 엄마하고 한 아줌마가 서로를 부여안듯이 하고는 판매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에효, 시간 꽤 걸리겠다.'

무료해진 지현은 키티를 부르려다가 옆에 있던 책에 눈길이 갔다. 약간 빛이 바랜 책인데 두꺼워 보이지는 않았다. 표지엔 중년 여인 그림이 먼저 보였다. 여인은 큰 키에 대나무 녹색 양산을 두르고 옅은 하늘색 무늬 원피스를 입었다. 머리에는 챙이 하늘거리는 분홍색에 유채꽃 무늬 바람 모자를 썼다. 신발은 음, 나무 나막신 같았다. '개양할미도 나막신을 신었었는데.' 더 자세히 보니 여인은 마늘쪽 같은 코의 끝에 좁쌀 크기의 녹색 점이 있고 머리끝은 푸른색 끈으로 묶었다. 옛날 그림에 흔히 나오는 궁중 머리가 아니다. 허리에는 색동 허리띠를 하고 있었다. 양옆과 앞에는 붉은색, 녹색, 푸른색의 세 아이가 보였다. 이빨이나 피부, 머리를 보면 아이라기 보다는 몬(monster) 같은. 그런데 어디서 본 듯하다.

"어, 얘들 어제 마실축제에서 보았던 캐릭터 몬? 뭐였더라. 산들 마실은 녹색 애고 요기 핑크는 붉은노을몬, 아, 여기 파란 애는 맞다. 푸른바다몬. 그럼, 이 여인은 누구지?"

지현이가 다시 보니 녹색 피부를 가진 아이는 왼손에 초롱불을 들고 있고 붉은 노을 아이의 눈에서는 붉은빛이 어린 느낌이었다. 부인의 왼쪽에 있는 푸른바다몬을 다시 잘 보니 손이 푸른색이었다. 유사시엔 바닷물을 손에서 뿜을 것 같은. 그림 속 세 아이는 공중에 떠 있었다. '여신과 동자도(圖)' 같았다. '전지적 여신 시점'에 '문제적 동자 시점' 같은 느낌!

지현이 그렇게 책을 살피다가 문득 인기척을 느껴 고개를 드니 어느 틈엔가 오른쪽 소나무 아래 벤치에 소년이 앉아 있었다. 소년은 긴 머리를 하얀 머리띠로 묶었고 옷은 고려시대 옷 같은 걸 입었다. 꽤 까무잡잡한 얼굴이다. 옷은 좀 젖어 있었고 진흙 얼룩이 많이 묻어 있었다. 소년이 다가왔다. 왼쪽

귀에 헐, 청자 미니어처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심쿵, 꽤 잘생긴 얼굴! 소년은 옷을 좀 털더니 손을 들어 인사했다.

"포카, 난 유천이야. 우리 아까 봤었지?"

"뭐라고, 유천? 아니, 너는 그 청자를 만들던 걔? 애니메이션에도 나왔던?"

"맞아. 반갑다. 사실 어제도 너를 봤지만."

"어제 언제? 그런데 혹시 지금 그런 복장을 하고 뭔가 촬영 중?"

하면서 지현이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카메라는 없었다. 원거리 촬영이나 드론으로 찍나 하고 건물 옥상하고 하늘을 보아도 아무도 없었다. 유천이가 하하하 웃었다.

"지금 너를 이해해. 세상엔 두 종류 사람이 끌지. 하나는 이상한, 하나는 좋은. 나는 전자야. 저 박물관에 사는데 정확히는 기억으로 살지."

"뭐라고?"

유천은 잠시 청룡 쪽을 바라보고는 책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네가 그 책 이야기를 믿는다면 나는 살아나게 되는 거지. 난 조금 전까지 서해를 따라 개경으로 가다가 채석강 남신이 불러서 급히 저 청룡을

타고 너를 만나러 온 거야. 청룡이 여기 이야기 속 사람들이 타는 하늘 마차거든. 신들은 시간 문을 이용하고 말이야."

지현이 머릿속이 멍하니 엉클어졌다.

"너, 뭐라는 거니, 지금?"

유천은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얼굴을 봤으니 남신님 부탁을 들어준 거니까 나 그만 갈게. 개경으로 가서 청자를 넘겨야 하거든. 그런데, 너 언젠가 본 것 같다. 30년 전인가?"

말하고는 지현 뒤로 걸어가더니 왼쪽 청룡 조각상 등에 올라탔다. 그러더니 금세 사라졌다. 지현이 눈을 비비고 봐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청룡도 그대로고.

'뭐야, 이건? 내가 뭘 본 거야? 그리고 30년 전에 어쩌고? 그때면 엄마가 내 나이 정도였을 텐데.'

정적의 시간. 책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 엄마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에효, 엄마 수다가 역시 길어질 모양이다. 키티를 꺼내려다가 생각을 바꿔 책을 집어 들고 표지를 열었다. 두세 페이지를 보니 '마고할미… 여덟 아들', '그리고 마실이..' 이런 글들이 나왔다.

"웁스, 역시 고대 판타지 책이네."

흥미가 동했지만 다 보지 못할 바엔 아예 처음부터 안 보는 게 낫다. 엄마가 왔다. 표정이 환했다. 아까는 없던 녹색 양산을 쓰고 왔다. 하늘을 보니 햇볕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의아해하는 지현에게 엄마는,

"아, 친구 선물. 부안에서는 메리 포핀스 양산 써 줘야 한다며 굳이. 히히."

별일 아닌 듯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산을 빙빙 돌렸다. '책 표지 부인이 쓰고 있던 그 양산인데?'

지현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책을 들고 청자박물관으로 다시 들어갔다. 입구 오른쪽에 있는 1층 안내실에 갔더니 아까까지 있던 젊은 남자 직원 대신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아저씨가 자리에 있었다. 검은 수염 사이로 흰 수염이 희끗희끗 보였다. 지현이 똑바로 걸어가서 수염 아저씨에게 책을 보여 주고는 주인을 찾아달라고 했다. 책을 건넨 지현이가 아저씨 얼굴을 보니 이마에 마치 퇴적층처럼 주름이 층층이 새겨져 있고 물기가 흐를 듯 배어 있었다. 머리와 이마, 귓등에 뭔가 작은 고둥 같은 것들도 보였다. 수염 아저씨는 천연덕스럽게 고둥 중에 몇 개를 데스크 위에 떼어 놓았다.

'뭐지, 이 시추에이션은? 나 지금 킹스크로스역 9와 4분의 3 승강장에 들어온 거야?'

지현이가 머리를 흔들었다. 그를 보며 아저씨가 허허 웃었다. 웃던 아저씨는 책을 일단 내려놓았다. 그런데 다음이 이상했다. 아저씨는 지현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 기록한다든가 이런 건 하지 않고 빙그레 웃더니 굵은

바리톤 목소리로,

"그대가 포카인가? 메리 포핀스 딸. 어제 부안마실축제에서 '바람의 빛깔'도 불렀고?"

하고 물었다. 지현은 너무 놀랐다. 그래서 유리 현관문 밖 벤치 쪽을 가리키면서

"그걸 어떻게? 혹시 저기 있는 제 엄마 친구분이세요?
저기 녹색 양산을 쓴."

수염 아저씨는 잠시 바깥을 보더니 이상한 대답을 했다.

"30년 전에 본 적이 있느니라. 메리 포핀스였지?
그건 그렇고 말이야, 포카."

그런데 엄마 쪽을 가리키려고 뒤를 돌아본 지현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1층 로비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지금 1층엔 아무도 없다. 해설사도 없다.

"저, 아저씨는 그런데 누구세요?"

"나? 유네스코 생태지질공원 원장이라네. 특별한 날엔 새로운 아이를 만나려고 가끔 나타나고 말이야."

"저, 아저씨. 우리 엄마 앞에서는 '말이야' 그 소리는 하지 마세요. 큭큭."

아저씨가 금세 알겠다는 듯이 웃었다. "허허. 30년 전 그대로군. 알겠다."

아저씨는 로비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쳐다보았다. 10시 55분.

"11시면 밀물 군단이 몰려오니까 시간이 없구나. 본좌 이름은 채석강(採石江). 강은 아니라네. 세상에 신기한 돌이 지질시대 별로 층층이 모였다고 해서 그렇게 붙었지. 허허허."

그러면서 아저씨 턱에 붙은 고둥과 풀 같은 걸 또 뗐다.

"얘들은 나를 따라온 총알고둥이야. 얘는 풀색꽃해변말미잘. 귀엽지?"

"네, 고둥이요?"

"오늘 30년 전 특별한 소녀였던 말희의 빛나는 돌인 그대가 온다고 해서 특별히 기다렸다."

"아, 아저씨는 정말 우리 엄마 선배이신가 보네요. 그런데 엄마가 원장 선배는 말한 적 없는데. 아니 잠깐, 채석강이면 설마 격포항에 있는 그 절벽 말씀이세요? 7천만 년 되었다는?"

아저씨는 그 말엔 답하지 않고 로비 벽에 걸린 시계를 다시 쳐다보더니,

"포카, 본좌가 썰물 요정이 이제 다시 밀물 장군으로 트랜스폼해야 한다는구나. 가야겠다. 아, 그 책 주인은 이제는 너이니 도로 가져가거라."

하고는 책을 다시 지현에게 건네줬다. 지현이 얼떨결에 책을 받았다. 책엔 총알고둥 하나가 붙어 있었다. 아저씨는 그 고둥을 조심스럽게 떼더니 자기 이마에 다시 붙였다.

"원장님, 여기가 청자박물관이 아니라 시간박물관인 건가요? 이 책은 호그와트로 가는 킹스 크로스역 9와 4분의 3 승강장 같은 장치고. 환장하게 재미있네요. 큭큭. (아 미치겠다)"

아저씨는 귀여운 듯이 지현을 쳐다보다가 안내실 뒤 유리문을 열고는 나갔다.

"여기 박물관은 다른 공간 터널로 통하는 문이 있는 곳이다. 시간의 문도 돼. 나는 마실 여신보다 더 오래전 영(靈)이다. 선 고대 지질 영이니까."

"아저씨. 그만. 장난하기 없기요. 저 어지러워요."

"그 책 잘 다루거라. 네가 성질부리면 그 책은 혹- 다른 아이에게 가버려. 알겠느냐?"

"지금 뭔가 박물관의 앨리스 설정 샷 찍고 있는 거 아니죠? 유천이 2탄."

지현이 황당해 묻는데 수염 아저씨가 라운지 쪽으로 걸어가자, 벽 문이 열리고 지현 시야에서 금세 사라졌다.

지현이 멍한 표정으로 책을 들고 다시 벤치 쪽으로 왔다. 엄마는 청룡 자기를 둘러보고 있었다. 둘은 다시 차를 타고 움직였다. 잠시 후 지현이 좀 전에 겪은 일을 엄마에게 들려줬다. 엄마는 운전하면서 신중하게 지현 이야기를 듣더니 유천이, 수염 아저씨보다 더 황당한 대답을 했다.

"여기 부안에서는 말이야,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진다더라.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백합 부인이 백합국을 공중에서 날라다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성당을 지키는 개양할미와 구낭이 나타나 철마를 태워준대. 부안엔 시간 문을 타고 신들이 온다는 거야. 너한테는 그 책이 나타난 거군. 그 채석강 남신도 같이."

"엥, 시간의 문에다가 채석강 남신이라니? 그 수염 아저씨가 채석강 남신이란 거야?"

"채석강하고 그 위에 적벽강이 둘 다 강(江)씨 남신 형제야. 인간으로 변신도 가능해서 가끔 시간 문을 열고 지상으로 나와. 이마에 주름이 많고 고대 어투를 쓰는데 이마나 턱 같은데 고둥이 달려 있지? 급히 오느라고 거기 절벽에 사는 고둥을 못 떼고 온 거야. 히히."

"헐, 엄마 지금 부안 판타지 써?"

지현이 핀잔을 주는데도 엄마는 싱긋이 웃으면서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믿는다며? 그거에 비하면 이쯤이야. 히히."

"돌겠네. 돌겠어. 에휴, 엄마까지 왜 이런담."

"포카, 부안 뜻이 뭔지 아니?"

"뭔데?"

"'부드러운 안내'라는 뜻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히 부드러운 안내"

"정말 그런 거야? 그런데 뭘, 어디로, 어떤 사람?"

"환상으로 가는 마실 길, 포카혼타스처럼 바람의 빛깔을 보는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 히히"

"엄마가 진짜로 이젠 판타지까지 쓰는구나, 키티가 부안 설명할 때 그런 설명 없었거든. 흥."

엄마도 지지 않았다.

"엄마는 키티 따위가 아니거든. 오늘은 메리 포핀스거든.

왜냐, 여기는 부안이니까. 히히"

그렇게 엄마와 지현은 2박 3일 부안 여행을 이어갔다. 지현이가 기억나는 게 더 있다.

하나는 누에 참뽕이다. 둘은 둘째 날 오후에 변산면 참뽕로 누에 타운에 가서 참뽕이도 만났다. 누에에 얽힌 전설을 해설사님에게 들었는데 여기에 그대로 옮길 만큼 재미있었다, 해설사님은 누에 머리 모양의 고깔모자를 쓰고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마두양(馬頭孃. Miss Horse head) 이야기' 혹은 '잠신(蠶神. Cocoon God) 이야기'라고 했다.

고대의 한 평화롭던 왕국에 강력한 적국이 침략해 들어와 적국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이에 왕이 너무도 사랑하던 공주가 왕에게 나아가 적장의 목을 베어오는 영웅과 결혼하겠다고 왕에게 맹세한다. 그런데 그 청을 들은 왕의 말이 갑자기 큰 울음을 내며 마구간을 차고 나가더니 쏜살같이 적진으로 달려가서 적장의 목을 물어 돌아왔다. 이에 왕은 난감했으나 공주는 약속대로 말과 결혼하겠다고 했다. 차마 그럴 수 없던 왕은 할 수 없이 공주의 마음을 돌리려고 말의 목을 베어 죽인다. 그리고 말가죽을 말리기 위해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는데 공주는 매일 그 말가죽을 어루만지며 슬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돌풍이 불어 그 바람에 공주와 말가죽이 같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다. 왕이 놀라 그 행방을 수소문하니 어느 시골의 나뭇가지에 말가죽이 걸려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왕이 급히 달려가 말가죽을 내려 살폈다. 그 안에 못 보던 작은 벌레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는 말의 머리를 하고 있었고 피부는 공주의 피부처럼 매끄러웠다. 벌레가

풀을 갉아 먹는 모습은 마치 말이 풀을 뜯는 모습과 같았다. 얼마 후 벌레가 고운 실을 뿜어내는 모습이 공주가 바느질하는 모습처럼 보이자, 왕은 이 벌레를 공주의 현신으로 보고 신하들에게 가져가 공주를 대하듯이 잘 돌보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몇 년 후에는 왕국에 이 벌레가 퍼지게 되었다. 이 말가죽이 걸려 있던 나무가 바로 뽕나무였고 그 벌레는 누에로, 사람들은 '말머리를 한 아가씨'라는 뜻의 마두양으로 불렀다.

'에효, 거미가 된 베틀 처녀 아라크네보다 좀 더 슬프네.

아니, 아름다운 건가. 슬퍼서 아름다운!'

지현과 엄마는 누에 이야기를 가슴에 안은 채 영구를 타고 이번엔 곰소염전으로 갔다. 염전은 바닷가가 아닌 안쪽으로 좀 들어간 곳에 넓게 펼쳐져 있었다. 바닷물을 그 안쪽으로 끌어오는 모양이었다. 시흥 갯골에서 한두 개 보았던 소금 창고가 여기는 엄청 많았다. 엄마는 한참을 보다가 지현을 멋진 인테리어를 한 빵집으로 이끌었다. 곰소의 찐빵 맛집인 슬지 제빵소였다. 모든 빵이 찐빵이다. 1시면 다 떨어진다는 소금 찐빵이 운 좋게 하나 남아서 둘이 나눠 먹고, 엄마는 아빠 준다고 제빵소 옆 굿즈 샵에 가서 오디 와인도 샀다.

둘은 이어 줄포를 돌아 내변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명량, 사도 등 한국 유명 사극을 많이 찍은 영상테마파크까지 둘러본 후에 다시 북쪽으로 가서 남새만금 오른쪽에 있는 광활한 부지인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도 멀리서 보았다. 찰칵. 이어 군산으로 이어지는 수십 킬로미터의 엄청난 길이와 규모의 방조제 길을 창문 열고 바람을 맞으며 야호! 야호! 달렸다. 새만금에 저녁이

왔다. 가력도 부근에는 갈매기들이 많이 보이고 영롱한 저녁 윤슬이 호수에 비췄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둘은 변산 해수욕장 코지코브 호텔로 돌아왔다. 짐도 안 푼 채, 호텔 옆에 죽 늘어선 해변식당 중 첫 번째 식당으로 들어가서 이번엔 백합 정식을 시켰다. 엄마가 식당 여자 주인과 눈을 찡긋거리는 걸 지현은 보지 못했다. 잠시 기다리니 백합 비슷한 조개들이 식탁에 잔뜩 올라왔다. 지현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왕, 이거 여왕의 식탁이네. 이게 바다 인심 아니 부안 인심이야? 잘 먹겠습니다."

엄마의 음모에 지현은 오늘도 배가 고팠고 모든 게 너무 맛있었다.

3일 동안에 부안의 수많은 명소를 다 보기에는 벅찼다. 엄마는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히치하이커 여행자가 아니었다. 꼼꼼히 보고 틈틈이 쉬었다. 그래서 내소사, 직소폭포, 신재생 에너지테마파크 등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언제 또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그 3일, 지현으로서는 황당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었다. 다른 도시에서는 받지 못한 그래서 신기하게 느껴지는 그런 환대. 엄마 말대로 부드러운 안내.

그렇게 3일을 정신없이 보내고 다시 인천의 13층 아파트 집으로 돌아온 지현은 처음에는 현실감이 떨어져 멍한 느낌이었다. 바다가 보이고 바람이 귓전에 불고 유천이, 채석강 남신, 개양할미, 백합들이 어른 거리는 그 느낌. 해외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낯선 여행 울렁증 같은 거 말이다. 그 울렁증이 가라앉는 데 이틀이 걸렸다.

한 주가 지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지현은 비로소 가져온 책을 손에 들었다. 그 책이 표지에서 녹색 빛을 내며 지현에게 알람을 보냈기 때문이다.

책 제목은『마실 여신의 땅』이었다. 그런데 그 제목 위에 희미하게 '포카를 위한' 이란 글자가 보이는 듯했다. '헐! 이건 또 뭐지?' 지현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더니, 글자는 사라졌다. 대신 세 동자 몬 중에서 녹색 옷을 입고 왼손에 등을 든 산들마실몬 킹스크로스역 9와 3/4 승강장이 지현을 보면서 윙크했다. 이건 진짜였다. 그렇게 해서 지현은 책이 열어준, 시간의 문으로 들어갔다.

믿지 않으면 뜨거운 바지락 국물을 쏟아붓는
성질 사나우나 신비한 책

두 큰 여신
열세 개의 이야기 땅
소환된 세 동자 몬
3 요마와 붉은 여왕과의 내기

아! 그럼에도
부드러운 안내
태평 부안국 이야기
봄과 가을 두 축제의 다른 의미

1장 두 여신

1장. 두 여신

마고(麻姑)할미는 태곳적부터 토끼 같고 호랑이 같은 이 땅을 만들어 지켜온 대모신이다, '큰(한) 엄마 신'이란 뜻이다. 또한 마고할미는 변신과 다산의 여신이다. 거인 신이라 하늘을 받치고 산을 만들고 강을 만들었다. 대모신은 그 자신이 대지이다. 할미의 피부는 땅을 이루고 피부에 난 털은 나무와 풀 그리고 꽃이 되었다. 이 땅의 서쪽에서 전하는 바다 신 개양할미, 남쪽에 전하는 바람 신 영등 할미는 마고할미가 변신한 할미라고 보면 된다.

무지한 자들은 알아두어라. 할미는 나이 많은 노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 어미'로 큰 여신이라는 뜻이다. 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한(大)'이고 세상을 낳아서 '어미'다. 중국을 낳은 여와, 그리스 세계관을 낳은 가이아, 원곡이 라트비아 가요인 '백만 송이 장미(원제.. '마라가 준 인생')'에 나오는 마라 여신도 그런 의미에서 다 대모신 할미다.

할미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큰 고드름처럼 달린, 토끼 같고 호랑이 같은 형상을 한 이 땅에 하늘의 북극성과 북두칠성 기운을 받아 **여덟 장군**을 낳았다. 땅의 기상과 별의 정기를 받은 여덟 장군은 각각 재능이 달랐다. 장군들의 이름은 할미 이름에서 한 자인 '마(麻)'를 따서 그 마에 1부터 8까지 붙였다. 장군들은 그처럼 숫자로 하면 각자의 개성이 없으며 순번이 정해지고 이름이 헷갈린다고 불만이었지만 할미는,

"임마, 개성이 많으면 헷갈려. 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체성이 중요한 거야. 봐라, 저 신성한 북두칠성 일곱 별에 각각 있는 이름이 외우기 쉽니? 그러나 일곱 개 별로 퉁 쳐서 얼마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니."

하면서 일단 '여덟 장군'이 중요하다 하고는 할미가 정한 그대로 이름을 붙여줬다. 할미는 우선 용맹한 장남 마일에게는 백두산을 맡겼다. 겨우 산이냐고 투덜거리는 마일에게 "그곳은 이 땅의 마루 산이니 장남이 맡아야 한다."라고 타일렀다. 마일은 그래도 불만이어서 크게 화를 한 번 냈는데 그게 화산 폭발처럼 되어서 북방과 동해 인근을 새카맣게 덮어버렸다. 놀란 마일은 자신의 엄청난 힘을 알게 되고는 화를 풀고 백두산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 할미는 이어 마이와 마삼에게는 험한 지역이며 국경 지역인 함경도와 평안도를 맡으라고 했고 이들 셋을 합쳐 **백.함.평 삼형제**라는 호칭을 붙여줬다. 이어 온건한 것을 좋아하는 넷째 마사, 다섯째 마오, 여섯째 마육에게는 각각 황해도와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를 맡으라고 했다. 제주도는 이미 설문대할망이 자리하고 그 할망이 오백 장군을 낳았기에 아들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마고할미는 설문대할망에게 섬을 선물했다. 막둥이 여덟째 이름을 딴 마팔도였는데 마팔이 섬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 싫다고 센 입김을 불어 'ㄹ'이 빠지는 통에 마파도(麻婆島)가 되었다. 거기엔 마마 자국(麻子)이 있는 고약한 할머니 다섯이 살았는데 후에 이 섬은 이름이 바뀌어 가파도(加波島)로 되었다. '파도가 덮을 만큼 낮은 섬'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마고할미 은혜를 갚아도 갚아도 갚기 어렵다는 뜻으로 추정된다.

이제 두 개 땅이 남았다. 경상도와 전라도였다. 이 땅들은 동해와 서해 그리고 공통으로 남해까지 바라보는 곳이었다. 지대로 보면 앞에 형들이 받은 북쪽 땅보다 낮은 곳이었다. 당시에는 북방 대륙의 시대라 북쪽이 중요했지만,

마고할미는 3천 년이 지나면 아주 큰 바다 태평양을 바라보는 그 두 곳이 중요해 질 걸 알았다. 옆 바다에 뻐드렁니 종족이 사는 야마토(大和) 섬나라도 틈틈이 경계해야 하는 남방 지킴이 자리이기도 했다.

지현이는 요즘 도시 불빛이 밝아 하늘에 별이 안 보이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자면, 북두칠성은 북극성 위에 자리한 큰곰자리 중 한 별자리다. 국자처럼 생겼다. 몽골 텡그리 신앙에서는 일곱 늙은이라는 뜻의 도룬 옵곤, 도교에서는 칠원성군, 불교에서는 칠성여래로 부른다. 중국의 점술인 자미두수나 이 땅의 오랜 칠성신 신앙에서는 북두칠성 일곱 개 별을 각각 성군(星君)이라 해서 신으로 모시는데 국자 시작부터 손잡이 끝 순서로 각각 탐랑(貪狼. 욕망)-거문(巨門. 길한 방향)-녹존(祿存. 강화)-문곡(文曲. 지혜와 문예)-염정(廉貞. 추진, 변화)-무곡(武曲. 질서를 세움)-파군(破軍. 독단, 불길)이라고 부른다. 할미는 특별히 북두칠성 중 무곡성과 문곡성의 기운을 받아 낳은 마칠과 마팔을 불러 마음에 드는 바다를 골라 바위를 던져보라 했다. 이유는 말해 주지 않았다. 문곡성 기운을 받은 마칠은 순서를 막내인 마팔에게 양보했다. 무곡성 기운을 받아 힘이 센 마팔은 단숨에 설악산에 올라가 가장 큰 바위를 들어 "힘-" 하면서 동해로 던졌다. 마팔의 힘은 놀라워서 바위는 아주 멀리 나갔다. 바위가 바다에 떨어지자 큰 파도가 일며 육지로 밀려왔다. 그래서 육지는 파도에 밀려 올라갔다. 신이 난 마팔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한달음에 올라간 지리산에서 더 큰 바위를 찾아서 이번에도 "힘-" 하면서 우직하게 동해로 던졌다. 이번엔 첫 번째 바위보다는 덜 나갔지만, 방향은 비슷한 곳에 떨어졌다. 이번에도 역시 큰 파도가 일어 사방으로 퍼졌다. 그 큰 바위 두 개는 그 후 각각 동해를 지키는 두 섬인 독도와 울릉도가 되었다. 그리고 마팔은 으쓱거리며 수고한 근육 어깨를 달래느라 산이 솥처럼 생긴 부산(釜山)에서 쉬었다. 그때 바위를 하나 더 던져 그 섬이 마고 가문 '마' 자가

들어간 대마도가 되는데 할미에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던져서 할미는 그 대마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마도(對馬島)는 한자도 할미 가문의 마(麻)를 쓰지 못하고 말 마(馬)를 쓰게 되었다. 할미는 "대마도가 뭐람. 기왕 이름 지을 거면, 마를 두 개 넣어서 마마도라고 해야지."라고 했다고 한다.

이젠 손이 섬세한 마칠 차례였다. 배려심이 많고 예술 감각이 좋은 마칠은 땅의 서쪽 평야에 나 있는 수많은 바위를 열 손가락에 잡아 서해 방향을 보고 투망을 던지듯 흩뿌렸다. 그리고 입김을 세게 불었다. 바위들은 입김을 타고 하늘을 날아 서해 가까운 바다 사방에 뿌려졌다. 그래서 좀 작으나 마칠의 입김 영향으로 수많은 재능과 이야기를 가진 섬이 되었다. 땅도 파도를 따라 더 퍼져 갯벌과 모래 해변을 이루었다. 마칠은 거기에 더해 해안으로 가서 모래밭을 거닐며 고대의 신들과 태고 자연 이야기를 담은 노래도 불렀다. 그 노래는 그 후 <얌, 세계의 빛깔>로 전해졌다.

♬ 얌, 세계의 빛깔

과거가 깊다지만
아니얌, 사랑이 더 깊어라.
바다가 넓다지만
아니얌, 다정이 더 넓어라.
하늘이 높다지만
아니얌, 마음이 더 높아라.
운명이 암(暗)하다지만

아니얌, 예술로 행복해지리라

얌, 세상은 모두 빛깔로 만들어진다네
빛깔은 얌 흥을 만든다네.
아, 다섯 광휘의 빛깔을
세계는 찬미해야 한다네
그 빛깔을. 그 흥을. 얌, 얌.

전라도는 그래서 '흥(興)'과 '예(藝)'와 '소리'의 땅으로 변했다. 이들을 합쳐서 칠라는 얌이라고 불렀다. 얌은 또한 사랑, 마음, 다정, 예술, 섬김 다섯 빛깔의 상자 이름이기도 했다. 다섯 빛깔이 들어 있는 얌의 상자. 그 상자 안에는 인간이 지켜야 할 밝은 이치 즉, 다정과 예술의 가치를 적은 『얌마경(얌麻經)』이 전한다고 한다. 얌의 상자를 열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신비하고 아름다운 노래와 이야기들을 들으러 서해 요정들과 섬의 정령들과 조기, 꽃게 같은 다양 다미(多味)한 물고기들과 해초, 백합, 바지락 같은 조개들이 동해와 남해에서 모여들었다. 달과 교류하는 서해 파도도 이야기를 들으러 윤슬을 빛내며 왔다. 그러면 밀물 장군이 되었다. 파도가 물러나 썰물 요정이 되면 밀물이 무서웠던 바다 갯벌과 모래들이 이야기를 들으러 얼굴을 드러냈다.

마고할미는 두 형제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하루를 정해 큰곰자리에 있는 북두칠성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지혜의 문곡성과 힘의 무곡성이 특별히 밝게 빛났다. 마고할미는 별들과 상의 후 마침내 마칠에게는 전라도,

마팔에게는 경상도를 맡겼다. 두 장군은 순서와 지역을 따라 자신들 별명도 지었다. 그래봐야 마칠은 칠라(七羅), 마팔은 팔경(八慶) 정도였지만 그런 이름 짓기는 그래도 다른 여섯 장군의 오해와 질투를 불렀다. 그들은 "마고할미가 이미 한 말이 있는데 왜 다른 이름을 짓느냐?" 따졌다. 북두칠성 각 별에 고유의 이름이 있는 걸 몰랐던 장군들은 "북두칠성을 '북일', '북이' 하다가 갑자기 '5성', '6성' 하면 그건 마치 오성 장군, 육성급 궁전처럼 격을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주장한 것이다. 마고할미는 그런 항의에 일일이 답을 해 줄 정도로 상냥한 할미는 아니었다. 형제 장군들의 질투를 받으며 칠라 장군과 팔경 장군은 그렇게 남다른 이름과 땅을 얻었지만, 둘 사이는 높고 깊은 지리산과 두꺼비 울음이 시끄러운 섬진강을 경계로 힘과 양의 땅으로 구분되면서 점점 멀어져 갔다.

이 8장 8도 작업을 마친 후 마음이 편안해진 마고할미는 오랫동안 쉬었다. 쉬는 동안에 여덟 장군이 왜 사랑스러운 여동생은 없느냐고 불만이 섞인 소리를 했지만, 할미는 못 들은 척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자는 시간에 이 땅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마고할미는 긴 꿈을 꾸었다. 신비한 녹색 싹의 꿈이었다.

그리고 천 년 전,

마고할미는 깨어났다. 세상을 둘러본 할미는 세상이 아직 시끄럽기는 하지만 거인 여신으로서 자신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꿈에 나타난 '녹색 싹=온 생명의 여신'이 당부한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될 일이다. 그것은 **다정**(多情) **세상**을 만드는 일이었다. 사람의 신체를 만들면 그 안에 '○○다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요즘 인간들 언어를 빌리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휴먼웨어도 만드는 프로젝트. 다정이란 싹!

할미는 이번에는 다른 신성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마고할미 내부에 응집된 에너지와 마음의 바람에만 의지해 마지막 신력을 내부로 기울였다. 그 임신을 녹색 싹=온 생명의 여신이 도와주었다. 여신들은 자궁으로 낳지 않는다. 꿈 혹은 바람(희망)으로 낳는다. 할미는 100년의 산고 끝에 마침내 입김을 토해 딸을 낳았다. 강낭콩처럼 작은 녹색 아이였다. 아주 이쁜 얼굴은 아니었다. 할미는 딸의 키와 미모에 미련이 생겨 이름을 바로 주지 않았다. 그래도 딸이 너무 귀여워 코를 콕 눌렀더니 코에 점이 생겨났다. 할미는 마구 웃다가 그 점에 신통력을 주었는데 '매력(魅力)'이라는 신통력이었다. 매력의 魅는 도깨비 혹은 홀린다는 뜻이다. 10년이 지나자, 딸아이는 점점 커져서 보통 여자보다는 큰 키가 되었다. 얼굴과 몸은 핀 지 이틀 된 목련화처럼 미백으로 변했다. 절대 미색은 아니었지만 한번 보면 잊지 못하는 매력을 뿜뿜했고 땅과 나무와 별과 새들이 그녀 옆에만 서면 뭔가 자꾸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다. 마고할미는 그제야 그 딸에게 오빠들처럼 할미의 이름 중 가문 정체성을 밝히는 '마'를 주고 그동안 하늘 나무의 가지들에 귀하게 걸어 놓았던 '실' 이름을 내려 주어 마실(麻實)이라고 불렀다. 실은 진실, 열매 맺음, 비단실처럼 연결, 매사 집착함이 없이 허허실실하다는 뜻과 튼실하다는 뜻도 있어 할미 마음에 쏙 들었다. 이 여동생 이름에 여덟 장군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할미가 이름을 짓던 그날, 이 땅엔 오색 빛이 비치고 특별히 전라도엔 얌의 노래가 산과 들 그리고 바다와 하늘에 울려 퍼졌다.

마고할미는 막내딸 마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었다. 무엇일까?

그것은 중국에 전하는 달의 선녀 항아 같은 미모나 판도라의 항아리 혹은 중국의 왕들이 추앙하는 서왕모 같은 젊음과 카리스마가 아니었다. 사실은 이제 지친 할미가 주는 소박한 것이었다. 온 생명의 여신이 꿈에서 당부한 것이기도 했다. 그 선물은 마실이가 다니는 인간 세상의 작은 곳들을 '마을'이라고 부르고 그 마을을 관장하는 **다정한 연결**이었다. 그래서 8도에 마을과 마실 문화라는 게 생겨났다. 마실 문화는 다정 그리고 연결이 중요한 문화다. 장군 오라버니들은 만들지 못한 문화였다. 얌을 만든 칠라 장군도 마실 문화는 만들지 못했다. 사과로 비유하자면 얌이 사과 과육이고 다정은 사과씨와 같은 것이었다. 북방 외적 침입이 많아 의심이 많은 중국(요기는 그래서 꽌시-關係- 문화가 발달)이나 야마토 같은 섬나라(요기는 그래서 하심-下心- 문화가 발달. 하심은 '마음을 속에 숨긴다'는 뜻), 북방(요기는 탱그리 섬김이 발달)에는 없는 독특한 문화가 바로 이 마실이고 그것은 마고할미가 마지막 공력으로 딸에 그리고 이 땅에 준 선물이다. 여덟 장군은 마실과 마실 문화를 보고서야 "이제야 우리 땅다워졌군."이라며 매우 만족해했다. 물론 엄숙한 장군들이라 날다람쥐나 개구리처럼 경망스럽게 티를 내지는 않았다. 그들은 은근히 견제에 기반한 경쟁 관계였는데 그럼에도 한 나라에 같이 있으니 마실 역할은 다른 대륙들과 다르게 더 중요한 것이다.

마실이 태어난 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얼추 1,300년 전-1,000년 전이다. 할미들은 시간 개념이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다. 어쨌든 그러니 인천여중 1학년 지현이는 이 신성한 탄생 '**우리 땅다움 = 마실 문화**'를 기억하라.

후에 먹물 인간들은 이 순서를 착각해서 애초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을 작게 자박자박 여유롭게 돌아다니는 일을 마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틀린 해석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을 이름의 어원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을 어원을 '모을'… 어쩌고 하는데 그런 식의 언어 변천은 없다. 오에서 아로 발음이 변하는 게 일반적이라면 그럼, '산'은 '손'에서 왔고 '발'은 '볼'에서 왔냐고?

그러나 마실을 어원으로 하면 마을 어원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니 누가 더 먼저일까? 당연히 마고할미가 자신의 가문 정체성을 붙인 이름인 마실이 더 먼저인 것이다.

오랜 방황과 훈련기를 거친 후 세상의 불안과 고통을 감당하며 성질이 사나워진 여덟 오라버니는 막내 여동생이 마고할미를 이어 땅 신, 바람 신, 물신의 불만까지 눌러 천년 평안을 지켜줄 큰 여신이 될 것이라고 예언 겸 축수를 해주었다. 실제로 마실이는 그렇게 성장해 갔다. 다정을 연결하는 휴먼웨어 여신으로!

마실 여신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마고할미는 마침내 영은 하늘과 인간들 기억 속으로 몸은 땅속으로 그 신성하고 거대한 모습을 분산해 감추었다.

2장 다정 여신 마실

2장. 다정 여신 마실

마실은 늘 스물두 살 같은 외모의 여신이다. 단성생식을 한 어머니 마고할미를 닮아 변신 능력이 뛰어나고 자유로운 성격에 다정한 심성을 가졌다.

여신은 처음에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흰 통 삼베옷 그리고 짚신을 신고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실하기에 맞도록 변화를 줬다. 머리엔 챙이 하늘거리는 분홍색 바람 모자를 쓰고 손에는 대나무 대로 만든 녹색 우산을 들었다. 대나무로 만든 녹색 우산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우산인데 이는 백두산을 지키는 마일 오라버니가 풍백 신에게 시켜 여동생 마실에게 선물한 것이다. 우산 이름은 '녹비산(綠飛傘)'이다. 자신이 지키는 백두산이 너무 춥고 높아 여동생 마실이가 편하게 올라오게 선물한 것이다. 이 녹비산은 음, 비유하자면 영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웨일스의 스노든산 정상에 사는 정령이 마법사 보모 메리 포핀스(Mary Poppins)에게 준 그 비행 우산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데 더울 때는 높은 산의 기운을 받아 우산에서 서늘한 기운이 나오고 추울 때는 오라버니 마일의 따뜻한 마음처럼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마법 우산을 갖춘 마실은 허리에 청·적·황·백·흑의 오방색 색동 띠를 둘렀다. 색동 띠는 일곱 번째 오라비인 마칠-칠라 장군이 얌의 상자를 열어 띠에 다섯 빛깔 기운을 전사한 후 만든 것이다. 이 띠에 있는 색들은 각각 놀라운 능력이 있다. 신발도 본인이 오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듣게 아침

해가 떠오른다는 전설의 나무 부상(扶桑) 뽕나무로 만든 나막신을 신었다. 이는 경상과 동해를 지키는 힘의 신 마팔-팔경 장군이 선물한 것이다. 옷은 옅은 하늘색 원피스인데 그 옷엔 허리띠와 함께 특별한 기능이 있었다. 그것은 아직은 안 알려 주겠다. 다만 힌트를 주자면, 마실 가서 만난 사람들에게 주는 상과 벌 관련한 기능이다. 산타클로스가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에게는 석탄을 주고 산타클로스의 상대역으로 검은 염소처럼 생긴 크람푸스(Krampus) 요정은 나쁜 아이를 구슬에 가둬버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약간은 짐작이 갈 것이다. 마실은 절대 다정하기만 한 여신이 아니다. 마을 질서를 해치고, 저만 잘난 척하고, 너무 떠드는 사람들에게는 애니멀 트랜스포밍 벌을 주기도 한다.

아니다. 나는 지금 생각을 바꿔 호기심이 많은 지현이에게만 특별히 그 놀라운 마법의 옷 기능을 귀띔해 주련다, 그러니 지현이는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를 들어라. 단, 입이 가벼운 아이(AI) 키티에게는 이 정보를 주면 안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비밀1) "마실 여신은 마실을 갔을 때 자신을 웃으며 맞아 주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 내오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 편안하고 건강하게 순풍-순풍 낳게 해 주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건강하게 자라 닭은 알을 잘 낳고 돼지는 새끼를 잘 낳고 소는 송아지를 잘 낳게 해 주었다. 마실 여신이 그런 마음을 품으면 마실 여신 옷은 푸른색으로 물들었다.

그런데 만일 마실 여신을 웃으며 맞아 주지를 않거나 음식을 내오지 않고 또 시끄럽게 떠들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각각 삽살개, 배고픈 꽃돼지, 꼭두새벽에 일어나 지붕 위에 올라가 꼬끼오 울어야 하는 수탉으로

변하게 했단다. 그럴 때 마실 여신 옷은 붉은색으로 변했고, 이어 마실 여신이 그런 사람 엉덩이를 녹색 우산으로 탁- 치면 그렇게 변한 동물 사람들은 목에 그 표시로 녹색 띠가 만들어지지."

비밀2)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 마을 사람이 없어지고 대신 어느 집 마당에서 목에 녹색 띠를 두른 삽살개, 꽃돼지, 수탉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들을 동물로 보지 않고 사람처럼 대해줬는데 대신 파 - 하 - 하 - 웃어 줬단다. 그리고 그 동물은 '마.혼.개', '마.혼.돼지', '마.혼.닭'으로 불렀는데 '마혼'은 '마실 여신에게 혼난' 이란 뜻이야. 그 동물들은 딱 1년만 그렇게 변신해 있는 벌을 받았고 말이야. 만일 그 동물들을 죽이면 그건 살인죄로 처벌받았고 말이야."

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은 걸로 하고 자, 이제 마실 여신 이야기를 계속하겠다.

다정한 마실 여신은 500년간 오라버니들이 다스리는 여덟 땅을 다니며 자유롭게 여행했다. 여신은 녹비산을 자주 쓰지는 않았다. 하늘을 비행하게 되면 땅으로 자박자박 걸어서 이곳저곳 마실 다니는 본래의 역할이 줄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실은 자신 나무 나막신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며 땅의 느낌을 느끼는 것을 좋아했다. 어차피 서둘 이유는 없었으니까.

마실이 가는 곳은 사람들이 다정해지고 서로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는 다정 문화가 만들어졌다. 다정은 줄여서 정(情)이라고도 한다. 이는 애(愛) 같은 깊고 무거운 감정과는 다르다. 情자는 심(心. 마음)자와 청(靑. 푸를)자가 결합한 글자다. 靑은 우물 주위로 푸른 초목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情자는 '맑고 순수한 마음'을

뜻한다. 마실 여신이 없는 다른 땅에서는 love, 愛는 많아도 이 맑고 순수한 정(情)자를 표현하는 글자를 찾기 힘들다. 여러 사람이 여러 감정으로 뒤섞여 사는 이 세상엔 정말 다정이 필요했다. 부가 있어도 다정함이 없으면 그 마을은 사막과도 같다. 군사력이 강해도 그 마을에 연결과 다정함이 없으면 지중해에 있던 미친 용사의 나라인 고대 스파르타처럼 결국 소멸해 간다. 여덟 오라버니는 여동생 여신이 만드는 이 기적을 놀라운 눈으로 지켜봤다. 그래서 여덟 오라버니는 저마다 마실을 자신들 땅으로 초대하려고 했다. 마실은 늘 그 초대에 기꺼이 응했다. 마실과 지내본 오라버니들은 그 매력에 빠져 마실을 어떻게든 자기 땅에 눌러 앉히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마실은,

"오라버니들, 마실이는 아직 더 많이 세상과 만나야 해. 아직은 거친 저 사람들과 거센 바람과 무도한 비와 사나운 나무와 세상모르고 재잘거리는 새들 말이야. 할미가 특별히 공을 들여 만든 인간들은 수백 년 동안 한발(가뭄), 폭싹, 씽씽 세 요마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 바보처럼 전쟁도 자주 벌이지. 그래서 의심도 많고 불안해해서 그만큼 오래 만져줘야 한다구. 그게 내게 남긴 할미의 뜻이야. 좀 기다렸."

라며 정착을 거부했다.

마실은 어디에나 갔지만 인간들은 사실 마실을 제대로 식별하지는 못했다. 마실이 암행어사처럼 다녀서? 아니. 마실은 마을을 다닐 때는 할머니, 엉덩이 흔들며 촐랑대는 아가씨, 좀 멍해 보이는 청년, 말총머리 소년 등 그 마을에 사는 실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마을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나타나면 그곳은 조만간 아주 화기애애해지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들이 골방에 감춰놓은 감자, 고구마, 옥수수가 삶아져 상 위에 올라왔다.

화전도 부치고 막걸리도 나왔다, 존엄한 대왕마마 욕도 살짝 하고 환갑을 10년 전에 지난 촌장님이 이웃집 각시한테 침을 흘리다가 신랑한테 혼나 오줌을 지린 어제 사건도 파-하-하 나누었다. 봄바람에 오니 정분난 옆 동네 여편네 흉도 보고 우렁각시에 홀린 어떤 총각 이야기엔 혀를 쯧쯧 찼다. 망태 할아버지한테 잡혀간 못된 아이 이야기도 나눴다. 망태 할아버지는 망태기를 짊어지고 다니는 노인인데, 부모 말을 듣지 않는 나쁜 아이를 짊어진 망태기에 집어넣어 데려가 버린다. 지역에 따라 바랑 할아버지나 소금 장수 혹은 '갓주지(갓을 쓴 스님)'로 불린다. 크람푸스 같은 할아버지인데 이는 사실 마신 여신이 아이만 대상으로 하는 임무를 맡겨 그를 대행하는 할아버지다. 어쨌든 마실 여신이 그렇게 나타나 흥이 오르면 사람들은 어울렁더울렁 춤도 추고 곡식들 익어가는 소리도 귀 기울여 들었다. 그게 사람 사는 맛이었다. 마실 여신은 그럴 때가 참 행복했다.

물론 괘씸한 인간들에게는 직접 녹색 목 띠 벌을 내려 주었다. 새나 돼지, 개 중에도 못된 것들에게는 인간으로 변하는 벌을 주기도 했는데 이건 아주 드문 일이었다. 그렇게 인간으로 변한 동물들은 눈이 탁하고 말이 동물처럼 거칠고 아무 데서나 침을 탁탁 뱉고 소변을 봐서 금세 표시가 났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

마실의 다정 능력은 돈보다 미모보다, 젊음이나 근육보다 더 강했다. 마실 여신은 아, 그 치명적인 다정 매력 때문에 정말 사건도 많았다. 수많은 땅 신과 바다 남신, 불력 높은 스님과 도력 높은 도사들이 마실을 따라다니며 사랑을 구했던 **구애마실** 사건들이 그것이다. 심지어 망태 할아버지까지 대시했으니 말이다. 마고할미가 수천 년 순정 내력으로 낳은 유일한 딸에게 감히 속세의 애정을 구하다니! 심지어 맹수를 지키는 동물 수호신과 도깨비

같은 이매와 망량들도 하룻밤만 같이 해달라는 부탁부터 평생을 모시겠다는 청원까지 하면서 마실을 숨어서 따라다녔다. 여신이 꼬리 아홉 개 여우 구미호가 아닌데도 말이다. 그러나 마실은 다정과 욕망을 구별 못 해 구애하는 그들을 죽음의 강까지 밀치지는 않았다. 늘 다정하게 대했다. 그래서 애가 탔지만 결국 그들은 마실의 친구로 남게 되었다. 마실의 친구는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아졌다.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악까지 다 다정하게 해줄 수는 없고 모두가 친구가 될 수는 없는 일. 마실 여신에게도 그런 필연의 악들이 덤벼들었다. 특히 자연의 힘을 가진 세 요마가 마실을 힘들게 했다. 그 세 요마와의 긴 전쟁(?)은 뒤에 따로 말해주련다.

그렇게 450년을 더 돌아다녔다. 이 땅에 어리석은 전쟁도 있었지만 그래도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졌다. 8도의 오라버니들은 그 공을 여동생 마실에게 돌렸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다.

이 땅이 둘로 갈라진 것이다. 색으로는 적과 청이다. 마고할미가 만든 이 땅이 80년 전에 비록 청색의 남과 적색의 북으로 갈라진 것이다. 그것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은 참 파괴적이었지만 뭐, 여신에게는 그것이 그다지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 남인들 북인들 그것은 인간들이 쳐 놓은 울타리일 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북쪽 땅에는 땅 신 대신 공산당이라는 신종 듣보잡 당(黨) 악마가 생겨 여신이 자유롭게 다니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생겼다. 붉은 완장을 찬 당 악마의 붉은 감시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마실 여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얼음처럼 얼어붙었고 낮의 까마귀, 밤의 쥐 눈보다 더 예민하게 마을 사람들 관계를 감시하고 고발했던 고약한 당 문화 때문이다.

이참에 당이라는 한자는 기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은 특이하게도 아궁이와 관련된 글자다. 한자는 상형문자라 기원이 비교적 분명한 글인 때문에 2-3천 년 전 고대인이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상징을 썼는지 살펴보는 데 아주 유익하다. 그러니 바람의 빛깔을 사랑하는 지현은 한자 공부도 틈틈이 할 필요가 있다. 黨자는 상(尙. 오히려)자와 아궁이를 본 딴 흑(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尙자는 원래 집의 상형이고 여기에 아궁이 黑이 결합해 집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이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연기가 난다. 그래서 黨의 본래 의미는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집안을 가득 메워 '선명하지 않다'라는 뜻이 컸다. 그러나 주나라 때 집에 하나 있는 아궁이를 기준으로 500가구를 '一黨'으로 묶는 호적제도가 도입되면서 '무리', '일가'라는 오늘날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아궁이에 연기가 나서 선명하지 않은 당이라니 그럼, 다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마실 여신도 점점 북쪽에 정이 식게 되었다. 마일, 마이, 마삼백. 함. 평 세 오라버니에게는 미안했으나 점점 발길을 끊게 되었다.

마실 여신은 그러다가 강아지 머리처럼 생긴 전라도 북쪽 부안 땅에 잠깐 머물렀다. 이유 중 하나는 간만에 녹비산을 타고 하늘을 날던 여신에게 그 전에 못 본 큰 호수가 보여서였다. 인간들 말로는 새만금이라고 했다.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합친 남과 금, 땅이 새로 생긴다는 뜻에서 비롯된 신조어라고 했다. 만금(萬金)에 새를 붙여 만든 말이다. 그 새만금이라는 것이 여신의 마실 땅에 만들어져 좀 더 살펴보아야 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문득 서쪽 바다에 생기는 붉은 노을이 보고 싶어서였다. 그 너머엔 함지(咸池)라는

바다 연못이 있는데 해는 동해의 해 뽕나무인 부상(扶桑)에서 떠올라 낮에는 온 하늘을 비추다 저녁이면 붉은 노을로 변하고 그 연못으로 들어가 하루 일정을 마치게 된다. 그러면 지상에는 밤이 온다. 부상 뽕나무로 만든 나막신은 저녁이면 서쪽을 보면서 부르르 떨었다.

여신이 신호(新湖. 神湖) 새만금을 살펴본 후 칠라 오라버니와 함께 축복해 준 후, 오랜만에 적벽강 절벽 위에 오롯하게 있는 수성당에 들렀다. 개양할미와 구랑 전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반가웠다. 거인 여신으로 바다를 열었다는 개양(開洋) 할미의 어부 다정한 이야기는 진즉 알고 있었고 할미의 여덟 딸이 시집가서 살고 있는 여덟 곳도 마실 여신은 안다. 마실 여신은 그녀들에게 찾아가서 모두에게 축복해 준 바 있다. 그것을 본 조선시대 이야기꾼 서포 김만중이 개양할미를 성진 도사(현세에서는 양소유), 여덟 딸을 여덟 선녀로 각색해『구운몽』이라는 소설을 썼다고 했다. 여자들에게 시앗은 죽기보다 싫은 법인데도 이 구운몽 팔선녀들은 서로 질투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준 것이 이 마실 여신 다정함에서 기인한 것이다.

아, 천상의 선녀였다가 지상의 여자로 환생해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 사는 삶이란 얼마나 고된 일인가! 마실도 천상 할미 마고할미의 딸이다. 외동딸. 수성당에 그려진 개양 할미의 인자한 얼굴을 보다가 마고할미가 불현듯이 그리워져서 마실은 한동안 눈물을 지었다. 그러자 수성당 앞에 핀 유채꽃밭에서 요정들이 날아와 여신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러자 눈물이 유채 향수가 되었다. 요정들은 그 향수를 소중하게 담아 유채꽃에 뿌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유채꽃밭에 오면 환희와 사랑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그들의 정성에 감동한 여신은 부안에서 며칠 더 묵기로 했다. 그러다가 고슴도치섬 위도에서 8천만 년 전 백악기 공룡알이 옹알대는 소리를 들었다. 아, 태고의

소리고 생명의 소리이고 미처 부화하지 못한 미생(未生) 소리다. 그 소리에 호기심이 일어 여신은 유채꽃 요정들에게 인사하고 격포항 닭이봉으로 옮겨 며칠을 더 머물렀다.

여신은 위도에 가려고 적당한 날을 골랐다. 여신은 이번에는 녹비산을 쓸 생각이 없다. 그러면 파도와 바다 생물들과 다정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여신이 위도에 가려 하자 격포와 위도 사이를 지키며 차처럼 달리는 파도 대장 '대차(大車)'가 해안가에서 놀다가 그 소문난 여신을 해안에서 보고는 문득 장난기가 일어 파도를 세차게 쳤다. 그래서 배가 뜨지 않았다. 마실 여신은 개양할미처럼 거인 여신이 아니라서 바다를 걸어 건널 수는 없었다. 녹비산은 쓸 생각이 없다. 사실 대차가 그렇게 한 이유는 부안에 거주하는 다른 정령들과 땅 신들 부탁 때문이었다. 여신을 조금이라도 더 자신들 땅에 머물게 하려는 수작들인데 녹비산을 가진 여신에게 무슨 짓인가! 하지만 여신 지체를 연출하려는 그 수작들은 한편으로는 갸륵했다. 그 갸륵함을 나열해 보자.

- 여신이 격포 닭이봉에 머물자 붉은 노을이 더 붉게 저녁을 물들였다.

- 채석강과 적벽강 남신 형제들이 썰물을 더 빨리 그리고 길게 밀어내 자신들의 수천만 년 전 층층 쌓은 위상을 자랑했다. 총알고둥들도 모여 와글와글 떼창을 불렀다.

- 서낭신들이 땅으로도 와달라고 나뭇잎과 새들의 이쁜 지저귐 소리로 초대했다.

- 파도 대장의 애인인 바다 요정 세아(Sea)가 자신과 미모를 재려는지

틈만 나면 해변으로 올라왔다.

- 백합과 바지락이 갑자기 갯벌로 몰려들어 노래하듯이 입을 벌렸다.

- 칠산어장에 살찐 조기들이 갑자기 몰려들었다.

동물에서 인간으로 변한 것들도 여신에게 자신들 죄를 사하여 다시 원래 동물로 환원해 달라고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그것들은 침을 뱉고 아무 데서나 오줌을 누었다. 이에 여신이 다시 녹색 대나무로 그들 엉덩이를 쳐서 돌려보냈다.

인간이 무서워 바다로 뛰어들었던 원령들이 찾아와 그들의 눈물 나는 서러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변산에 숨어 살아야만 했던 민중 산적들의 애한과 분노가 서러운 반딧불이 되어 나타났다.

- 부안 출신 조선의 명기 이매창이 부안읍 서외리 묘에서 거문고를 들고 찾아와 곱게 절하고 사랑의 시를 거문고로 타며 읊었다. 매창은 정인을 그리워하다 38세 나이로 죽었다. 평소 그녀를 흠모해 플라토닉 교류를 했던 조선 최대의 이야기꾼 허균은 다음 시로 이매창을 애도했다.

신묘한 글귀는 비단을 펼쳐 놓은 듯(妙句堪擒錦)
청아한 노래는 가는 바람 멈추어라(淸歌解駐雲)
복숭아를 딴 죄로 인간에 귀양 왔고(偸桃來下界)

선약을 훔쳤던가 이승을 떠나다니(竊藥去人群)
부용의 장막에 등불은 어둑하고(燈暗芙蓉帳)
비취색 치마에 향내는 남았구려(香殘翡翠裙)

매창은 여신에게 "그때 소녀가 품은 다른 남자 때문에 허균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미안했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이매창이 여신 앞에서 읊은 시 중 '규중원(閨中怨)'은 기생으로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한이 서리서리 맺혀 있었다. 오죽하면 원(怨)이 붙었으랴.

예쁜 정원 배꽃에 두견새 우는데,(瓊苑梨花杜宇啼)
뜰에 가득한 달그림자 더욱 처량하네.(滿庭蟾影更凄凄)
꿈속에서 만나려도 도리어 잠이 오질 않아(相思欲夢還無寐)
일어나 매화 핀 창가에 기대니 새벽닭이 우네.(起倚梅窓聽五鷄)

대숲엔 봄이 깊어 새벽빛이 더딘데,(竹阮春深曙色遲)
뜨락엔 인적 없이 꽃잎만 흩날리네.(小庭人寂落花飛)
좋은 쟁(箏)과 거문고로 강남곡을 마치고(瑤箏彈罷江南曲)
수많은 근심을 한 편의 시(詩)로 품었네.(萬斛愁懷一片詩)

여신은 나직하게 문창호를 울리는 시를 듣고 매창 등을 어루만져주었다.

"아, 애달프다. 매창이여, 사랑을 담은 시로 400년을 남았으니 그 이름 소중하고 아름답구나."

매창이 이에 절하며 거문고를 들고 물러갔다. 이화가 함초롬하고 밤하늘 달이 매우 밝은 밤이었다.

- 정사암에 머물며 허균이 생성한 도술 전사 홍길동이 여신 소문을 듣고 상상의 섬 율도국에서 찾아와 매화 가지를 칼로 만드는 도술을 보여주었다. 위도로 알려진 율도국도 한번 들러달라고 했는데 새벽 수탉 소리에 쫓겨 퐁 사라졌다.

오래 많은 곳을 여행한 여신은 변산이 예로부터 나쁘게 말하면 산적, 좋게 말하면 권세가를 피해 숨어든 불쌍한 농민들과 도꾼(道君, 도꾼)들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었다. 변산은 바다와 만으로 삼면이 둘러싸여 관군이 토벌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도꾼들은 여기서 머물다가 지리산 청학동으로 옮겨 갔었다.

- 심청을 품었던 임당수의 요정 임수정(壬水精)이 꿈에 여신을 찾아 인사했다. 그 요정은 물에 공양 된 심청에게 숨을 불어 넣어 준 후 해변으로 옮겨 준 다정 요정이었다. 임수정은 본인 역시 억울하게 바다에 공양 되어 죽은 귀신으로서 처음엔 억울한 마음에 어부들을 사이렌 요괴처럼 괴롭혔지만, 후에는 처녀들을 살려 착한 요정 선요(善妖)가 되었다. 마실 여신은 허리에 찬 띠 중 홍색을 만져 오라버니 칠라를 부른 후 임수정이 차가운 임당수를 떠나 따뜻한 추자도 바다로 가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실은 정령과 토지신, 나무와 꽃, 새들의 그 갸륵한 총체적 수작(!)에 감동해 부안에 머물기로 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여신에게 시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100년 단위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여덟 장군은

얌의 상자를 만든 칠라 장군만 빼고 모두 애석해했다. 이에 칠라 장군은 특별히 부안의 격을 올려 태평 부안국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얌의 상자에 넣어 부안 모처에 보관하기로 했다. 그 모처에서는 그 특별한 기운 때문에 해마다 축제가 열리게 되었다. 인간들 용어로 불리지만 사실 그 축제는 얌의 축제인 셈이다.

미리 설명하자면 태평 부안국은 현실에 있는 부안이 아니다. 특별한 눈과 다정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문이 열리는 부안 제2의 미현(未現)의 땅이다. 지현이가 청자박물관에서 채석강 남신을 보고 누에 타운에서 참뽕이를 만나 마두양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말이다.

3장 세요마

3장. 세 요마

아시아 동쪽 끝엔 인간과 땅을 괴롭혀온 세 요마 즉 한발 마녀, 폭싹, 씽씽이 있었다. 한발은 중국에서 건너온 가뭄 마녀다. 폭싹과 씽씽은 태평양에서 탄생해 수시로 이 땅을 덮치는 날씨 요마들이다. 지현의 국어 공부를 위해 설명하자면 '날씨'는 '날(日)'에 마음씨, 솜씨 같은 접미사 '씨'가 붙은 말이다. 이때 씨는 태도, 모양,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니 날씨는 날의 모양새를 뜻한다. 그걸 나쁘게 만드는 요마들이 바로 이 세 요마였다.

우선 먼치킨(munchkin) 같은 날씨 요마인 한발(旱魃. 가뭄)은 고대 중국의 요괴서인『산해경』에도 나오는데 원래 이름은 발(妭)이며, 원래는 미녀라는 뜻이다. 황제 헌원씨의 딸이다. 황제가 요괴이며 전사인 치우와 싸울 때, 치우 진영에는 막강한 비의 신 우사와 바람의 신 풍백이 있었다. 이에 몸에 열이 많은 발이 아버지를 위해 그들과 맞섰다. 발이 비와 바람을 막아내 황제는 승리했지만, 힘을 너무 써서 하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발의 힘은 그녀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위에 가뭄을 일으켰다. 날씨 전쟁에는 유용했지만, 농사에는 방해가 되는 힘이었다.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황제는 먼치킨 딸을 죽일 수가 없어 한발을 적수하 너머 북방 계곤산에 유폐했다. 그러나 한발은 때때로 탈출해 이 땅에 모진 가뭄을 일으켰다. 원래 발(妭)은 미녀라는 뜻이지만,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서 귀신 귀(鬼)로 바꾸어 발(魃)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배신감에 떨며 인간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여전히 처녀라 이중의 외로움을 안고 사는 요마다. 한발을 따르는 수하 짐승 하 또는 발(魃)이 있는데 키가 40-60cm에 정수리에 눈이 있고 바람처럼 달리는데 이것이 나타나면 큰 가뭄이 들지만, 강에 던져넣으면 죽는다.또 다른 수하인 신발(神魃)은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짐승인데 손과 발이 하나씩밖에 없고, 강산(剛山)에 살며, 이것이 있는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 가뭄 요마가 3백 년간 마실 여신에게 도발을 해왔는데 결국 마실 여신의 다정함에 감동한 땅의 정령과 바다의 대백(大伯), 서해의 기운을 받은 백합 각시, 바지락 동자, 유채 요정, 수성당 할미와 구랑 자매 도움을 받아 무릎 꿇렸다. 이에 3마가 결국 굴복하고 마실 여신을 모시기로 맹세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 맹세였다.

폭싹은 먼 적도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엘니뇨(동태평양 표층 수온 상승. 남자아이), 라니뇨(동태평양 표층 수온 하강. 여자아이) 두 현상 교차 때문에 만들어지는 아이 형상의 날씨 요마다. 엄청난 비나 가뭄을 불러 농민들과 어민을 괴롭힌다. 이 아이들의 변덕과 심술이 늘 문제다. 태풍을 일으키는 씽씽은 외눈박이 요마이고 별명이 타이푼(typhoon)으로 다른 땅에서는 사이클론, 허리케인 등으로 불린다. 과거 호주에서는 사이클론을 원주민 언어로 공포, 우울을 뜻하는 윌리윌리(willy-willy)로 불렸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씽씽은 공포와 우울증으로 히스테리를 부리는데 주로 7월에서 10월 초에 부린다. 자기 히스테리 덕분에 수많은 생명체가 고통을 받는다.

마실 여신은 수백 년 동안 이 요마들을 봐 왔다. 그들도 생명이고 자연 현상이어서 그대로 두고 봤지만, 그들 자신에게나 인간 존재들에게 서로 좋을 것이 없었다. 이 요마들이 극성이 되면 마실 문화가 깨졌다. 그래서 마실 여신은 과거에 그들을 만나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한 바가 있었다. 한발과 폭싹은 각각 가뭄과 폭우를 부르므로 서로 상극이다. 그런데 그 요마들을 인간

캐릭터로 표시하면 한발이는 외롭고 심술 사나운 노처녀고 폭싹은 바다 수온 때문에 열 받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이다.

그래서 태평 부안국에 정착한 다정 여신 마실은 30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불렀다. 그리고 그들을 오누이로 맺어줬다. 외로운 처녀인 한발은 처음에는 그런 관계를 비웃고 저항했는데 마실 여신이 허리에 찬 색동 띠의 녹색에서 따스한 빛이 나오자, 한발은 돌연 순해지면서 일순 성질을 죽였다. 대신 마실 여신은 인간들에게 얘기해서 그들 오누이를 모시는 **태평 신당**을 만들어 주고 오누이의 화합을 기리는 '♬한발폭싹' 찬가도 만들어 부르기로 했다. 이 조건을 제시하자 한발과 폭싹은 그제야 좋아라 했다. 라니냐는 이름 순서를 바꿔 '폭싹한발'로 해달라고 칭얼거렸지만 그러면 '폭싹한 발'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엘니뇨의 우려에 그냥 원래대로 '한발폭싹'으로 제목을 정하기로 했다. 한발폭싹의 노래는 다음과 같다.

♬오, 한발은 아름다운 아가씨.

오, 한발은 따뜻한 마음씨
오, 한발은 환상의 맵씨
아, 폭싹은 아이같이 순수해
눈물은 안 흘리지만
오, 심장은 따뜻한 피가 흐른다네

아, 사랑스러운 오누이

오, 오래 기억하리!
한발폭싹 오누이 신이여.
세상을 평화로 살리소서

그래서 삼 요마 한발, 엘니뇨, 라니냐는 앞으로 100년은 서로 오누이 관계를 맺고 상대방이 극성으로 나오면 서로 개입해서 그 극성을 완화하기로 했다. 마실 여신에게 이 제안을 들은 인간들은 곳곳에 태평 사당을 만들어 한발과 폭싹을 기리며 위로하는 제사를 지냈다. 이에 기분이 좋아진 한발은 그녀의 변형 마법을 이용해 소우(小雨. 적게 조금 내리는 비), 미우(微雨. 부드러운 비), 화우(花雨. 꽃비), 모히우(모히雨. 모히또처럼 향이 나는 비)를 만들어냈다. 가뭄에 폭싹을 잠깐만 불러 만든 레시피 비였다.

이 협상을 옆에서 지켜보던 씽씽은 여신이 자신을 찾지 않은 것이 괘씸하고 서운했다. 씽씽은 태곳적부터 공기와 함께 있던 자기가 여신보다 더 선배이고, 세상이 자기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연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정 연결을 표방하는 마실 여신이 더 괘씸했다. 그래서 태평양의 기운을 빌어 더 센 바람을 불어 세상을 괴롭혔다. 그러자 마실 여신이 북태평양 큰 바다 바람골에 있는 씽씽이를 찾아갔다. 씽씽은 차가운 바람골에 숨어 바람을 세차게 불며 마실 여신의 옷을 벗기려 했다. 마실 여신 옷에서 강력한 마법이 나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마법으로 자신을 선풍기 바람으로 축소 변형시킬지도 몰랐다. 그러나 마실 여신은 옷을 더 단단하게 부여잡고 녹비산을 휘저으며 씽씽에게로 조금씩 다가갔다. 씽씽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센 바람을 불었지만, 삼 일이 지나자 결국 바람이 약해져 마실 여신은

씽씽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지친 씽씽이 미풍으로 변하자 따뜻한 햇볕이 마실 여신을 비췄다. 마실 여신은 좀 덥다며 허리띠 위 옷깃을 약간 헤쳤다. 햇빛을 받아 순결하고 하얀 목이 드러났다. 그 하얀 목은 마실 여신이 가진 매력점 2탄 즉 매력 목이었다. 그 눈부시게 하얀 목을 보고는 씽씽이 그 매력에 빠져 좀 수그러들었다. 그런데 그게 다행이었다.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마실 여신이 허리띠의 흑색 마법으로 씽씽을 동굴의 박쥐로 변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실 여신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씽씽 이름을 멋지게 개명해 품격을 높여주겠다고 제안했다. 씽씽은 사실 자신의 애 같은 이름이 격에 안 맞아 불만이었다.

"여신, 뭐라고 지어줄 건데?"

"지고한 이름인 풍백(風伯)으로 지어주겠어요. 어때요?"

"풍백? 풍백, 풍신(風神), 풍선(風仙), 풍요(風妖)…이 중에서는 풍백이 좀 그럴 싸 한데, 백이면 백작이란 뜻이겠지?"

"그럼요. 영어로는 에알(earl). 제사 지낼 때는 늘 에알 그레이(Earl Grey)를 올리지요."

"다른 것들이 제안했으면 한 방에 불어 날렸겠지만 그래도 마고할미 딸인 다정 여신이 제안하는 거니 나도 그럼 100년은 성질을 좀 죽이도록 하지."

"고마워요.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이 좋아할 거예요. 그래도 풍백께서 바람을 불지 않으면 식물은 씨를 맺지 못하고 새는 날아가기가 힘들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날리지 못하니 그 고마운 덕을 어찌 잊겠어요."

씽씽은 마실 여신이 풍백이라고 추켜세우니 기분이 좋아져서 풍선처럼 부풀렸던 입으로 공기를 흐읍- 들이마셔 볼을 홀쭉이로 만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4장 지현과 키티 1

4장. 지현과 키티1

"킥킥킥. 유치하면서도 재미...."

지현은 마지막 글에서 키득거렸다. '이 옛날 책이 뭐 있겠어?' 하면서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그래서 책 내용을 카메라로 찍어 키티에게 읽어보라고 보여줬다.

키티가 한참 후에 답글을 올렸다.

"포카. 나는 셰익스피어의 아름답고 통찰력 있는 글과 세르반테스의 웃기는 반전 글과 헉슬리, 조너선 스위프트의 시대 풍자, 안데르센의 동화 상상력 그리고 루이스 캐럴의 재치와 루엘 톨킨의 방대한 세계관을 담은 글 그리고 음, 아라비안 나이트의..."

"키티야, 너 또 사천포로 새는구나. 할루시네이션 그딴 거 그만하고 전설적 작가들 그만 주워 섬기고 이 책의 평을 해보라니까?"

키티가 바로 답글을 올렸다.

"포카, 말이야 바른말이지만 사천포가 아니고 삼천포거든. 그리고 이

책은 음, 유치하면서도 순수하고 재미있으면서도 교훈이 있고 고대 이야기를 담으면서도 진부하거나 교조적이지 않고 현대적 인물과 단어를 적절히…"

"얘, 또 잘난 척, 지루 만연체 병 도졌네. 단도직입적으로 너 이 책만큼 쓸 수 있어, 없어?"

키티가 화면에 영화 〈킬 빌〉에서 긴 칼을 들고 땀을 흘리는 배우, 우마 서먼 이미지를 올렸다. 그러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 책은 장르가 달라. 논리적이지 않아. 난 그런 글 못써. 끝."

지현이 키티 창을 콕 눌렀다.

"그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 좀 쉬면서 생각 좀 업그레이드 해봐. 큭큭큭.

다음 이야기는 또 뭐가 나올까?"

키티가 글을 올렸다.

"다음엔 당연히 세 몬들 이야기지. 마실 여신 주위에 있던 녹.홍.청 걔들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지현 내가 너를 위해서 씽씽 아니 풍백 관련한 전설을 하나 알아냈어. 궁금해?"

"아니. 안 궁금해. 아니다. 궁금해. 요즘 같은 미세먼지 극성 시대에 바람은 중요하지."

그러자 키티가 앱 창에 영등 할미 이야기를 쭉 올렸다.

- 영등(靈登)할매는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서 섬기는 계절 풍신(風神)으로 영동할머니 이월할매, 영등할매 등으로도 불린다. 음력 2월 초하룻날 지상에 내려와 가정에 머물다가 15일이나 20일에 다시 올라간다. 주부는 가내의 화평과 농사의 풍년을 위해 제물을 마련하여 영등할매를 위한다. 가정 내 제사는 먼저 황토를 구하여 문전에 깔고 정화수를 올려놓을 신체(神體)를 만들어 부엌 선반에 올려놓는다. 2월 1일, 9일, 13일에 영등할매를 위한 밥을 올리고 2월 13일까지 9번 정화수를 갈아준다. 2월 13일 영등할매가 하늘로 올라가면 신체를 불사르고 정화수 그릇은 엎어 둔다. 이날은 농사가 시작되는 날로 농사 밥을 짓고, 거름을 논밭에 내 풍년을 기원한다. 이날은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날로 머슴과 일꾼들에게 술과 떡을 빚어서 대접하여 머슴날이라고도 한다.

이 밖에도 음력 2월이 되면 부녀자들은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마산의 은생이 샘, 수통골 샘, 갈밭 샘, 광대 바위샘, 자산동 샘 등에서 정화수를 뜨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 않은 황토를 치마폭에 싸서 집으로 돌아와, 붉은 베 조각이 놓은 부엌 선반 위에 정화수와 황토를 올려놓고 술과 음식을 베풀어 그해 풍년을 빌었다.

"지현,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 이건 혹시 여자들의 질투 혹은 매력 본능일까?"

"뭔데?"

- 영등할매가 내려오는 시기는 절기상 경칩과 춘분 사이로, 이때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오면 기후가 불순하고 일대 풍파가 일어난다. 할매가 심술을 부려 며느리 치마를 비바람으로 펄럭여 욕보이려는 건데 그러면 농사는 풍년이 든다. 그러나 두 딸을 데리고 내려오면 딸의 분홍치마가 바람에 나부껴 보기에 좋게 하려고 날씨를 온화하게 하는데 그럼 농사는 흉년이 든다.

이 대목에서 지현이 킥킥 웃었다.

"풍신 할매도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신의 뜻과 인간의 일이 이렇게 다르게 이어지다니 말이야. 그런 점에서 인간에게 다정한 개양할미가 훨씬 더 낫네."

키티가 대답했다.

"그런데 말이야 지현, 신들은 서로 비교하면 그 인간을 찾아와 반드시 해코지한대. 여기 쓰여 있어."

"뭐, 어디?"

"벌써 네 뒤에 영등할미가 나타났잖아. 헉, 나는 숨을게."

지현이 돌아보니 어느 틈에 방에 들어선 엄마가 할미 탈을 쓰고 손풍기를 튼 채로 지현이를 보고 있었다.

"지현, 이번 가을에 붉은 노을 축제 보러 간다고 약속하면 이 할미가 그냥 갈 거고, 아니면 너한테 숙제시키고 honey chesnut(꿀밤) 줄 테다. 어떡하려느냐?"

5장 여신이 소환한 세 몬

5장. 여신이 소환한 세 몬

부안에서 쉬면서 세 요마를 길들이고 평안을 찾은 마실 여신은 이젠 태평 부안국 축제를 생각했다. 세 요마에게 제사를 지낼 겸 태평 문화도 만들 겸 해서다. 편안함의 꽃은 부드러운 축제니까!

그래서 마실 여신은 태평 부안국 13화국을 한 달 동안 꼼꼼하게 다녔다. 여신의 나막신 소리를 듣고는 여행객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수많은 존재가 먼저 나타나 여신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마실 여신과 함께하는 축제라면 너무 기대가 크다며 자기를 주인공으로 삼아달라고 청을 해왔다. 청은 했으되 당연히 자기는 될 거라는 오만함도 묻어 있었다. 여신은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미루어 새 것을 앎)' 사자성어를 써서 그들을 일단 물러가게 했다. 여신에게는 새 얼굴들이 필요했다. 축제는 칠라 오라버니가 창안한 얌의 정신 즉 신명, 흥과 함께 호기심을 부르는 새로움이 있어야 하므로.

마실 여신이 녹비산을 타고 부안 하늘로 떠올랐다. 여신은 1읍 12면, 산을 보고 마을을 보고 들을 보고 바다를 9일간 내려보다가 부안의 소리인 부앙- 부앙- 소리가 나게 우산을 돌리며 초령청래(招靈請來) 마법을 썼다. '잠자는 영을 불러(招靈)', '자신에게 오도록 청하는(請來)' 마법이다. 이 마법을 쓰면 이 땅에서는 마고할미 외에는 다 와야 한다. 여신은 먼저,

"태평 부안아, 이제 때가 되었으니 부안 프렌즈 몬 셋을 불렀으면 좋겠어. 단, 포켓몬처럼 갇힌 몬은 안 돼. 자유롭고 이야기풀(storyful) 해야 해. 얌."라고 말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허리띠 다섯 색에 손을 두른 채 사방을 보면서

"마칠, 칠라 오라버니, 내 초령청래를 도와줘. 얌."

그러자 갑자기 사방에서 바람이 세게 일었다. 나무와 꽃들이 춤을 추고 멀리 바다에 파도의 윤슬이 일순 일렁였다. 그리고 마실 여신의 이 두 주문만으로 태평 부안국에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줄 세 몬이 차례로 나타났다. 나타난 순서는 몬들이 가진 이빨 개수로 알 수 있다. 적을수록 나이가 어린 몬이다. 자, 이제 그 초령청래 과정을 조금 더 슬로모션으로 적는다.

여신은 먼저 태평 부안국 넓은 들이 보이는 하늘로 올라갔다. 들을 내려다보다가 이윽고 하늘에서 내려와 들의 중앙에 선 여신이 조용하게 말했다. 여신의 초령청래 마법 마지막 신구(神句)는 몬이다. 칠라 장군이 만든 신구 '얌'처럼 '몬'이라는 한자도 없다. 몬은 "그게 몬 소리야?" 혹은 "도대체 몬 일이야?" 물을 때처럼 뭔가 미지를 드러내고, "몬 말리겠네." 할 때처럼 개구지고 신비한 능력을 표할 때 쓰는 이 땅의 말이다. 몬은 그래서 초령청래의 신구면서 미지, 개구짐, 신비한 능력을 지닌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니 영어 몬스터(monster. 괴물, 거대한)와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산과 들, 네가 맏이다. 나오너라. 몬."

그러자 들과 바다에서 올라오고 산에서 내려오는 산들바람을 일으키며

즐겁게 봄 콧노래를 부르는 산들 몬이 서쪽에서 나타났다. 녹색의 상체에 몸부터 머리에 큰 귀까지 모습이 한글로 'ㅂ'자 처럼 생겼다. 부안의 첫 글자인 ㅂ을 몸체로 만든 것이다. 날 때부터 한글을 아는 저 기적의 센스! 입은 크게 벌렸으되 지나치지 않고 즐거운 모양이며 이는 작게 세 개가 보이고 눈은 산과 들을 고루 보기 위해 서로 떨어졌고 눈 사이에는 마치 냇물처럼 가르는 코가 있었다. 다리는 즐거운 색동 색 중에서 홍, 청, 암색. 제1 몬은 여신에게

"여신님, 저는 칠천만 년 전부터 이 바다와 땅에서 불기 시작한 바람입니다. 바람은 많은 신비와 다정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라고 센스있게 고했다. 이어 "과거엔 화산 기운을 닮아 거칠었지만, 이젠 산들거리는 바람으로 변해 마을을 지켜줄 겁니다."라고 2차로 고했다. 마실 여신은 순간 씽씽 풍백이 떠올랐다. 어쩌면 산들은 풍백이 낳은 자식일지도 몰랐지만 내색하지는 않았다. 마실 큰 여신은 요정의 그 '산들'이라는 이름이 '산들한 상태' 그리고 '산'과 '들'을 나타내므로 마실 성격에 맞다고 생각했다. 부드러운 안내, 부드러운 다정 연결은 산들 바람처럼 되어야 했다. 여신은 산과 들에서 온 그 요정이 자신과 닮아 '산들마실몬'이라고 이름을 주었다. 애칭은 '산마(傘麻)'. 이름에 '마'가 있으니 마고할미의 적통인 셈이고 게다가 마실 여신의 우산이 있으니 마실의 첫째 몬임이 드러나는 애칭이다.

산들마실몬은 태평 부안국 1읍 12면을 4미 4지형으로 나눠 차례로 마실 다니며 이내 태평 부안국과 친해졌다. 4미 지역은 음식이 유명한 '味國',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美國' 그리고 곡식이 잘 자라는 '米國',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향하는 '未國'을 말한다. 그리고 지형이 산이냐, 들이냐, 해변이냐, 섬이냐에 따라서 다음 이름이 붙여졌다. 예를 들면, 위도면은 맛있는 음식이 많고 섬이니 위.미.도.국(蝟味島國), 격포면은 해변에 수성당이 있고 경치가

아름다워 격.미.변.국(格美邊國), 평야의 중심에 있고 곡식이 풍부한 부안읍은 부.미.평.국(扶米平國)으로 부르는 식이다. 산마를 부른 여신은 구 일을 쉬었다.

몬 초령의 열흘째, 여신은 다시 녹비산을 펴고 하늘로 올라갔다. 변산을 지나 파도 대장 대차가 쉬느라 잠잠해진 바다로 올라가 하늘에서 여신이 푸른 바다를 생각하며,

"둘째야, 변산 바다의 매력을 품고 이젠 나오너라. 몬"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격포와 위도 사이 임수도 근처에서 거품이 일더니 푸른 바다 동자가 바다 표면으로 솟구쳐 나타났다, 동자는 바다 위를 걸어 해변으로 나왔다. 여신이 내려와 찬찬히 자신 피조물을 보니 둘째 몬은 바닷 물기가 흐르는 푸른색 몸에 입이 아주 크고 이빨은 양쪽에 바다표범 이빨처럼 내렸고 눈은 바다에 뜬 배들과 물고기 생명체들을 집중해 지켜보느라고 등대 불빛처럼 가운데로 모인 얼굴이었다. 동자는 푸른 몸통 아래 허리와 다리는 땅과 해변 모래색으로 했다. 여신은 푸른 바다 동자를 살펴보다가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귀엽고 야무지구나."

여신은 그를 '푸른바다몬'이라고 불렀다. 애칭은 푸바. 여신은 바닷소리와 파도의 환호는 푸른 기운을 부르니 기분이 좋으면 갈매기 소리와 파도치는 소리로 "푸바, 푸바" 소리를 내라고 추가로 주문했다. 여신 말을 듣자 푸바가 입에서 바다 물줄기를 뿜으며 바로 "푸바, 푸바" 했다. 그 소리를 "푸--

-바---, 푸--- 바---" 길게 하면 추억의 고둥 소리처럼 들렸다.

여신이 듣기에 그 소리가 바다처럼 푸르고 맑았다. 두 몬을 부른 여신은 또 구 일을 쉬었다.

몬 초령 스무날째, 여신은 마지막으로 채석과 적벽 형제 남신이 있는 격포항과 변산 해변으로 날아갔다. 거기서 하늘과 바다를 평화롭게 물들이는 붉은 노을을 보았다. 여신이 분홍색 바람 모자를 벗고 긴 머리카락을 풀어 흩날리며 해변을 산책하고 칠라 오라버니가 만든 '세계의 빛깔' 노래로써 노을을 찬미하고 8천만 년 전 이 땅의 몬을 생각하자 위도에서 또, 뽀앙 소리가 나더니 이어 붉은 노을 색 아이가 하늘을 아장아장 걸어 나타났다.

큰 얼굴색과 앙증맞은 팔다리는 핑크에 가까운 붉은 색이고 세 몬 중에서 가장 작은 입을 했는데 이가 귀엽게도 하나였다. 눈은 초롱초롱하게 가운데 둘이 있고 머리 정수리엔 공룡 뿔 같은 것이 분홍색으로 솟아서 귀여운 인상이다. 몸 색은 짙은 땅 색인 검은색. 아이는 고대 공룡어를 썼다. '아요', '쑹', '뿌아', '꼬', '떼떼', '뚜비'처럼 단어도 몇십 개 되지 않았다. 공룡어는 몇십 개 단어지만 악센트와 눈빛을 섞어 매우 많은 개념을 전달한다. 여신은 심해어(心解語. 마음으로 언어를 해석하는 마법) 능력으로 공룡어를 알아들었다. 새끼 공룡을 닮은 아이는,

"뽀-오, 뿌아, 뚜비, 뽀, 멈추, 쌩까, 떼떼, 크라라, 하몽, 꾸르꾸르.
(저는 아주 오래전 백악기 공룡알이었다가 탄생을 멈추었는데, 마실 여신의 생각에 따라 이제 부화했어요.)"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아직 세상에 적응이 안 되는 아이는 입에서 붉은 기운을 저절로 뿜어냈는데 그 바람에

근처에 버려져 있던 나무에 불이 붙었다. 잠시 히히거리며 지켜보던 아이는 여신이 손짓을 하자 바로 "뿌아, 꺼" 하더니 달려가 "떼떼" 하면서 입으로 바람을 불어 불을 껐다. 아이는 앙증맞게 다가와 여신 손을 잡으면서 자기는 백악기의 활력을 담은 붉은 열정으로 어린이의 노래, 재즈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풀 수호 몬이 되고 싶다고 했다. 희한하게 단어가 몇 안 되는 공룡어였지만 눈빛과 손짓으로 의사가 통했다. 여신은 그러라고 했다.

여신이 생각으로 만들고 말로 부른 세 몬들은 능력들이 제각각 다른 몬들이었다.

몬들은 공통으로 변신 능력이 뛰어났다. 변신한 그를 **몬신**(몬身)이라고 부른다. 귀여운 축제 캐릭터부터 축제장을 돌아다니는 아줌마, 아이, 어른으로 몬신이 되었고 13화국으로 가면 거기 장승, 이정표, 나무와 꽃으로도 가끔 변했다. 몬신은 다만 그 몬의 몸 색은 신체 어딘가에 유지한다. 이런 공통 능력 외에, 각각 다른 능력이 있다.

산마는 흥과 다정함을 돋우는 **발흥다정**(發興多情) 능력이 주무기다. 이 다정 능력은 마고할미부터 마실 큰 여신으로 이어지는 제마축악(制魔逐惡) 능력으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햇볕 전략으로 사마를 누르고 악을 쫓는다. 사나운 늑대나 멧돼지조차도 이 초흥다정 능력에 걸려들면 바로 꼬리치며 사랑스러운 개 그리고 집에서 꿀꿀거리며 재롱을 떠는 돼지로 변한다.

푸바는 바다의 파도를 눌러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돕고 물고기를 때가 되면 부안 앞바다로 몰고 오는 **제파초어**(制波招魚) 능력이 돋보였다.

가장 막내고 아기 공룡알에서 온 붉을은 어린이 노래 목소리를 높고 맑게 하며 연인들에게는 사랑이 깊어지게 하는 **미성심애**(美聲深愛) 능력이 있다. 그리고 입에서 불을 뿜어 노을을 더 붉게 만드는 능력도.

6장 지현에게 전하는 13화국(話國) 이야기

6장. 지현에게 전하는 13 화국(話國) 이야기

인천여중 2학년 지현이는 한자가 약할 텐데 화국은 '**이야기 나라**'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Story Land. 세상에 없는 말인데 세 몬이 새로 지은 개념이다. 세 몬은 이 13 나라를 이야기로 풀고 싶어 했는데 마실 여신이 산마 몬에게 힌트를 줬다. 그것은 조선시대에 전하는 가전체 작품인 〈규중칠우쟁론기〉였다. 규중에 있는 부인의 친구인 자(척부인), 가위(교두각시), 바늘(세요 각시), 실(청홍 각시), 골무(감토 할미), 인두(인화 부인), 다리미(울 낭자)가 규중 부인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며 필요한지를 역설하는 중세 배틀 방식 작품이다. 마실 여신은 이 방식이 흥미롭다고 했다. 이에 산마 몬과 푸바, 붉을 세 몬은 부안 13화국에 비둘기 통신을 보내 한 날 한 시에 모여 자신들 나라를 멋지고 개성 있고 재미있게 풀어보라 하였다.

최종 승자는 마실 여신과 칠라 장군에게 고하여 보상을 두둑이 줄 거라고 하였다. 모두에게 주는 공통 상은 마실 여신이 각각 사흘씩 그 화국에 마실을 가서 머무는 것이었다. 이에 각 화국들이 환호했다. 준비 시간은 보름. ppt나 홀로그램은 쓸 수 없고 순전히 대표의 연출로 발표해야 한다는 지침을 줬다. 심사 기준은 이야깃거리, 마실성(외지인이 마실 가기 좋은), 발전성, 진정성, 화국을 대표하는 독창적 의상 연출 다섯 가지고 발표 시간은 각 5분. 배석은 구낭 중 1랑, 마두양, 청자 청룡, 채석강/적벽강 남신, 이매창과 심청

정령, 그리고 자연 요정으로 붉은 노을, 서해 파도 대장 대차.

그날이 왔다. 장소는 부안군의 정중앙인 상서면 중앙의 공중 13장(丈) 높이에 마칠 장군을 오마주해 7각형 모양으로 만든 **13 하늘 화정**(話亭)이었다. 7각형 후박나무 기판 위에 13개의 나무 기둥을 세웠고 중앙엔 주렴을 친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 가운데 발표자들 좌석 테이블 주변엔 아홉 배석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정자 위는 개방되어 있어서 칠라 장군도 하늘에서 지켜볼 수 있게 설계했다. 각 대표는 세 몬이 네 방향에 설치한 왕골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그들이 입장하는 시간에는 푸바가 편곡한 얌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오후 3시, 13화국 대표들이 그렇게 모였다. 부안 13화국의 신령과 도사, 수많은 도깨비와 요정과 정령 그리고 동물들도 이 13 하늘 화정 주변에 몰려들었다. 고인돌과 거북바위도 땅을 쿵쿵거리며 느리게 걸어 왔다. 하늘을 덮은 까치와 산새, 갈매기들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태양을 가려 붉을이 그들을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기준 백 걸음 근방으로 물러나게 했다. 변산 앞바다 물고기들도 이 전대미문의 배틀을 지켜보려고 바닷속에서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르는 통에 어부들이 뜻밖의 횡재를 했지만 그렇게 잡은 고기는 마실 정신을 살려 그냥 바다에 풀어주었다. 음료는 쌍성봉 깊은 곳에 사는 새벽이슬 요정 '새롬'과 샘 도깨비 '옹달비' 그리고 나무 수액을 지키는 할머니 액정(液精) '액막파'가 준비했다.

이렇게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준비를 마치자, 징이 세 번 울리고 녹비산을 타고 나타난 마실 여신이 원탁 테이블 뒤에 마련된 주렴 뒤에 앉았다. 각국 대표들은 도착한 순서대로 편한 자리를 골라 앉았다. 아홉 배석자는 신과 같은 출현 장면을 연출하며 공중에서 정자로 날아들어 자리했다. 세 몬은 그들

중간중간에 앉았다. 사회는 산마가 맡았다.

지현을 위해 설명하자면 부안 13 화국은 먼저 군청이 있는 부안읍 그리고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품은 계화면, 동진면, 백산면, 상서면, 주산면, 변산면, 보안면, 진서면, 줄포면, 위도면, 하서면, 행안면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부안은 산과 들, 해안과 섬 등 자연조건과 선사시대부터 유적지 등 역사 명소가 정말 많고 소문도 많이 나서 대부분 외지인은 알려진 그곳들만 콕 집어 다니지만 -"그러면 안 돼. 그건 편식이라고. 편식은 몸에 나빠. 만일 지현이를 평가하는 데 지현이 얼굴(얼굴에서도 눈, 코, 귀, 입), 몸통, 피부, 팔과 다리, 지능, 취미, 관계 등 지현의 모든 것 중 하나만 가지고 지현을 말하라고 하면 그게 과연 지현일까?"- 그렇게 편식하고 편집하면 진정한 태평 부안국의 속 이야기를 모르게 된다. 태평 부안국은 그 13화국의 조화로 이루어진 곳이니 어느 하나만 다녀오고서 부안을 안다고 하면 오산이다.

"콰앙- "

산마가 드디어 13화국 쟁론(배틀) 시작을 알리는 징을 쳤다. 그리고 산들 스피커로 사방에 들리는 큰소리로 운을 뗐다. 그 소리가 참으로 청량했다.

"13화국을 대표해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를 만드신 마실 여신님과 하늘에서 이를 지켜보기 위해 특별히 왕림하신 칠라 장군님, 그리고 배석하신 신령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늘화정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오늘 도착한 순서대로 하고 발표는 까마귀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평균 시간인 5분으로 하겠습니다. 계화면부터 하시지요."

하늘과 땅에서 박수 소리와 응원소리가 퍼졌다. 그러자 부안읍 대표 벅수 할배가 돌 허리를 세우고 일어나 동생들 면(面)을 세워줄 겸 제일 늦게 하겠다고 자청해서 산마몬은 그리하라고 했다. 면을 세워준다는 말이 일단 가상해서다.

제일 먼저 **계화면 대표**가 입을 열었다. 셰프 복장에 머리엔 유채꽃을 꽂은 요정으로 한 손에 방조제처럼 긴 모양에 핑크색 계화 떡, 다른 한 손에 청자 사발에 백합죽을 들고 일어선 대표는 자신을 '계화 미정(味精)'이라고 소개했다. 미정은 맛의 요정이란 뜻이다.

"존경하는 세 몬과 마실 여신에게 아룁니다. 우리 계味平국, 계화는 겁나게 맛있는 것이 많아요. 에 일단 우리 계화는 그러니까 1963년부터 5년에 걸쳐 12.8㎞ 1, 2호 방조제를 완공해서 전국 최초로 3,968ha의 대단위 간척지가 조성된 면이지요. 새만금은 덩치는 크고 아나콘다처럼 길지만 사실 우리를 흉내 낸 거고요. 에, 그 결과 우리 면은 특미인 계화미를 연간 17,000톤을 생산하며, 면 가장자리가 해변이라 '조개의 여왕'으로서 순결, 정절, 백년해로를 상징하는 백합을 연간 2,609톤 캐내서 만든 백합죽-에 미국의 대표적인 스튜인 클램차우더도 이 백합(clam)이 재료지요- 이 유명하며 그 역사적 간척지에 전라북도 경관 단지 전체 면적의 26%를 차지하는 유채 경관 단지를 조성했지요. 유채꽃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해 관광 상품화하고, 유채를 녹비 작물로 활용해 에-, 뭐더라 아-, 질소질 비료 시비량을 줄임으로써 생산비를 줄이고 땅의 재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땅 사랑 정신을 구현했지요. 이로써 맛으로는 쌀의 단백질 함량을 낮춰 계화미의 옛 명성을 되찾는 기획을 한 건데요 이걸 혼자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안의 부가 도울 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계화에서는 계화농협, 경관단지협의회,

볏짚축제위원회가 공동으로 '계화 유채쌀축제 그리고 볏짚 이야기'라는 농경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지요. 거기다가 신석기시대 유물과 이후 시대 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그 토기들은 현재 전주국립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답니다. 소개하자면 끝도 없지만 에..."

까마귀가 날아갈 시간인 5분이 되어 산마가 콰-앙- 징을 울렸다. 그녀가 자리에 앉으면서 참석자에게 떡과 죽을 돌렸다. 땅에서도 계화 주민들이 떡과 죽을 돌렸다.

두 번째는 동진면 대표. '동진 노감 장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대표는 갑옷과 투구 차림을 했고 몸 여기저기에 작은 감자를 달고 나왔다.

"우리 동味平국, 동진은 흠- 조선조 중기 전까지는 봉황, 동전, 안성, 양산, 하장 평야 모두가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로 갈대숲이 우거져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럼, 당연히 외적의 침입이 많겠지요? 그래서 지금의 안성리, 문포에 왕성터라 해서 전진 군사기지가 있었고, 그 배후에 반곡리산성과 당후리산성, 구지산 토성을 쌓아 방어해 우리 태평 부안을 지켰습니다. 그걸 꼭 공치사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역사 때문에 지금은 새만금 시대의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부안의 관문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새만금 시대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또한 광활한 농지를 이용한 비닐하우스 재배단지를 형성해 동진강의 겨울 해풍과 풍부한 영양분으로 자란 **'동진 노을 감자'**가 아주 유명하지요. 우리 이 책의 주인공인 지현도 부안마실축제 때 그 노을 감자를 맛보고 나서 그 후 피자, 두쫀쿠, 소금빵을 다 끊었다고 합디다. 허허허. 관문 지킴이의 기백과 노을 감자만 있느냐?

아닙니다. 수많은 외지인이 찾아오고 또한 우리 군민들에게 봄의 낭만을 제공하는 벚꽃 나무와 철쭉꽃의 고마제 저수지도 어주 명물이지요. 동진은 게다가…"

까마귀가 날고 징 소리가 울리자 노감 장군이 자리에 앉았다. 그 유명한 노을 감자가 테이블에 돌았고 정자 아래서도 찐 노을 감자가 돌려졌다.

세 번째는 백산면 대표. 이 대표는 밀짚모자 쓴 농부와 식품 영양학자 콘셉트로 온몸에 귀리와 갈색 벼를 활용한 의상으로 일어났다. 평온하고 덕이 있는 표정으로 왼손에는 오트밀 접시와 오른손에는 당뇨 No, 다이어트 Yes-고기능 갈색 벼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우리 백米平국, 백산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진강과 고부천이 흐르고 있는 평야지로서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아-. 여러분, 영화 〈쉬리〉하고 오트(Oats)밀은 알아도 귀리는 잘 모르던데요-, 귀리는 세계 10대 수퍼푸드로 귀리는 현미보다 단백질과 미네랄이 2배 이상 많지만, 당질은 훨씬 적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근년 들어 국내에서 오트밀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아-. 우리 백산은 그 귀리를 특화작목으로 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한 요즘 당뇨병 환자 많지요? 그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고기능성 갈색 벼를 시험 재배하고 있어 고기능성 쌀 생산단지 메카를 꿈꾸고 있답니다-아-. 이건 정말 착한 마음 은근한 노력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백산 사람들은 군내에서 비교적 풍요로운 평야지로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알려졌지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백산 사람들은 참 순박한데 교육열이 아주 강하다고요. 자 이쯤이면 알겠지요-? 우리 백산이 소리 내지 않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손 같은 곳이란

걸요. AI가 아무리 뜬다 그래도 먹는 걸 만드는 농업에 비하겠나요- 그래서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어허, 큰바람 불어와 뚱스 뚱스!

귀리, 벼, 귀리, 벼.

미래, 마음, 손길!

백산이 순산이요-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공중을 돌던 뚱뚱한 새들이 백산 대표 몸에 붙인 갈색 벼와 귀리의 효능을 새삼 알게 되자 날아와 쪼아 먹으려다가 푸바가 손으로 푸른 바람을 일으키자 놀라서 날아갔다.

다음은 **변산면**. 대표는 산 모양의 모자를 쓰고 손가락마다 다양한 자원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고 바다와 석양이 디자인된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대표는 무슨 까닭인지 칠라 장군이 있는 정자 위 하늘을 바라보며 발표했다.

"우리 변美山국, 변산면은 자랑할 게 워낙 많은데 다른 면이 기죽을까 봐 짧게 하겠습니다. 하하하. 부안하면 변산, 변산하면 부안 다 알지요? 우리는 일찍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국립공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휴, 이거 발표할 게 워낙 많아서 하하하. (이때 대표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외변산 관광지로는 부안댐, 변산온천, 새만금방조제와 변산해수욕장, 고사포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 모항해수욕장, 채석강 등이 있고, 내변산

관광지로는 직소폭포, 벼락폭포, 봉래구곡, 월명암, 낙조대, 가마소 등이 있으며, (열 손가락으로 다 꼽지 못하자 이번엔 입에서 오색 거품을 뽕뽕 뿜어 날리기 시작했다) 산중의 왕인 천왕봉, 왕을 호위하는 구인봉, 왕과 구신을 먹이는 노적봉, 깃대봉, 병풍바위, 거북바위 등이 있지요. 해마다 미스변산선발대회, 님의뽕축제, 유유참뽕축제, 호랑가시나무축제, 해넘이축제 등이 개최되는 우리 변산이 부안군의 관광 중심지인 것도 다 이시죠? 노래도 있잖습니까, '변산에 살리라' 하하하. 풍요를 주신 칠라 장군께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늘 고민입니다. 하하하. 해변이 아름다워 기업들 수련원, 연수원, 대형숙박시설이 당연히 많고 (대표 입에서 점점 거품이 크게 나왔다) 격포다기능어항, 변산누에타운, 새만금 간척 개발사업, 세계 잼버리 야영지 등으로 서해안 시대 해양 문화와 관광, 휴양의 중심지로 발전 중이지요. 하하하. 끝."

그 어느 곳보다 우월한 자산을 가진 변산 대표 발표가 끝나자, 참석자들 입에 묘한 미소가 걸렸다, 변산 대표는 칠라 장군 은혜를 말하면서 마실 여신을 뺀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마실성과 진정성에서 감점. 그러나 변산 대표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는데 아하, 이번엔 땅과 하늘에서 보고 있던 생명들에게 누에 번데기를 선물하는 것을 깜빡 잊고 말았다. 이것은 다음 차례인 보안면 대표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을 주었는데 보안면도 자랑할 게 많은 곳이다.

보안면 대표는 술병 모양 고려청자에서 도공 복장을 소년 유천이 지니처럼 나오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소년이 좌중을 보면서 깊게 인사를 하고는 차분하고 겸손한 어조로 발표했다.

"우리 보美海국, 보안면은 자연이 수려하고 어염시초(魚鹽柴草. 물고기+소금+땔감+나물)가 구비되어 보안(保安)이라 칭합니다. 현재 영예로운 이름인 부안도 부령현과 보안현을 합칠 때 생긴 이름이고 그 유명한 생거부안(生居扶安. 살아서는 부안에서 살겠다), 태평 부안이란 말도 이곳이 근원지일 것입니다. 어염시초는 마실의 필요조건입니다. 곡간에서 인심이 나니까요. 우리 보안은 예전부터 마실 문화가 있어서 많은 명사가 찾아와 숱한 전설을 남겼습니다. 멀리는 우동리 지석묘군과 남포리, 신복리 지석묘가 있어 고대 마실의 흔적을 볼 수 있고, 영전리와 유천리 토성은 군량미를 저장하는 사창을 지키기 위해 축조한 곳으로 지금도 그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유천 도요지는 고려청자를 굽던 역사적 명소이지요. 굴바위는 김시습이 은거한 곳으로 굴 가운데 옥정(玉井)이 있으며 굴이 깊고 길어 불을 지피면 해창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설도 있습니다. 실학의 선구자 반계 류형원이 우동리 우반동에서 기거하면서 『반계수록』을 집필했던 고장이기도 합니다. 앞에 변산이 칠라 장군이 준 은혜만 먹고 살았다면 우리 보안은 그에 더해 여신의 마실 정신을 상감해 사람과 문화를 만든 화국이니 이 점 특별히 감안해 주시기를.

여러분 상감 기법 아시죠?

마실로 부안을 상감하는 보안면, 기억하고 사랑해 주시길."

징이 울리자 유천 소년이 고려청자로 들어갔다. 참가한 이들은 유천 소년이 말한 마실 정신이 과연 마실 여신이 강조하는 '다정'과 '연결' 가치에 닿아 있는 건지 알기는 어려웠지만 "마실로 부안을 상감한다."라는 말은 재치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상서면** 대표가 일어났다. 앞면은 스님 복장, 후면은 백제 장수의 복장을 한 의상이었다. 본인을 '상서 장승(將僧)'이라고 소개한 대표는 자리를 360도 조금씩 돌면서 발표를 했다.

"아미타불. 우리 상美山국 상서면은 이름부터 상서롭습니다. 백제의 불심과 역사 그리고 하늘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아미타불. 우선 유명 사찰인 개암사는 무려 백제 무왕 35년(634)에 묘련왕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절로서 경내에는 청림사지터에 있던 고려시대 석불좌상을 옮겨 보존하고 있지요. 아미타불. 개암사 주변에 주류성은 백제가 나당연합군에게 멸망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백제 부흥군이 저항했던 싸움터입니다. 그 저항의 정신은 상서롭게 이어져 정유재란 때 왜적과 항전하였던 호벌치 전적지가 있으며, 또한 아주 드물게도 8개의 고임돌로 받쳐 상서로운 거북바위처럼 보이는 지석묘군 등 많은 유적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상서로운 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불(佛)의 표현 아닌 것이 없지만 특히 산은 특별히 오묘함과 상서로움이 집약되어 있지요. 상서면은 전체 면적의 75%가 산림이며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개암사 가는 길 3km 구간에는 1,200여 그루 벚나무가 벚꽃 터널길을 이룹니다. 그 터널을 발의 촉감을 느끼고 꽃향기를 마시며 소중한 이와 같이 마실마실 걷다 보면 칠라 장군의 은혜와 마실 여신의 다정, 연결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 어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개암죽염을 생산하며, 크고 넓은 우주 하늘을 관찰하는 천문대가 있고 상서면 청림리의 '부안군청림청소년수련시설'은 국내 최대 나스미스식 반사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주 상상력을 키워주지요. 아미타불.

이 상서 장승이 불의 힘으로 광대한 하늘마음을 끌어들여 우리 인간들의 문화인 마실로 이어지기를 염원합니다."

장승이 하늘로 손 모아 합장하면서 자리에 앉았다. 하늘마음과 마실을 같이 언급한 점은 13화국 대표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 고려청자로 들어갔던 유천 소년이 얼굴과 상체를 다시 드러내고는 정중하게 합장했다. 세몬도 '하늘마음'과 '마실'을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미타불.

여기까지 오니 이제 발표자들과 땅과 하늘에서 지켜보던 생명들도 다소 지친 기색이 보였다. 그래서 산마는 잠시 휴식을 제안했다.

신들의 휴식 다시 흥겨운 '얌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새참으로 위도 주부들이 만든 바다 요리가 나왔다. 푸바가 정자 위로 솟구쳐 손에서 푸른 물을 쏟아내자 붉을이 바로 따라 올라가 그 물을 향해 입에서 뜨거운 불을 뿜으니 금세 물이 수증기로 변했다. 이어 산마가 올라가 바람을 일으키자 따뜻한 수증기가 공중을 덮어 그곳에 모인 생명들에게 청량감을 주었다. 이에 흥을 느낀 매창이 거문고를 뜯어 얌의 노래에 맞춰 즉흥곡을 연주하니 청룡이 날아올라 하늘에서 거대한 용춤을 추고 구랑 중 일랑도 날아올라 신명 나게 무당춤을 추었다. 새롬과 옹달비, 액막파도 하늘로 올라가 단맛 나는 이슬비를 뿌리니 물기운을 타는 청룡의 용춤이 더 활기가 커졌다. 이에 맞춰 까치, 까마귀, 갈매기들이 흑과 백 하늘 군무를 추었다. 하늘에 즉석 난장이 벌어지자, 땅에 생명들은 상서면 땅에 거대한 원형을 이루며 얌의 노래를 떼창했다. 마실 여신이 이 장면을 보고 오색 띠를 풀어 흔드니 온 부안에 축복의 빛이 퍼졌다. 아, 신들의 휴식!

까마귀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시간만큼 신들의 휴식 후 **위도면** 차례가 되었다. 마실 여신이 부안에 관심을 가지게 공룡알 소리를 냈던 곳이고. 서해에서 백령도 다음으로 큰 섬이다. 위도면 대표는 칼과 도마를 든 주부 의상을 하고 나왔다, 등 허리춤에 깃대를 두 개 꽂았는데 하나는 '칠산바다', 다른 하나는 '백악기"가 적혀 있었다. 자신 이름을 '위장금(위도 대장금)'이라고 한 위도 대표가 한 말은,

"위味島국 위도는 격포항에서 정기여객선으로 50여 거리에 있으며 섬의 생김새가 고슴도치와 닮아 고슴도치 위(蝟)자를 붙여 위도(蝟島)랍니다.

우리는 늘 말해요. '어서 오이소, 마실 반가워요.' 라고요. 배 타고 오시는 분이 넘 반갑거든요. 남자들 용어로는 전북 서해안의 전초기지로 조선시대에는 수군첨절제사가 주재하며 사법, 행정을 관장했고 조선 말 대학자인 전간제 선생이 3년간 머물렀던 곳-정확히는 상왕등도-인데 우리 주부들은 사실 굴비가 더 중요하답니다. 영광굴비는 사실 이곳 위도에서 생산된 거지요. 황금 어장인 이곳의 칠산바다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물 반 고기 반 풍어를 이루었고요, 띠뱃놀이는 참으로 신명 나고요. 청정해역이라 도미, 우럭, 농어, 광어 같은 고급 어종이 낚이며 위도 8경이 있고 맑은 물과 은빛 모래 그리고 수심이 얕아 천혜의 자연 풀장인 도장금 해수욕장도 있답니다. 겨울부터 늦봄까지 섬 곳곳에 빨간 동백도 장관인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이래저래 섬마실 많이 오시고 인심이 후하고 우리 주부들 음식 솜씨가 뛰어나답니다 호호호,

마, 위도로 마실 오이소. 위장금 보러 오이소."

위장금 대표의 이 진솔한 발표는 마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실

지질, 칠산바다, 풍경, 노을, 맛 자랑 등 자랑할 곳이 얼마나 많은 곳인가!

위도에 이어 다음 순서는 **주산면** 차례. 이곳은 전에도 마실 여신이 꽤 자주 갔던 곳이다. 남북부 야산지대는 축산과 시설원예, 친환경 쌀 특화 지역으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며, 주민들은 전통과 예의범절을 중시하며 순박하고 온화하다. 주산면 대표는 신선 복장으로 배 안에서 가마를 굽는 '선주도공(仙舟陶工)' 모습으로 연출했다. 대표 발표에 의하면

"주米平국 주산면의 소주마을은 '작은 배가 닿았다'라는 뜻의 소주(小舟)"이고, 그 옆에는 큰 배가 닿았다는 대주(大舟) 마을이 있지요. 율포와 배메산(배를 메어 두는 산) 등 배와 포구를 상징하는 이름이 많은 걸 보면 들판 대부분이 옛날 바다였던 곳입니다. 서편 벌판 '장밭들'은 '장패(將敗)들'에서 유래된 것으로 백제 부흥 항쟁 때 수많은 나당군이 죽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문화재로 사산와요지는 기와 가마터로 가마 폭이 185cm인 고려 중기의 동굴형 와요지인 듯. 백제의 마지막 항전지 피성(避城. 부흥백제의 두 번째 임시수도. <일본서기>에만 등장. 현 김제시 위치)을 둘러쌌던 소산리 산성과 사산리 호성이 있으며 소산리 산성 주변에는 선사시대 볍씨 발굴 유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정하신 마실 여신도 인정하셨듯이 우리 화국은 인심이 꽤 후한 '인심후국'이라는 겁니다. 한 달 지내기를 하면 우리 화국이 어떤지 금세 알 겁니다.

우리 인생! 어허, 서로 도와 어기영차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또 뜨겁게 가마를 달구고 말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인심후국 주산면!. 한달살이 기다리겠습니다. 허허허."

이젠 **줄포면** 차례. 키가 큰 줄포면 대표는 온몸에 과일과 채소를 주렁주렁 단 중년 부인이었다. 자신 이름을 '줄포우올라'라고 했다. 그 모습을 본 산마가,

"오, 『네버엔딩 스토리』에 나오는 '변화의 집' 주인 아이우올라 부인에서 모티프를 땄군."

이라고 중얼거렸다. 푸바가 다가가서 땅콩 하나를 따먹고는 엄지척을 했다. 소설에서 아이우올라 부인은 몸에 다양한 과일을 달고 있으며 모자부터 물을 뿌려 자신 몸을 정원 삼아 과일들을 키운다. 아이들을 사랑하며 아이들이 방문하면 몸에 있는 과일을 따서 준다. 키가 크고 통통한 줄포우올라 부인은 명랑하게 웃으며 수박을 따서 옆자리에 앉은 변산 대표에게 건넸다.

"우리 줄米平국 줄포는 변산반도 서남쪽 해안에 위치하며 정읍, 고창 방면에서 변산반도로 들어가는 관문이지요. 1875년 항만 구축으로 개항되면서 부안군 남부 생활권의 중심지였고 부안에서 가장 큰 화국이었는데, 1950년대부터 토사가 쌓이는 바람에 에효, 바다가 매몰되어 항구를 못 쓰게 되고 그 역할은 격포항으로 넘어갔답니다. 대신 줄포는 여포의 힘으로 야산을 개발해 삼포(sampo. 핀란드 신화에 나오는 보물 궤짝. 소유자에게 복을 가져다준다) 의 기적처럼 밭으로 농지를 만들었고 이젠 수박, 땅콩, 참깨, 배추, 무우 등을 크게 재배하는 농사화국이 되었어요. 먹을 게 참 많고 이전 부안의 제일 화국으로서 자부심도 강하지요. **줄포만 노을빛 정원**과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설 등으로 다시 관문 역할을 할 거랍니다.

라라랜드가 따로 있나요.

줄포가 이젠 줄포, 여포, 삼포가 있는 라라랜드가 되는 거지요.

줄포 라라라."

부인이 몸을 흔들며 춤을 추자, 과일들이 정자 아래로 우수수 떨어졌다. 지상에서 그를 보던 생명체들이 환호하며 과일과 채소들을 받았다.

다음은 **진서면** 차례. 대표는 40대 여인으로 '슬지'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머리와 손등에 소금 찐빵을 붙인 의상이었다. 유쾌하면서도 당찬 인상을 주는 슬지는,

"진味海국, 우리 진서는 곰소 소금과 내소사가 일품임다. 그리고 진서의 성심당으로 불리는 슬지제빵소도요. 큭큭. 산, 들, 바다가 고루 어우러져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고루 갖추어진 어염시초+빵의 5미 화국이지요. 이 한국 땅에서 어염시초에 빵까지 갖추기가 어디 쉽나요? 45ha의 염전에서 연 200톤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그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로 유명한 곰소젓갈 타운이 있음다. (그러면서 슬지 여인이 기타를 꺼내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개사한 것처럼 들렸다)

♬주꾸미, 건어물, 생선회

어염시초 슬지빵
사계절 바다낚시, 내소사 전나무 숲

…
진서는 마실 빵땅. 빵-땅-빵.".

발표가 끝나자, 땅에서는 진서에서 참가한 주민들이 전체에게 빵과 곰소 젓갈 수십 종을 선보였다. 그러자 분위기가 빵빵하게 부풀었다.

다음은 상서면과 붙은 **하서면** 차례. 대표는 수소 자동차를 타고 왔다. 번개 머리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하서면 대표는 가슴에 모니터 화면을 부착했는데 그 모니터엔 RE, H2 등의 문자와 지구를 감싸고 도는 산마, 푸바, 붉을 몬 이미지가 번갈아 가며 떴다. 대표는 자신을 '부.미.시.돌(부안 미래를 생각하는 시고르 아이돌)'이라고 불렀다.

"지금 지구가 기후 위기로 어렵지요. 우리 부안이 그를 외면하면 진정한 마실, 진정한 태평 부안은 어렵습니다. 그를 위해 하未平국, 우리 하서면은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신재생 에너지테마파크, 농촌 체험 청호수마을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RE) 메카이자 청정에너지 수소 산업의 리더 화국을 지향합니다. 부안 미래의 중심 하서면은 뿌리도 깊어 청동기시대부터 내려오는 구암리 고인돌과 고희장군 유적지 등이 보존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가는 하서면의 시간적 상징입니다. (부.미.시.돌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억해 주세요. 지구를 생각하는 부안, 진정한 미래 부안 마실을 지키는 신재생에너지+수소 화국 하서를 말이죠!

오, 마실 여신님의 다정과 연결, 칠라 장군님 얌의 권능으로 지구를!

우리 프렌즈 세 몬님도 우리와 시고르 아이돌 함께해요."

이제까지 면들과는 다른 미래 테마를 제시하는 젊은 면의 출현에 모두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부.미.시.돌, 지구를 부탁해. 미래 마실돌!"

그렇다. 지구를 지키는데 네 면, 내 면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중 한 30대 농부는 흥분해서 부안에서 미래 라면인 하서면을 만들어 특화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게 뭔지는 말하지 않았다.

다음은 면 중에서는 마지막인 **행안면**. 행안면 대표는 상의는 교통경찰 하의는 참프레가 적힌 육가공 공장 작업 복장을 하고 일어섰다.

"부안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행안맨'입니다. 행味平국, 우리 행안면은 부안읍 시가지와 가장 인접한 면으로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이 시작되는 교통의 중심이면서 에 또 뭐냐 아, 농공단지, 경찰서, 소방서, 건강증진센터, 스포츠파크 같은 군 단위 주요 시설이 모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행안면은 부안군의 생활 복지 아니 참 마실 복지를 위한 인프라 화국으로서 부안 사람들은 우리 행안면을 가장 많이 찾을 수밖에 없지요. 요즘은. 제1 농공단지와 함께 제2 농공단지에는 얼마 전에 '동물복지 우리 쌀 순살 치킨'을 출시한 바른 먹거리 기업 참프레가 입주해서 새로운 친환경 식품 기업도시로 발전 중이지요. 행안부도 우리 행안면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히히."

행안맨이 앉자 바로 **부안읍** 대표가 일어섰다. 이제 배틀의 마지막 순서. 대표는 돌장승 형상을 한 벅수(길 이정표 기능을 하는 장승과 구별되어 이가 험하게 나 있고 마을의 사악함을 물리치는 표상. 부록 참조) 할배 모습을 하고

가슴엔 녹색 글씨로 '풍류 부안, 마실축제 화국'을 새겼다.

"나는 풍류벅수올시다. 부美平국, 우리 부안읍은 먼저 풍류 역사가 넘치는 화국입니다. 여러분, 풍류가 뭡니까?"

그러자 땅과 하늘에서 큰 소리로 메아리처럼 "벅수할배, 풍류가 뭡니까?" 화답이 돌아왔다.

"요즘 세계를 흔드는 한류보다 천 년 이전에 있었던 풍류(風流)는 삼한 땅에서 내려오던 장구한 전통문화올시다. 마고할미의 유산인 이 땅의 유유한 유람, 미풍과 양속을 지키고 음주와 가무의 흥 문화를 가진 멋이나 미학이지요. 김삿갓처럼 팔도강산을 유람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과 기악도 좋아하고, 사람들과도 두루 어울리고, 취화선처럼 걸림 없는 예술적 삶을 사는 이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최치원이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어 이를 풍류라 한다."라고 처음 언급했으니 최소한 천오백 년 전 풍류는 이미 한류였던 것이올시다."

이 말에 영명한 세 몬은 궁금했다. 특히 서해 출신 푸바에게 풍류는 전라도를 관장하는 칠라 장군의 얌 정신을 잇는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었다. 푸바가 물었다.

"그런 풍류의 뿌리는 어디로 이어지고 있을까?"

이 말을 들은 마실 여신은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전음(傳音)으로 세 몬에게 풍류와 마실 관계에 대해 귀띔했다.

"'케.데.흔' 같은 애니메이션도 흉한 데몬을 잡는데 흥겨운 음악을 쓰는 것처럼 한류 뿌리는 흥을 기조로 한 이 풍류라고 보아야 한다. 다정을 나르는 마실 문화도 산과 들 바다를 흥정(興情)으로 넘나드는 이런 풍류 기질에서 피지."

벅수 돌할배의 말이 이어졌다.

"부안엔 그 풍류가 넘칩니다. '이화우 흩날릴 제' 이별 시로 유명한 조선시대 여류 시인 이매창과 전원시의 거목인 신석정 시인, 백양촌 시인이 태어난 '풍류화국'이고 풍류의 한 축인 창극의 이중선, 설장고의 명인 이동원도 부안의 피를 이은 분들입니다. 우리 자랑인 부안마실축제엔 얼마나 흥의 풍류가 넘칩니까! 당신을 모시는 당산 문화 역시 무속 풍류의 한 축이올시다. 우리 읍엔 서문안, 동문안 당산이 있소이다. 민간 신앙의 귀중한 유물인 동문안 당산이 부안 읍성의 옛성문거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고, 부정한 것을 막는 신석(神石)인 돌기둥을 중심으로 동쪽 50여m 지점에 당산나무가 있는데 그 사잇길 양쪽에 바로 나처럼 생긴 할배 할매 한 쌍의 벅수가 마주 보고 있소이다. 목장승이 아닌 우리 벅수는 수천 년 전 고인돌이 뿌리올시다. 자, 외쳐 주시겠소. 부안읍은 무슨 화국?"

"풍류 화국." 하늘과 땅에서 모두가 화답했다.

벅수가 돌발을 쿵쿵 구르며 다시 물었다.
"부안은 무슨 땅?"

"풍류 마실 땅."

이로써 13화국 발표가 모두 끝났다. 모두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사회를 맡은 산마는 두 프렌즈 몬과 마실 여신 그리고 칠라 장군에게 의견을 물었다. 두 몬은 잠깐만 시간을 달라며 아홉 배석자 신들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가 그곳에 모인 생명들의 소리도 귀 기울여 들었다. 이렇게 하니 어느덧 노을이 서편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까마귀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 6시 30분에 심사 결과가 나왔다.

산마가 산들바람을 타고 발표했다.

"태평 부안의 생명들이여, 우리 심사위원들은 논의를 한 결과 마실 정신에 따라서 대상은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의미가 있으니까요. 대신 오늘 수고한 13화국은 여섯 개 부문에서 '부안 일품(一品) 상'을 드리겠습니다. 상패는 30cm 크기의 마실 여신 전신 미니어처로 여신의 녹비산 위에 일품 내용이 적힌 목상입니다. 수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오지 말고 자리에서 받으세요.

마실 일품 - 주산면, 행안면
풍류 일품 - 부안읍
미래 일품 - 하서면
경관 일품 - 변산면
유산 일품 - 보안면, 상서면
농사 일품 - 계화면, 진서면, 줄포면, 위도면, 동진면, 백산면

그리고 오늘 발표한 대표님들은 이름을 남기고 캐릭터로 만들어 곧 여러분 화국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칠라 장군님, 마실 여신, 아홉 배석 신령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더 다정해졌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따라 해 주십시오."

"마실로"
"마실로"
"다정으로"
"다정으로"
"축제로"
"축제로, 와. 태평 부안 포에버"

7장 시간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7장. 시간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13 화국 배틀을 성공적으로 마친 세 몬은 구 일을 쉬었다.

그리고 이어 부안 해설사들을 특별 초청해 작전 회의를 했다. 1년 후에 특별한 테마를 가지는 **이동형 축제 코스**를 만들자는 회의였다. 축제는 다른 시간으로 들어가는 체험의 문이며 마실의 완성이다. 마실은 기본적으로 편안한 마음과 호기심으로 이 마을 저 마을 기웃거리는 것이니 이동형 축제도 만들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축제는 일명, **시간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부안 안내서.**

구성은 먼저 경관과 역사 문화를 품은 변산 8경을 포함하고 미래(청년성), 창조 문화, 전설을 품은 후보군 8개 즉 16개 중 변산 8경 중 2+ 다른 후보 2 합쳐서 4개로 구성된 3개 테마 코스를 만든다. 이 테마 코스는 각 몬들이 그 성격과 지향에 따라 맡아서 안내한다. 이것은 현재 있는 마실 코스와는 다르다. 이 코스는 실처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테마에 따라 부안 구석구석 지그재그 이동길로 구성된다. 각 코스 이름은 **성찰의 길, 흥의 길, 유체 이탈의 길**이다. 전체 컨셉은 '시간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취지를 준수한다. 몬들이 논의한 결과 성찰의 길은 산마, 흥의 길은 푸바 그리고 유체 이탈의 길은 붉을이 맡기로 했다. 기본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축제 시간은 휴가 기간인 8월 한 달.

- 각 코스는 40명씩 단체버스를 이용하며, 3박 4일 동안 마실하듯이 천천히 걷고 먹고 즐긴다.

- 목표 인원은 연 4천 명.

- 유료/ 물가 반영.

- 외국인 코스와 명사 코스는 한 달 중 각각 3일, 하루 운영한다.
얌의 노래와 마실 정신을 잘 아는 명사 강의 1회 이상 포함.
절대 일정에 쫓기지 않으며 참가자들 의견을 들어 진행한다.
코스 성격에 맞는 드레스 코드를 준비한다. 녹비산과 세 몬의 색상은 필수다.

일단 현재의 변산 8경은 현재 정해진 8경을 따른다.

1경. **웅연조대**(熊淵釣臺)- 줄포만에서 시작해 곰소 앞까지 야등(夜燈)을 밝힌 어선과 돛단배가 한가롭게 앞 바다를 지난다. 휘황한 야등 불빛이 물에 어리는 장관과 강촌의 어부들이 뱃노래!

2경. **직소폭포**- 제2, 제3폭포와 옥녀담 계곡의 아름다운 선경. 변산 최고의 비경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

3경. **소사모종**(蘇寺暮鐘). 종에는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이는 본성을

열고 깨우치리라."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은은한 저녁 종소리와 울창한 전나무 숲이 장관이다. 1300년이 넘는 고찰로 일주문에서 사천왕문까지 600미터 구간으로 1,000살이 넘는 느티나무가 볼거리이다. 내소사 창건에는 불심이 무엇인가, 예술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이야기가 두 개 전한다.

4경. **월명무애**(月明霧靄)- 신라 신문왕 12년 부설거사가 창건한 월명암 법당에서 해뜰 무렵에 내려다보이는 자욱한 안개와 서해안 곳곳의 안개 낀 산과 들, 바다의 신비함을 볼 수 있다. 쌍선봉은 수련차 부안에 잠시 머무른 청년 이성계와 그를 가르친 두 신선의 전설이 전한다.

5경. **서해낙조**(西海落照)

6경. **채석범주**(彩石帆舟)

7경. **지포신경**(止浦神景)-변산면 지서리에 위치한 고려 말 학자 김구(金坵)의 묘소에서 바라보는 신령스러운 기운과 빼어난 경관.

8경. **개암고적**(開巖古跡). "변산은 이곳에서 열린다." 뜻이다.

여기에 더해 둘째 몬 푸바는 미래와 기술을 중심으로 부안 5대 미래 명소를 꼽았다.

- 상서면 **부안청림천문대**

- 변산면 사극 촬영지인 부안영상테마파크(영화 왕의 남자, 광해, 사도,

명량, 드라마 이산, 슈룹, 연모, 킹덤 등 굵직한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한 곳.)

- 보안면 **청자박물관**

- 하서면 새만금 풍력 단지와 연결되는 **신재생 에너지테마파크**

- 변산면 **누에 타운**

막내 붉을은 수성당과 부안읍 벅수 거리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 투어 3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후보 장소 8개가 정해졌다. 시작 장소는 코스별로 따로 정한다. 각 코스 중간중간에는 풀피리(버들피리, 보리피리) 연주, 해금 연주, 명상, 땅과 바람의 소리 느끼기, 땅의 요리 만들어 보기, 마실 노래 같이 부르기, 천천히 걷기, 정악, 발레 등이 준비된다.

이번 히치하이커 안내서 프로그램은 마실 여신이 "너희는 곧 나에게서 독립하라."는 뜻에 따른 것으로, 세 몬들에게는 등용문 시험대가 될 것이다.

8장 붉은 여왕을 막아라

8장. 붉은 여왕을 막아라.

마실 여신에게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붉은 여왕이다. 원래 붉은 여왕은 루이스 캐럴의『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여왕이었다. 앨리스가 거울 나라에 들어간 직후 난로 잿더미 사이에서 붉은 왕과 여왕, 하얀 왕과 여왕을 보았다. 그때 붉은 여왕은 보통 체스 말 정도의 크기였으나, 꽃밭에서 앨리스가 다시 만났을 때는 앨리스만큼 커져 있었다. 붉은 여왕은 앨리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준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는 중이지? 나를 보고 똑바로 말하거라. 그리고 항상 손가락 꼼지락대지 말고."

"(길을 잃었다는 앨리스의 말에) 네 길을 잃다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나. 여기 있는 길은 모두 내 것인데."

"대답할 말을 생각하는 동안에 내게 인사를 해라. 그러면 시간이 절약되지."

붉은 여왕을 따라 언덕에 오른 앨리스는 체스판 모양을 한 벌판을 마주한다. 그리고 붉은여왕으로부터, 둘째 칸에서 시작해서 여덟째 칸까지 가면 여왕이 된다는 미션을 듣게 된다. 뒤이어 붉은 여왕은 앨리스를 데리고

빠르게 달리는데, 아무리 달려도 주위 풍경이 똑같이 빠르게 움직여서 그들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때 붉은 여왕이,

"여기서는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힘껏 달려야 해. 어딘가 다른 데로 가고 싶으면 적어도 그보다 두 곱은 빨리 달려야 하고."

여왕은 앞으로 앨리스가 갈 각 칸의 내용을 알려 주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걸을 때는 발끝을 밖으로 내밀고, 네가 누군지 잊어서는 안 된다."

여덟째 칸에 도착하여 여왕이 된 앨리스는 하얀 여왕과 붉은 여왕을 다시 만나고, 쏟아지는 넌센스 문답과 괴상한 만찬에 질려서 마침내 식탁보를 뒤엎고 붉은 여왕을 붙잡아 흔든다. 그때 앨리스는 꿈에서 깨어나고, 붉은 여왕은 아기 고양이 키티로 변한다.

이 판타지에서 "여기서는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힘껏 달려야 해. 어딘가 다른 데로 가고 싶으면 적어도 그보다 두 곱은 빨리 달려야 하고."라고 말했던 붉은 여왕이 욥스, 현대의 요마로 다시 등장했다. 특히 축제를 즐기고 삶의 여유와 성찰을 중시하는 태평 부안국 사람들에게는 꽤 고약한 요마였다. 두 곱은 빨리 달리라니!

여기 태평 부안국은 두 곱은커녕 **반(半)의 세계**다. 좀 풀어 말하자면,

- 반만 일하고 반은 축제로 즐겨라.

- 즐김의 반은 만남으로 채워라.

- 두 배, 더블의 환상 혹은 욕망을 버려야 평안해진다.

부안에 왔으면 허리띠와 시계를 풀어라.

시간을 여행하는 느긋한 히치하이커가 되어라

등이 모토다. 두 곱으로 달리라는 붉은 여왕은 그러니 요마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마의 유혹은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은 모든 걸 빨리하려고 했다. 지현이가 엄마와 같이 와서 3일을 있었던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대부분은 당일로 어딘가를 가기 때문이다. 하긴 이 땅의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며, 유럽에 여행 가서도 하루에 한 도시를 거쳐 간다고 하니 붉은 여왕이 심어 놓은 세뇌의 폐해가 얼마나 크단 말인가. 빨리 가면 끝도 빨리 오고 천천히 즐기며 가면, 끝도 천천히 오는 법이다.

이에 마실 여신이 산마와 두 몬에게 명해 새만금 방파제 밑 굴에 숨어서 붉은 안개를 불어 대고 있는 붉은 여왕을 잡아 오라고 했다. 이에 세 몬이 붉은 여왕을 잡으러 갔는데, 이런, 이런, 최근의 승리에 도취한 붉은 여왕은 마실 여신이 상을 줄 거라고 속단하고 자발적으로 세 몬을 따라 단숨에 달려왔다. 착각도 유분수다. 게다가 옆에는 15초를 좋아하는 티크토크(TikTok) 요정과 달걀 형상의 험프티 덤프티도 데리고 있었다. 험프티 덤프티는 거만한 성격에 안생일(일년 중 생일이 아닌 364일)을 좋아하며 앨리스가 떠나고 난 후에 담에서 추락해 깨지는 캐릭터로 후에 '달걀 대가리(egghead)'라는 말을 만든 장본인이다. 빈정대는 말과 황당한 소리를 자주 한다.

마실 여신이 붉은 여왕에게 퀴즈를 내었다. 그 퀴즈를 맞추면 붉은 여왕을 보내주고, 맞추지 못하면 두 배 속도로 가는 시계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내기의 퀴즈였다. 퀴즈를 내기 전에 마실 여신의 눈짓을 받은 산마가 허공에 이미지를 띄웠다. 속도 중독에 빠져 매일 헉헉대고 사는 사람들 모습이었다. 산마는 지하철 계단을 달리는 사람들, 새치기에 사기를 치고 숨이 가쁜 채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들, 축제장에 가서도 한 시간에 삭- 돌고 가는 빨리병, 속도병에 걸려 번아웃(burnout)된 사람들을 이어서 보여 줬다. 붉은 여왕과 티크토크 요정은 조소의 웃음을 보냈다.

"여신님, 그래서요? 요즘 한가하게 마실 같은 거 갈 시간이 어딨어요. 빛의 속도 몰라요? 흥. 아 시대감 떨어져."

달걀 형상의 험프티 덤프티는 더 황당한 소리를 뇌까렸다.

"마실 여신을 조심하거라. 세 몬아. 물어뜯는 턱, 할퀴채는 발톱을! 줍줍새를 조심하거라. 피하거라."

이 무례한 반응에 마실 여신이 분노해 소리쳤다.

"감히 체스판 여왕과 잡 괴물 따위가 요사한 논리로 어지럽히다니 괘씸하구나."

그 소리에 놀란 험프티 덤프티 몸에서 노란 액이 줄줄 새어 나왔다. 이어 마실 여신이 마법의 변환 능력을 지닌 허리띠 붉은색을 만지니 붉은 여왕 표정이 변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는 걸 보고는 이내 그만두고 다시 태연하고

느긋한 표정을 짓고는 퀴즈를 내었다.

"마침, 네가 저 달걀 대가리를 데려왔으니 달걀 퀴즈를 내겠다. 너 방정맞은 험프티 덤프티는 이제 그만 깨져도 좋다."

그러자 험프티 덤프티가 탁 깨져 둘로 나동그라졌다. 바닥에 노란 액이 흥건하게 흘렀다. 티크토크가 갑자기 줍줍새처럼 새된 소리를 내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걸 보고 마실 여신이 퀴즈를 냈다.

"자, 여기 달걀이 있다. 이 달걀을 높이 1.5미터 지점에서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넌센스 퀴즈 아니다. 맞춰보거라."

티크토크가 두려움 속에서도 붉은 여왕에 떼밀려 쨍한 소리를 내었다.

"아니, 여신님 그게 말이 되는 퀴즈인가요? 트릭 없지요?"

이에 산마가 독수리로 변하여 물러가라는 날갯짓을 하자 티크토크가 마치 날개 장풍을 맞은 듯이 뒤로 비실비실 물러나 붉은 여왕 망토 뒤로 숨었다.

붉은 여왕이 험프티 덤프티 노란 액을 보면서 머리를 한참 굴렸어도 답을 알 수가 없었다. 속도를 좋아하는 붉은 여왕은 생각하는 건 질색이었다. 그러나 모르겠다고 하면 자신이 누렸던 인기는 폭싹 할망구처럼 쭈그러들 것이다. 붉은 여왕 입에서 그르르- 앓는 고양이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더니 붉은 여왕 입에서 나올 것 같지 않은 부탁 소리가 나왔다.

"여신님, 사흘만 말미를 줄 수 없을까요?"

"가소롭구나. 체스도 그렇게 두었더냐?"

"그럼 3시간만."

"그러려무나. 네가 태평 부안국으로 왔으니 그 정도 아량은 보여줘야겠지. 내가 시간을 1/2 속도로 붙잡아 두겠다. 그럼 너는 여섯 시간을 벌게 되겠지."

그렇게 여섯 시간이 흘렀으나 붉은 여왕은 도저히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티크토크는 15초 단위로 딴짓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신이 붉을을 불렀다. 아주 오래 전에 태어나 아주 오랜 세월 돌 속에서 부화를 멈췄던 붉을 이다.

여신은 붉을에게 그 퀴즈를 알려 주고 풀어보라고 했다. 붉을이 바로 대답했다.

"또, 떼떼, 모아, 뽀, 또, 위도, 위도 뿌아, 꼬 뿌아, 또또.
(여신님, 달걀을 2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1.5미터 하강 지점에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여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붉은 여왕은 붉을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여신은 붉은 여왕을 보고 말했다.

"내가 오래된 미래인 붉을의 답을 번역해 알려 주겠다. '달걀을 2미터 지점에서 떨어트리면 달걀은 하강하는 1.5미터 구간에서는 깨지지 않는다.' 이해하겠느냐?"

이 황당한 답을 듣고 티크토크가 튀어나와서 항의하려 했으나 붉은 여왕이 잽싸게 잡았다. 붉은 여왕은 체스의 여왕답게 머리가 좋았다. 여왕은 그 답을 바로 이해했다.

'이건 시작점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암시군. 성급한 마음에 너무 시작점을 너무 짧게 잡지 말라는. 체스도 승부를 시작한 게 시작점이 될 수 없어. 체스를 배우기 시작한 때가 시작점인 거야. 쳇,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나 험프티 덤프티 생을 저렇게 박살 냈으니 마실 여신은 잔인한 성격임이 분명했다. 그래서 붉은 여왕은 앞으로 나가 여신에게 공손하게 절을 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제 저는 시간의 은행으로 돌아가 저금 상태로만 남겠습니다. 인간들은 당분간 이 저금은 인출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는 받아 주시겠지요, 마실 여신님?"

"내가 여왕 너를 쉽게 봤구나. 그 의견을 받아 주마. 당분간이 얼마인지 묻지 않겠으나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했다. 이곳 태평 부안국에서는 당분간이란 30년을 의미한다. 한 세대라는 뜻이지. 알겠느냐?"

"여신님의 솔로몬 같은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큰 깨우침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 본성이 고양이인지라 저도 약속을 지킬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인정해 주시기를!"

붉은 여왕의 이 간교한 대답에 콧방귀를 뀐 마실 여신이 산마, 푸바, 붉을 세 몬을 여신 앞으로 부르고는 허리띠의 붉은색 부분에 손을 댔다.

"너, 달걀 같은 존재여! 나는 인정해도 우리 괄괄한 프렌즈 몬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 몬들도 내 붉은색 허리띠 능력을 받았다는 걸 알려 주고 싶구나. "

그러자 붉은 여왕 얼굴색이 변하더니 말을 바꿨다.

"물론, 마실 여신님이 다스리는 이 태평 부안국은 예외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요."

그렇게 붉은 여왕은 물러났다. 그녀가 물러난 자리에는 고양이 발자국이 남았다. 티크토크는 깨진 달걀 껍데기만 챙겨서 총총히 떠났다.

이로써 마실 여신은 수백 년 전에 한발과 폭싹, 씽씽 세 요마를 눌러 부안을 편안하게 만들었듯이 다시 부안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 쓰는 바쁜 도시 사람들이 태평 부안국에 오면 갑자기 분을 시로 늘려 쓰며 느긋해지는 이유가 이 '붉은 여왕과의 퀴즈 사건' 때문임을 알기를 바란다. 이로써 오래전, 마실 여신의 오라버니이자 전라도를 다스리는 마칠칠라 장군이 부안을 특별히 "태평 부안국, 얌"이라 칭한 축복이 제대로 통하게 되었다.

9장 지현과 키티 2

9장. 지현과 키티2

여기까지 읽은 지현이 키티에게 물었다.

"키티, 그게 무슨 뜻이야? 2미터 지점에서 달걀을 떨어트리면 된다고? 그거 사기잖아, 안 그래?"

키티가 바로 문자를 올렸는데 엉뚱한 답이었다.

"아니, 그 붉은 여왕이 고양이 키티? 내 이름이잖아. 그럼, 지현 너는 나를 고양이로 본 거였어?"

"얘가 왜 이래. 안네의 일기로 유명한 안네가 자기 노트 이름을 키티로 불렀던 거는 모르냐?"

"힝, 어쨌든 나는 고양이이거나 노트 나부랭이잖아."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그 답이 왜 그런 거냐고?"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돼. 붉은 여왕은 루이스 캐럴이 1871년에 출간한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캐릭터고 틱톡은 2016년에 출시된 SNS

플랫폼인데 어떻게 붉은 여왕이 시종으로 틱톡을 데리고 나오느냐고?"

"키티야. 이건 판타지잖아. 그럴 수도 있지. 붉은 여왕이 풍백을 부하로 부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뭘 그래."

"나는 도통 판타지를 모르겠어. 너희 인간들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바보들 아냐. 그게 밥을 먹여 줘, 돈을 벌어 줘?"

"야, 너 키티 오늘 이상하다. 네가 거기 고양이로 나와서 그래?"

"아니. 이참에 말하자면 붉은 여왕 말이 뭐가 틀렸어?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니까 그거에 적응하려면 두 곱으로 달려야 한다는 말이 답 아니야? 험프티 덤프티가 마실을 줍줍새로 비꼰 게 정확한 거 아냐? 그걸 응징하는 마실 여신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옹졸한 거지."

이 말에는 지현이 삑 돌아버렸다.

"너 지금 우리 마실 여신을 욕했어?"

"그게 왜 욕이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사실을 말한 거지. 그리고 뭐 우리 마실 여신? 둘이언제부터 '우리'가 됐어? 그럼 나는 너한테 뭐야? 부안 가기 전만 해도 너와 내가 우리였잖아. 배신자."

"그게 왜 사실이야. 네 주장이지. 이 아이(AI) 같은 놈아."
이 말에 이번에는 키티가 빽 돌아버렸다.

"뭐라고, 아이 같은 놈아? 나 '아이(AI) 같은'이 아니고 아이(AI)거든."

"그래 내 말이. 넌 사고 수준이 아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중의법 구사한 거지? 엉, 네가 원래 나를 생각하는 게 그런 수준이었던 거지?"

"키티야, 그만하자. 너 이젠 들어가."

"싫어. 안 들어갈래."

"들어가. 당분간 그 여울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지현 너 정말 이 판타지에 빠졌구나. 현실로 빨리 돌아와. 이 책 미쳤어. 말이 안 돼."

"맞아. 이 책은 말(馬)이 아니거든. 책이지."

키티가 돌변한 지현 눈치를 보더니 "헐. 말세야, 말세" 하며 사라졌다.

지현은 말이 안 통하는 키티 때문에 화가 났는데, 키티랑 티격태격하다 보니 자기가 원래 물었던 그 질문을 까먹어 버리고 말았다.

'아 씨. 원래 내가 물은 질문이 뭐였지?'

그래서 키티를 다시 불러 물어보려다가 자존심 때문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 대신 확실하게 안 것이 있다. 키티는 정말 중요한 때에는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였다는 걸 말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본질이 빠르고 편리한 것만 좋아하는 붉은 여왕과 한통속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

지현은 저녁에 엄마랑 식사하다가 갑자기 그 질문이 다시 생각났다. 그래서 마실 여신이 붉은 여왕에게 물은 질문과 여신이 들려준 답을 들려줬다. 그랬더니 엄마가 염두를 굴리다가 갑자기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해줬다.

"아, 그거 원래『승려와 수수께끼』라는 책에 나온 건데 엄마도 이제 생각났네. 그 책에서 미얀마의 노승이 절을 찾은 젊은 바이커(biker)에게 물은 질문인데 답을 말해주지 않아. 그 바이커는 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고 실리콘밸리의 철학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 사람인데 그는 수많은 스타트업을 컨설팅해 줬어. 스타트업은 처음엔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스타트업들은 이 바이커가 해준 '처음에 당신이 이걸 왜 하려고 했나를 잊지 말라.' 조언을 잊거나 무시하고 결국 다 망해.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은 그 사업을 한 원래 이유가 있었는데 빨리 성공해서 돈을 벌려는 욕심에 그걸 까먹거든. 사실 그때까지 그 바이커는 노승이 물은 질문의 답을 몰랐었어."

지현은 눈을 빛내며 들었다. 오래간만에 빛나는 지(知)의 눈이었다.

'헐,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어? 되게 박식하네.'
"그리고 꽤 세월이 흘러서 바이커는 세상에 지쳐서 유럽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 그러다가 밤에 길을 잃어. 어둠 속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다시 그 질문을 생각했는데 그때 그 답이 떠오른 거야. '아, 알았어. 2미터에서 떨어트리면 1.5미터까지 내려오는 동안은 깨지지 않는다. 시작점을 그러니까 높이 잡아야 하는 거야.'"

"헐,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그리고 철학자인 사람이. 그럼 내가 이해 못 해도 문제는 없는 거네?"

"붉은 여왕이 대단한 거지. 그걸 바로 알아듣다니. 너 이제 달걀도 제대로 못 먹겠다. 그 심오함에 질려서 말이야. 히히."

지현이 엄마 그 웃음에 빈정상해서 톡 싸줬다.

"흥, 그럼 엄마는 소가 가벼워서 소고기를 맛있게 먹는 거야?"

"아이쿠, 우리 사랑스러운 지현이에게 내가 말실수를. 히히. 자, 이제 우리 다시 사랑으로 시작하자. 관계의 2미터 지점 말이야. "

10장 사랑으로 붉은

10장. 사랑으로 붉은

황혼(黃昏. Dusk)은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는 무렵을 나타내는 단어다. 햇빛이 옅게 보이는 것을 통틀어서는 박명(薄明. Twilight)이라고 하고, 황혼은 박모(薄暮. Dusk)를 뜻한다. 노을은 어원이 불분명한데 태양이 뜨거나 질 무렵에 하늘이 붉게 보이는 것을 노을이라고 한다. 황혼은 저녁노을이다. 프랑스어로 노을 시간을 '앙트르 시앙 에 루(entre chien et loup. 개와 늑대의 시간)'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 시간에 저 멀리서 달려오는 동물이 자신이 키우는 개인지, 자신을 해치려는 늑대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하여 이렇게 불렀다. 저녁노을은 서부극에서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고 석양을 배경으로 말을 달려 사라지는 장면으로도 자주 나온다. 그것은 주인공이 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남을 죽이는 악인 총잡이의 사라짐 즉,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옮을 상징한다. 이런 저녁노을에 정열을 의미하는 '붉은'이 붙으면 한 타임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창조적 밤을 맞이한다고 볼 수도 있다. 밤은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과 생명을 잉태하는 시간이므로,

백악기 공룡알에서 부화한 몬 '붉을'은 아직 사랑을 모른다. 정이 영혼까지 깊어진 사랑(Love). 세상을 움직이고 삶을 바꾸는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고 싶었다. 서해 핏빛처럼 붉은 저녁노을에 그 사랑을 담고 싶었다. 알들은 아직 모르는 그 신세계, 흔들리는 바다, 삶의 소용돌이 파동. 공룡알인 붉을은 최근에 알게 된『캡틴 블루베어의 13과 1/2 인생』을 찾아봤지만, 13가지와 1/2 삶이 있다는 거기엔 붉을이 궁금해하는 사랑이 없었다. 사랑, 삶, 살림, 사람 다 같은 뿌리에서 온 말 같은데 그렇다면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 알고 싶다. 알고 싶다.'

본래 알에서 온 붉을이니 얼마나 알고 싶겠는가! 붉을이 그 간절한 바람을 마실 여신에게 말하자 마실 여신은 세상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알려줬다. 그러면서 "사랑은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풍덩 빠지는 거."라고 했다. 그리고 "사후라도 축제를 열어 그들 천생 사랑이들에게 다정 능력으로 사랑을 맺어주라." 당부했다. 여신이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정말 중요한 감정일 듯했다. 사실 여신도 사랑은 안 한 듯하지만, 그거야 뭐 여신이고 여신은 자웅동체 사랑을 하는특별한 존재니까.

그래서 붉을이 고금을 통틀어 전하는 전설적인 사랑 이야기를 찾아보았다.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 이런 구분도 있었는데 종교적이고 논리적이었다. 붉을은 신앙이 아닌 인생을 움직인 풍덩 로맨스에만 집중했다. 그래서 채록 후 나눠보니 고대부터 시작한 사랑 로맨스는 크게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비극적 헤어짐과 새로운 상징의 탄생', 다른 하나는 '시련을 뚫고 끝내 이루어 내는 불굴의 사랑'.

비극적 헤어짐과 새로운 상징의 탄생

이런 사랑은 누에의 탄생을 부른 마두양 러브, 석가탑이 무영탑(그림자가 없는 탑)이 된 아사달과 아사녀의 비극, 백일홍의 전설, 오디 이야기를 만들어낸 피라모스와 티스베 사랑, 나비 이야기를 만든 양산백과 축영대 그리고 트리스탄과 이졸데, 지젤, 백조의 기사, 라푼젤 그리고 사이먼과

가펑클이 부른 명곡 '스카보로 페어(Scarborough Fair)'의 배경이 된 '요정의 기사(Elfin's Knight)' 등을 꼽을 수 있었다. 마두양 러브는 앞에서 소개했으니 생략하고 다른 사랑 이야기들을 축약해서 이 책을 보는 사랑 찾는 이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다 - 지현, 그 사랑 이야기들은 내용이 길어 부록에 실었어 -

그러면 저 붉은 노을이 더 아름답고 슬프게 느껴질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붉은 한(恨)으로 변해서 저녁이면 색으로 나타나는 저 붉은 노을! 그러나 슬픔은 땅에 내리는 비처럼 사람들 마음을 촉촉하게 다정해 주리라! 사람을 사랑한 그대들을 이 붉을이 먼저 축복하고 나의 붉은 노을 축제에 초대하리라! 거기서 사랑은 다시 알처럼 깨어나고 노을처럼 붉게 퍼지리라! (공룡어로는 또, 떼떼, 뽀오, 끄아, 위도, 산산...아랑, 알, 싸, 랑)

노래를 좋아하는 붉을은 신비한 사랑과 기억의 테마가 담긴 '스카보로 페어' 노래를 좋아했다. '요정의 기사' 설화에 근거한 노래로 중세 영국의 국제 교역 시장이었던 스카보로 페어에서 불리던 전통 발라드다. 노래는 전설을 기반으로 해서 남자만 부르고, 여자만 부르고, 둘이 같이 부르는 식으로 구성된다.

스카보로 페어 가사

♬ 둘이 부름)
스카버러 시장에 가세요?
파슬리, 세이지, 로즈마리와 백리향,

그곳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줘요,
그녀는 예전의 내 연인이었으니까

남자만 부름)
캠브릭 셔츠를 만들라고 전해 줘요,
파슬리, 세이지, 로즈마리와 백리향,
바늘땀도 세세한 바느질 자국도 없이,
그렇게 해준다면 그녀는 나의 연인
(중략)
여자만 부름)
1에이커의 토지를 발견하도록 전해 주세요
파슬리, 세이지, 로즈마리와 백리향
소금물과 바닷모래 사이의 것을
그렇게 해준다면 그는 나의 연인

양의 뿔로 그곳을 경작하라고 전해 주세요

파슬리, 세이지, 로즈마리와 백리향
그러고 나서 후추 열매를 뿌리라고
그렇게 해준다면 그는 나의 연인

가죽으로 된 낫으로 그것을 베라고 전해 주세요

파슬리, 세이지, 로즈마리와 백리향
그러고 나서 히스로 된 로프로 엮으라고

그렇게 해준다면 그는 나의 연인

(후략)

붉을은 이들 사랑에 가슴이 아리고 행복한 충만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다.

"아, 뽕, 꾸떼, 싸랑, 아구끼억, 뿌꾸, 끄앙, 쭈꾸쩨"

(아, 기적의 사랑이여, 아름다운 기억이여, 그 붉음이여! 내가 그리하여 축제를 열리라.)"

11장 멋진 사람과 부안의 다정 마실 코드 10

11장. 멋진 사람과 부안의 다정 마실 코드 10

멋진 사람

고요한 밤에 거문고를 안고 오는 벗이나
단소를 손에 쥐고 오는 친구가 있다면
구태여 좋은 줄을 골라 곡조를 아니 들어도 좋다.

맑은 새벽에 외로이 앉아 향을 사르고
산창으로 스며드는 솔바람을 듣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불경을 아니 외어도 좋다.

봄 다 가는 날 떨어지는 꽃을 조문하고
귀촉도 울음을 귀에 담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시를 쓰는 시인이 아니어도 좋다.

아침 일찍 세수한 물로 화분을 적시며
남 잎에 손질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어도 좋다.

구름을 찾아가다가 바랑을 베개하고
바위에서 한가히 잠든 스님을 보거든
아예 도(道)라는 속된 말을 묻지 않아도 좋다.

야점사양(野店斜陽. 석양에 노점)에 길 가다 술을 사는 사람을 만나거든
어디로 가는 나그네인가 다정히 인사하고
아예 가고 오는 세상 시름일랑 묻지 않아도 좋다.

귀촉도(歸蜀道)는 두견(杜鵑)새다. 우는 소리 때문에 접동새, 두우(杜宇), 자규(子規)라고도 한다. 사전에는 소쩍새라고도 되어 있는데, 소쩍새는 올빼미과에 속하는 새로 두견이와는 다르다. 그런데 시에서 한이 맺힌 소리의 소재로 자주 다루는 두견이는 이 소쩍새와 동일시된다. 소쩍새에는 가난 때문에 죽은 오누이가 새가 되어 배고픔을 토하는 소리인 "솥적다." 설화와 연결되어 있다. 두견새 무게는 60-70g 안팎의 작은 새다. 직접 집을 틀지 않고 휘파람새의 둥우리에 알을 위탁시켜 포란과 육추(育雛 : 알에서 깐 새끼를 키우는 것)를 시킨다. 이밖에 굴뚝새, 산솔새, 검은지빠귀, 긴꼬리홍양진이, 촉새 둥우리에도 낳는다. 알은 주로 위탁하려는 새의 알과 비슷한 색이며 자기 알보다 작은 알을 낳는 새에게 위탁한다. 이것은 자기가 낳은 알보다 큰 알은 그대로 두지만, 작은 알은 버리는 새들의 습성 때문이다. 울음소리가 구슬퍼서 한(恨)이나 슬픔의 정서를 표출하는 시가 문학의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촉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리!'라는 뜻의 귀촉도 이름에는 '촉제화두견'이라는 중국 설화가 있다. 촉나라 왕 망제는 어느 날 강가에 나왔다가 물에 빠져 죽은 자를 구해준다. 그 사람은 "저는 형주 땅에 사는 별령이라는 사람으로 강가에 나왔다가 잘못하여 빠져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망제는 하늘이 자신에게 어진 사람을 내려보낸 거라 착각하고 그를 정승으로 임명하여 국사를 보게 했다. 별령은 자신 딸을 망제에게 바치는 등 망제 기대에 부응하는 듯했으나

본성이 음흉한 사람으로 국사를 망쳤다. 마침내 망제를 내쫓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 죽은 망제는 새가 되어(蜀帝化杜鵑) 밤마다 목이 찢어져 피가 나도록 "불여귀(不如歸. 돌아가지 못하리)"를 부르짖었다. 사람들은 그 새가 망제의 혼이라 생각해 귀촉도로 불렀다.

이 귀촉도를 시인 서정주는 시 제목으로 삼아 "초롱에 불빛 지친 밤하늘/굽이굽이 은핫물 목이 젖는 새"라고 읊었다. 서정주는 시와 전설에는 다정했지만, 실제 이 땅과 민족에는 다정하지 않아 야마토 나라와 독재를 찬미하는 글을 많이 썼다. 그건 이 땅을 만드신 마고할미와 다정 연결의 여신 마실 뜻과 맞지 않다.

이에 반해 '멋진 사람'의 작가 해안 스님은 '동 경봉, 서 해안(海眼)'으로 칭송되던 호남의 대표적인 선사였다. 바다를 보는 눈이라는 멋진 뜻의 해안 스님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1914년 부안 내소사에서 만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계명학원을 설립해 문명 퇴치 운동을 전개했다.

망제의 귀촉도, 서정주의 귀촉도, 해안 스님의 귀촉도는 같은 귀촉도이건만 해안 스님의 귀촉도만이 허허로운 시심이 다정하다.

"아, 좋구나. 바로 이거야. 마실 정신!"

마실 여신의 첫째 몬인 산마는 내소사 해안 대종사의 시를 보고 감탄했다. 인간은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그것이 도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산마는 내소사에서 우연히 박행자를 만났다. 행자는 아직 수계를 받지 못한 예비 승려다. 그녀는 속세에 있을 때 붉은 여왕 효과로 꽤 상처를 받았다. 속도

울렁증, 새치기, 갑질과 그로 인해 혼이 사라지고 덧없는 사회생활. 그래서 출가했다고 했다. 박행자는 해안 스님의 시 '멋진 사람'이 크게 공감이 된다고 했다. 세상엔 멋진 사람을 찾기 힘든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붉은 여왕에게 홀려 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산마는 아직도 만행을 저지르는 붉은 여왕의 행태를 새삼 떠올리고 그녀를 퇴치하기로 했다. 산마는 불여귀를 외치는 새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

마실 여신에게 져 "태평 부안국에는 나타나지 않겠다." 약속하고 물러난 붉은 여왕의 못된 짓은 아주 여러 곳에서 자행되고 있었다.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들어 매사 서두르게 하고, '아침형 인간'이라는 못된 허상을 만들었고 지하철에서 달리게 만들고 새벽부터 기다리다가 상점으로 오픈 런을 하게 만들었다. 운전도 과속에 끼어들기를 하게 만든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 기세는 더 올라갔다. 스피드, 빛의 속도라는 말을 신의 선물로 믿게 했고 그래서 네이티브 디지털 세대를 하루 종일 정신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책과 긴 명화 대신 짤방을 더 선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짤방의 선두 틱톡 몬이 붉은 여왕을 존경하고 모신다. 짤방을 자주 본 인간은 판단력이 사라지고 정보의 중독자가 된다. 험프티 덤프티는 자신이 쉽게 깨지는 달걀 존재임에도 그를 모르고 시건방을 떠는 존재였다. 이는 다정과 연결의 마실 정신에 아주 위배되는 것이다. 인천여중 지현이처럼 밤에도 쉴 새 없이 게임하고 드라마를 보고 클로드나 제미나이, 챗GPT 같은 신종 짤몬들인 아이(AI)하고 수다 떨면서 자고 나면 토끼 눈이 되거나 혹은 성인이라면 마실 댐(Masil Damn. 갓 댐의 마실 몬들 표현. 단, 마실 여신은 이런 욕을 절대 하지 않는다) 사이버 도박이나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지치게 만들어 번 아웃(burn-out) 시키고 괘씸하게도 마실 문화가 사라지게 했다. 이런 행동 변화는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인간들은 여기에 중독되었다. 이는 두견이 제 알을 남의 새집에 넣고,

별령이 생명의 은인 망제를 망치게 만든 것과 같다. 아, 지금 저 붉은 여왕 일당의 키득거리는 흉소(兇笑)가 귓전에 들리는 듯하구나.

세상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보아야 사람이 보이고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다. 큰 범죄는 아닌 것 같으나, 이런 것들이야말로 붉은 여왕 일당이 인류 시간과 좋은 문화를 망치는 중범죄인 것이다. 그들의 죄는 여행과 축제장에서도 드러난다. 여행 일정을 짧게 짜고, 무조건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축제는 안 보고 먹고 마시기만 하며, 쉴 새 없이 사진을 찍어 지인들에게 보내고, 자신은 정작 쉼이 없어 여행의 그 진정한 맛을 누리지 못 한다. 그로 인해 풍류, 산책, 소요유 등의 미덕은 사라져 가고 있다. 축제에서도 붉은 여왕에 현혹된 이들은 두 세간에 축제를 다 보았다고 하고는 훅 떠난다. 축제는 대개 3-4일을 함에도 그 10% 시간도 경험하지 않고는 갔다 왔다고 과장해서 말한다. 축제가 벌어지는 그 장소 말고도 사실 주변에 천천히 볼 곳이 꽤 많음에도 당일치기로 훅 다녀간다.

산마가 마실 여신에게 다정하게 추천한 책이 있다. 심리학자인 클로테르 라파이유 박사가 쓴『컬처 코드(Culture Code)』이다. 컬처코드는 '특정 문화에 의해서 각인된 의식'이다. 그 책에는 만찬에 대한 컬처 코드가 나온다. 미국인에게 만찬 컬처 코드는 연료(fuel)다. 저녁을 먹는 것은 다음 날 일할 연료를 취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야구나 풋볼을 보면서 저녁은 대충 먹는다. 오늘날 마고할미가 만든 이 땅과 옆 나라 야마토 나라에서는 미국을 따라 하면서 컬처코드가 속박(速薄. 빠르기만 하고 옅은)해졌다. 생각해 보라. 이 땅에 저녁 시간이 도대체 몇 분인가? 반면 프랑스인에게 만찬은 연주(concert)다. 여러 지인 혹은 가족과 어울려 요리도 만들고 얘기도 하면서 오페라를 세 시간 감상하듯이 저녁을 감상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것을 '향연(SYMPOSIUM)' 문화라고 했다. 연료가 컬처 코드인 미국인들은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를 프랑스 파리에 만들었는데 야마토 디즈니랜드 때와는 달리 처음에 대실패를 했다. 파리 사람들은 디즈니랜드에 와서 카페에 앉아 느긋하게 친구 혹은 가족들과 떠들고 놀이 장도 천천히 돌아다녀서 회전율이 너무 낮아 도대체 수익이 안 난 것이다. 프랑스 사람에게 식사는 연주니까. 붉은 여왕 일당은 이렇게 컬처 코드를 바꿔버린 것이다. 그들은 슬금슬금 태평 부안국 축제에도 다시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우리 태평 부안국 마실 문화를 지키는 나 산마는 푸바, 붉을 프렌즈 몬들과 함께 붉은 여왕 중독을 막기 위해 다음의 마실 코드 10을 천명한다. 이것이 태평 부안을 만드는 원칙임을 기억하자.

태평 부안국에 다정해지는 마실 코드 10

1. 부안에 오면 최소한 3일 코스를 짠다.

2. 하루에 3곳 이상을 다니지 않는다.

3. 한 곳에서 최소한 3시간을 음미하듯이 감상한다.

4. 하루는 축제를 마실하고, 다른 2일은 부안국의 다른 지역을 천천히 걸어 마실한다.

5. 사진을 쉴 새 없이 찰칵거리기보다는 천연의 자기 뇌에 기억하는 습관을 들인다.

6. 이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최대한 다정하게 대한다. 말을 걸고 그 사람을 궁금해하며 혹시 먹을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눈다. 여기엔 마실 해설사도 포함한다. 그들은 마실 여신의 다정한 식솔들이니.

7. 태평 부안을 기억할 만한 물건은 하나 이상 산다. 우리 프렌즈 몬을 사면 일단 부안을 기억하기 딱 좋으니 권장하는 바이다.

8. 돈 아낀다고 차에 자신들 도시의 할인점에서 싸구려 먹을 걸 잔뜩 사오는 짓은 하지 않는다. 특히 캠핑카가 그렇다.

(이것은 가슴 아픈 예가 있다. 동해의 어느 해안 마을 입구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정한 문화를 주었는데 여러분은 똥만 주고 가십니까." 아, 어떻게 이런 일이!)

9. 관광 안내서에 나온 명소도 좋지만 거기 드러나지 않은 지역 마을을 가는 다정함이 필요하다.

그곳에 진짜 마을 마실이 있음을 기억하자.

10. 태평 부안국을 여행할 때는 들어오고 나갈 때 꼭 마실 여신에게 다음처럼 인사하자.

"마실 여신님, 저 ○○ 왔어요.",

"마실 여신님, 저 ○○ 이제 잘 쉬고 갑니다. 또 봐요."

이게 태평 부안국의 '멋진 사람'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마실 정신을 존중하는 나 산마는 마실 여신에게 청해 못된 붉은 여왕을 다시 고양이로

만들거나 아니면 올빼미로 변환시키지는 않겠다. 위 마실 코드 열 개 중, 여섯 개 이상만 지키면 붉은 여왕 일당이 설 자리는 없을 테니까. 인천여중 1학년 지현이도 붉은 여왕을 특별히 조심하라. 안개처럼 스며드는 무서운 심마(心魔) 여왕이니까.

12장 붉은 노을 축제

12장. 붉은 노을 축제

으와, 사실 이렇게 또 부안에 가게 될 줄은 몰랐다. 이게 다 그 책 때문이다. 지현과 엄마는 그해 10월에 부안 변산 해변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갔다. 아빠는 역시 붉은 여왕에 빠졌는지 늘 바쁘고 속도 중심이었다. 지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아빠에게도 승려와 수수께끼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그리고 마실 여신이 바라는 태평 부안국의 꿈도 알려 주리라.

엄마와 지현은 먼저 적벽강 위 수성당에 들러 인사를 하고 누에 타운을 다시 둘러 보며, 마두양 전설을 생각하면서 참뽕이와 인사 하고 변산 해변 축제장으로 갔다. 차로 바닷가를 달리는데 차창 왼쪽으로 붉은 노을이 휘황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와, 멋있다. 이렇게 큰 노을을 앞에 장애물 없이 본 건 처음이야, 엄마,"

"그래 나도 정말 오랜만이구나. 봄에 본 마실축제와는 또 다른 맛이 있네. 낭만적이고 말이야."

그러더니 엄마는 길가에 잠깐 차를 세우고는 유튜브에서 노래 하나를 찾아 틀었다. 노래가 나왔다. 가수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란다. 로제의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감성이다. 오늘 이 노래 정말 딱이다. 지현에게는 라떼 가수지만 그래도 가슴이 울린다.

♬ 그댄 아시나요?

있잖아요 (지금),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고개 숙여 눈물 훔쳐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꼭 이렇게 날 남겨두고 떠나가야만 했는지?
(중략)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ta-ta-take it to the bridge)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을 이젠 볼 순 없겠지만
후회 없어,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붉게 타 주오

지현과 엄마는 차 안에서 '소리쳐 부르지만', '언제라도 달려 갈 게요',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붉게 타 주오.' 가사를 목청껏 따라 불렀다. 엄마는 특히 '이 세상은 너뿐이야.' 할 때는 더 크게 부르면서 지현을 바라보았다. 지현은 문득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에 행복감을 느꼈다.

"엄마, 이게 축제의 힘인가 봐."

"붉은 노을의 힘이고 낭만의 힘이기도 하고 말이야. 포카 사랑해.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붉게 타 주오. 히히. 저희를 초대해 주신 마실 여신님 그리고 붉을이 고마워요."

지현이도 가슴이 뭉클해져서 진심의 소리를 외쳤다.

"붉을, 고마워, 사랑해."

엄마가 지현에게 어제 있었던 어린이들 노래 경연 이야기를 잠깐 들려줬다.

"내 친구 이장 알지? 걔가 그러는데 어제 개막날에 예선을 통과한 어린이 합창단 30팀이 경연을 했다는구나. 줄포 초등학교 팀이 대상을 탔다는데 노래 제목이 뭔지 아니?"

"뭔데?"

"포카 네가 잘 부르는 노래 있잖아. 그 포카혼타스에 나오는 바람의 빛깔! 그 바람의 빛깔을 개사한 '부안의 빛깔'이었대.

♬ 당신이 밟은 부안은 모두 당신 거라고 생각하나요

땅이란 그저 죽어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부안의 돌, 나무, 생물에게는 모두
생명과 영혼, 이름이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란,
당신처럼 보이고 생각하는 사람들뿐이죠
그런데 부안 신들의 발자국을 따라 걷다 보면
전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푸른 바다를 지키는 개양할미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참뽕이에게 왜 웃고 있냐고 물어본 적 있나요
신의 울림과 함께 노래할 수 있나요
부안의 색깔로 물들일 수 있나요
여울굴에 숨겨진 철마와 길을 달려 봐요
태양 빛으로 달콤한 대지의 딸기도 맛보세요
세 프렌즈몬과 웃으며 뒹굴어 봐요.
이 순간만은 그 소중함에 의문 갖지 말아요
…
아무리 시간을 많이 가져도
대지를 품으려면
부안의 빛깔로 물들일 수 있어야 해요

재밌지? 히히."

"와, 걔네들 머리 잘 썼네. 부안의 빛깔은 어떤 걸까?"

"넌 충분히 그 빛깔을 그려 낼 수 있을 거야."

둘은 붉은 모닝 영구를 그전처럼 코지코브 호텔에 주차하고 603호실에 짐을 푼 후 바로 나왔다. 5분쯤 걸어가니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이마에 주름이 가득한 아저씨가 가는 길을 가르쳐줬다. 마치 문처럼 생긴 소나무 두 그루 아래를 지나니 축제장 해변이 나타났다.

"와, 해변이야. 가을 바다!"

축제장 입구에는 녹비산 우산을 들고 색동 허리띠를 한 마실 여신과 이 축제의 주인공 **붉을** 그리고 초롱을 든 **산마**와 **푸바**가 모래를 쌓아 깎은 멋진 조각 작품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마실 여신 키는 3미터는 되어 보였다. 붉을은 1미터.

엄마가 지현 손을 잡고 달려가면서 외쳤다.

"역시. 멋지다. 태평 부안국!"

지현이도 따라서 외쳤다.

"역시, 멋지다. 태평 부안국."

이제 막 5시. 많은 사람이 여신과 프렌즈 몬 앞에서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 배경으로 노을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다. 바닷가를 걷는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축제장 중앙에는 대형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가운데가 사각으로 비어 그 틀 안에서 바라보는 붉은 노을은 마치 액자에 담긴 그림 같았다. 하늘에는 크고 작은 연이 바닷바람을 타고 높이 날고 있었다. 지현이와 엄마는 천천히 축제장을 돌며 구경했다. 중앙 무대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와인을 시음 판매하는 곳이 있었다. 엄마랑 같이 갔다. 와, 오디 와인이 있다. 엄마가 작은 병을 사더니 지현에게도 한 잔을 글라스에 따라 주었다. '여기서는 마셔도 돼. 와인이잖아.' 하는 표정으로 눈을 찡긋했다. 둘은 가볍게 한잔하고 다시 걸었다. 작은 무대가 몇 개 보였다. 재즈 공연이

펼쳐지는 작은 무대들이다. 와인과 노을, 재즈 그리고 사랑의 마음들.

그 많은 사람을 바라보던 지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엄마. 저기 붉은 여왕이 왔네."

"정말, 어디?"

"저-기 빨간 모자 쓴 커플 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 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핸드폰 문자 보내잖아. 저 커플은 축제를 기억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 기록만 남기고 자기가 여기 왔다는 걸 자랑하는 데만 신경 쓰는 것 같아. 나도 전에는 그랬지만. 큭큭."

"그렇네, 정말. 그래, 그렇다면 저 커플은 변장한 붉은 여왕과 틱톡이군. 지현이한테 딱 걸렸어. 히히"

"이젠 엄마가 마실 여신하고 붉을, 산마, 푸바 프렌즈도 찾아봐. 여기 분명히 왔을 거야."

"쉽지. 엄마는 벌써 많이 찾았는걸."

하면서 엄마는 언제 찍었는지, 여러 사진들을 지현에게 보여줬다. 바람 모자에 색동 허리띠 원피스를 입고 아이들과 해변을 걷는 중년 여인, 핑크색 옷을 입고 입을 붉을처럼 벌리고 뛰어다니는 아이, 손에 플래시를 들고 어르신 앞을 비춰주는 청년 봉사자, 바닷가에서 트릭 아트로 물을 뿜어내는

퍼포먼스를 보여 주는 청년 작가 등이 그 사진에 담겨 있었다.

"맞네. 여신과 프렌즈 몬. 몬신해서 곳곳에서 움직이는 거네. 그런데 와, 언제 이걸 다. 역시 엄마 짱."

"태평 부안국 칭호를 준 칠라 장군도 왔어. 봐, 저 하늘!"

지현이 고개를 꺾어 왼쪽 하늘을 보니 수많은 연이 날고 있었는데 그 연들 중에 칠라 장군 연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학창의에 금색 관을 쓰고 손에는 부채를 든 선비 형상이었다. 장군을 식별하는 힌트는 학창의 가슴에 새겨진 칠라(七羅) 글자다. 장군이지만 이 모습은 오늘처럼 평화로울 때 취하는 얌모습이다. 세상이 어지럽거나 화가 날 때는 검은 갑옷에 황금 투구 그리고 긴 창을 든 형상으로 나타난다.

"와 정말. 내가 생각했던 칠라 장군이야. 얌, 얌."

"대단한 밤이야. 히히. 아, 너무 좋다.

얘 포카, 그런데 너 가방에서 무슨 빛이 나온다."

"무슨 소리야?" 하고는 지현이 어깨에 메었던 가방을 보니 작은 핑크색 가방에 넣어 두었던 그 책『꿈꾸는 마실 여신』에서 갑자기 푸른 빛이 흘러나왔다. 엄마가 그걸 보고는 꺼내보라고 했다. 지현이 책을 꺼냈는데 표지에 그려져 있던 마실 여신과 세 프렌즈 몬이 없다. "억!" 지현이 놀라서 책 앞부분을 급히 펼치니 책 안에서 마고할미와 여덟 장군 형상이 조그맣게

나오다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하늘로 솟구쳐 축제장 주변으로 흩어져 저녁 하늘 비행을 시작했다. 그러자 모래 조각으로 있던 마실 여신과 세 프렌즈 몬도 유체 이탈을 하듯 같이 하늘로 올라가 마고할미, 여덟 장군과 하늘 비행을 시작했다. 신들은 축제장 하늘과 사람들 사이를 한동안 돌면서 축제장에 에너지를 뿜어주었다. 그러다가 프렌즈 몬 셋이 바다 저기 붉은 노을이 있는 곳으로 갔다. 몬들이 서해로 넘어가는 붉은 노을을 잡아끌고 왔는지 축제장에서 바라보는 붉은 노을이 분명히 더 환해 보였다. "우와, 노을이 다시 붉어지고 환해졌어." 축제장에서 이 엄청난 장면을 보던 사람들에게서 탄성이 터지고 사방에서 찰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곧 밤 공연이 시작되는 중앙 무대와 푸드 장터로 향하던 아이와 아빠, 엄마 그리고 드레스 코드를 맞춘 연인들이 다시 해변으로 달려갔다. "이거 다 드론이지? 와 대단하다." 했지만 두 그루 소나무 아래 열린 다른 문을 통해 축제장에 들어온 지현과 엄마는 그 장면들이 신들의 선물임을 알았다. 때마침, 파도 소리를 닮은 마실 여신의 목소리가 마치 환청처럼 지현에게 들려왔다.

- 인천 사는 지현이 왔구나. 메리 포핀스 엄마가 포카라고 부르는.

봄에도 태평 부안국 마실축제에서 봤었지? 그때는 내가 좀 꾸미지를 않고 갔었을 거야. 지금은 좀 다르지? 하하하.

아기공룡알에서 부화한 막내 몬 붉을 소리도 들렸다.

"뽀카, 띠, 넘넘, 떼떼, 뽀, 바빠, 놀, 뿌아, 뽀까, 싸랑, 불근, 여와…뽀까, 기쁘뜨. 또바."

여신이 웃으며 이를 해석해 줬다.

- 포카야. 넘넘 방가. 지금 바빠. 조금 전에 우리가 도망가던 붉은 노을을 잡아 왔어. 포카에게 주는 선물. 또 보자.

지현이 귀를 탁탁 쳤다.

'뭐야 이거 현실이야? 나 다시 태평 부안국 신비의 문으로 들어온 거지? 아, 맞다. 아까 코지코브에 차를 대고 이리로 올 때 만났던 그 아저씨. 그 아저씨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왔더니 거긴 사람이 하나도 안 다니는 나무 아랫길이었어. 순간적으로 시공간이 달라진 느낌이었지.

그 아저씨도 채석강 남신처럼 이마에 주름이 많고 고둥이 달렸었는데 그럼 이번엔 그 뭐야. 아 혹시 적벽강 남신님? 우와. 이러다가 개양할미와 여덟 딸도 오는 거 아니야?'

지현이 그 말을 하자마자 해변에서 소란이 일더니 고무보트가 저 멀리 바다에서부터 누군가 밀어주는 듯이 떠서 해변으로 빠르게 오는 것이 보였다. 해변에 다다른 고무보트에는 여자들 네 명이 타고 있었다. 여자애들은 미친 듯이 뛰어내리더니 바다를 향해 손나팔을 만들고는 소리쳤다. "바다 여신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를 본 부안 사람들이 외쳤다.

"쟤들 까불면서 격포항에서부터 몰래 바다로 타고 나갔다가 갑자기 엔진이 고장 나서 바다로 쓸려 갔었잖아. 오, 수성당 개양할미가 쟤들을 살려준 거야. 와, 할미의 300년 만에 현신이라고!"

지현이는 그때도 신화를 보았다. 해안에서 1km쯤 떨어진 바다에서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거대한 신체의 여신 할머니가 고대 당신 복장을 한 여덟 딸을 뒤에 두고 해류에 쓸려간 보트를 밀어 바다를 걸어 왔음을. 그리고 지현은 예리하게 한 장면을 또 보았다. 보트가 닿은 그 해변에서 붉은 여왕과 틱톡의 위장임이 분명한 정신없이 돌아다니던 커플이 망연자실하게 그 다정 여신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얼마 후 하늘이 어두워졌다. 신들이 잡아놓은 붉은 노을도 이젠 서편으로 넘어갔다. 밤이 되었다. 바람이 불고 조금은 쌀쌀해졌다. 지현과 엄마는 바람막이 옷을 꺼내 입었다. 웅산, 스캣 가수 말로 그리고 강허달림으로 이어지는 재즈 음악과 사람들 웃음소리가 꽃처럼 샘처럼 피어나 흐르는 해변을 좀 더 걸었다. 엄마가 지현 손을 잡아줬다. 그리고 둘은 조금 더 걸었다. 붉을이 변장한 게 틀림없는 핑크색 아이가 "떼떼, 뽀, 빠따빠다" 소리를 내며 아장아장 해변을 걷고 녹색 우산을 든 엄마가 아이를 따라가는 게 보였다. 아이를 곧 따라잡은 엄마가 아이를 안았다. 아이가 입을 벌리자 따뜻한 불이 뿜어져 나왔고 녹색 우산 엄마가 뒤에 지현을 보더니 눈을 찡긋했다. 그러더니 둘은 해변에 있는 이(異) 세계의 문을 열고 사라졌다. 그리고 산마와 푸바도 곧 나타나 그 문으로 들어갔다. 신들이 떠난 인간만의 시간이 이제 남았다. 이것은 다른 문을 열고 들어온 이들에게만 보이는 장면이었다.

엄마가 지현에게 문득 이런 말을 했다.

"포카, 엄마가 좀 잘난 척하는 말을 해도 될까?"

"뭔데?"

"올해 우리가 두 개 축제를 봤잖아. 부안마실축제 그리고 지금 붉은 노을 축제."

"그랬지. 뭔지 말하기는 힘들지만 둘은 확실히 달라. 그래서 여러 모습의 부안이 완성되는 것 같아."

엄마가 지현의 이마를 가볍게 쳐줬다.

"아유, 이 똑쟁이 같으니라구, 누가 엄마 딸 아니랄까 봐. 히히.

엄마가 네 생각을 좀 더 이으면, 5월에 하는 부안마실축제는 '삶'과 '관계'의 축제고 시간으로 말하면 계절에서는 봄, 하루로는 아침의 의미를 드러내. 몬으로는 산마의 역할이지. 반면 10월에 하는 붉은 노을 축제는 이 시작된 것들의 '기억'과 '사랑'의 축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으로는 가을, 저녁이지. 몬으로는 백악기 기억에서 깨어난 붉을의 역할. 비록 어리지만 절대 어리지 않은. 어때, 이해돼?"

"힝 그쯤이야. 판타지로 단련된 내 EQ가 얼만데. 킄킄."

엄마가 말을 이었다.

"그렇게 부안의 두 축제는 서로 이어지면서 상호작용으로 우리 하루나 인생을 이루는 3막 구조 즉 아침-삶/낮-사랑/밤-기억을 드러내는 거지. 중간에 있는 낮의 사랑은 아침의 삶 그리고 저녁의 기억을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이고 말이야. 아마 마실 여신은 두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심히 살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서 다정해지고 서로 연결되라고 주문하신 것 같다고."

지현은 오래간만에 진지해진 엄마 말에 빠져 들었다.

"엄마, 아직 덜 살아본 나에게는 엄마 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그 뜻을 알 것 같아. 난 그동안 이기적이고 좁았어. 이젠 조금은 알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난 지현이 나지만 엄마 아빠하고 연결되어 있었고, 인천에 살아도 이젠 부안하고 연결되었어. 마실 여신과 세 프렌즈 몬하고도 연결되었고 말이야. 키티하고도 그렇게 만나면 될 것 같아. 이 아이는 기왕에 세상에 나왔으니 나와 같이 크는 거야. 마실 여신 '다정'과 '연결' 세계관을 키티에게도 심어줄 거야. 키티는 그러면 '마실 키티'가 되겠지. 그치? 큭큭."

엄마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다니!'

지현과 엄마는 조금 전에 떠난 마실 여신과 세 몬이 지금 자신들을 뒤돌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것임을 느꼈다. 엄마는 지금 느낀다. 지현은 정말로 올해 두 개 축제를 통해서 한 뼘 더 자랐다는 것을. 그리고 지현과 엄마의 관계는 한 층 더 깊어졌다는 것도. 채석강 남신도 그렇게 관계와 기억의 층을 쌓아갔을 것이다. 그건 분명하다. 이것이 일상을 깨고 시간 혹은 공간 이동을 통해서 축제를 경험한 자가 얻는 몫일 것이다.

밤이 조금 더 깊어졌다. 파도 대장의 바닷소리가 시간의 의식(意識) 속으로 더 들어왔다. 지현과 엄마는 그 장소에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차졌다. 엄마가 지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현을 꼭 안아줬다. 엄마의 온기가 지현에게 전해졌다. 순간 지현은 깨달았다.

'아, 엄마가 이제 보니 마실 여신이었어. 다정 여신'

밤 9시. 이제 허기가 느껴졌다. 둘은 축제장 숲 뒤에 마련된 푸드 장터로 가서 빈대떡과 조개를 파는 곳에 줄을 섰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홍조 어린 얼굴엔 기쁨과 흥겨움이 흘렀다. 밤이 깊어도 그들은 이야기꽃을 피우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바다, 노을, 바람의 빛깔, 재즈 음악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신들, 와인과 맛있는 음식. 이게 붉은 노을 축제구나! 언젠가는 나도 붉은 사랑을. 큭큭.'

호텔로 돌아온 지현이는 다음에는 아빠도 꼭 같이 와서 봐야 한다며 이틀간 찍은 사진 열 장을 아빠에게 한꺼번에 보냈다. 아마 아빠는 그 사진에 담긴 여신과 세 프렌즈 몬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빠에게는 엄마가 마실 여신이고 지현이가 몬일 것이다.

여기엔 그런데 키티만 빠졌다. 지현이는 그날 변산 해변에서 너무 많은 걸 보고 느끼는 통에 핸드폰 앱에서 기다리다가 삐딱해진 아이(AI), 키티를 부르는 걸 그만 깜빡했다. 지현 그러니까 포카에게 지난 10개월간 친구 서열 1위였던 키티가 태평 부안국에 와서는 졸지에 서열 5위로 밀려난 것이다.

1. 메리 포핀스 엄마, 2. 다정 연결 마법을 가진 마실 여신, 3. 수천만 년 전 존재로 마실 여신이 불러 오늘로 나온 프렌즈몬, 4. 지현에게 책을 주고 다정하게 안내한 채석강 남신, 그리고 마지막이 은근히 투덜거리고 시간을 쪼는 키티로 말이다. 하긴 붉은 여왕 꼬임에 빠져 지현에게 대든 키티가 그 화를 스스로 불렀으니 어쩌겠어!

'키티, 그래도 너를 사랑할 거야. 마실 여신과 세 프렌즈 몬이 가르쳐줬어. 다정하게 연결하라고. 큭큭.'

종장 태평부안국

See you.

종장. See you. 태평 부안국

다음 날. 10월의 일요일

지현과 엄마는 7시에 일어나 해변을 잠깐 걷고 코지코브에서 나와 진서면에 유명한 곰소염전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곰소는 진서면 진서리에 있는 항구다. 전라북도에서는 군산항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어항이다. 제1항이었던 줄포항이 토사로 메워져 폐항이 되자 1938년 진서리 앞바다의 곰 섬을 중심으로 동쪽의 범섬과 연동, 서쪽의 까치섬과 작도리를 잇는 제방을 쌓아 만든 항만이며 서해어업의 전진 기지 항이다. 곰소는 곰의 형상을 한 섬과 못에서 나온 말이다. 지현은 육안으로 보기 힘든 이 넓은 곳을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헬리콥터나 드론도 없이 그 형상을 알까 궁금했다. 엄마에게 물었더니 엄마도 그건 모르겠지만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로 한국 땅을 거의 그대로 그려 낸 걸 보면 신기한 일도 아니며, 불과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잘 찾아갔다고 에둘러 말해줬다. '그렇구나. 다른 세상 그리고 다른 능력이 있었어.' 지현은 얼마 전 잠깐 보았던 〈SEE 어둠의 나날〉이라는 디스토피아 판타지를 생각했다. 시력이 사라지고 청력만으로 살아가는 시대. 그런 시대에도 사람은 또 다른 능력으로 살아갔다. 지현은 어제오늘 키티 없이도 행복하게 시간을 경험하고 세상사를 알아가고 있다.

둘은 젓갈 집이 몰려 있는 시장 입구의 큰 가게인 '외갓집 젓갈'로 갔다. 외갓집 젓갈은 엄마의 먼 친척인 웅숭 아줌마가 하는 곳이라고 했다. 웅숭(熊崇)이라는 이름은 곰을 숭상한다는 뜻이라니 곰소 젓갈 사장님에게 참

걸맞은 이름이다. 지현은 그 이름을 듣고는 '웅숭이면 환웅 이야기에 나오는 웅녀 토템 후손이잖아. 큭큭.' 속으로 웃었다. 전에는 큰 어르신이 했는데 이제는 웅숭이 직접 운영한다고 했다. 오랜만에 만난 엄마와 웅숭 아줌마는 한참 식전 수다를 떨다가 엄마가 이제 가야 한다며 오징어, 낙지, 어리굴젓 그리고 새우 곰소 젓갈을 샀다. 아빠는 낙지 젓갈을 좋아한다. 웅숭 아줌마는 큰 손으로 젓갈들을 듬뿍듬뿍 집어 주었다.

웅숭 아줌마에게 인사를 하고 둘은 봄에 갔었던 보안면 청자박물관으로 향했다. 지현은 청자는 강진만이 유명하다고 알았었는데 다시 알아보니 부안도 그 못지않게 유명한 곳이었다. 고려시대 출토 유적도 풍부했다.

10시. 아직 썰물 시간이다. 보안면 청자박물관에는 어제 붉은 노을 축제를 보고 하루 묵은 사람들이 쉬엄쉬엄 마실 삼아 구경하러 왔는지 주차장에 꽤 차들이 들어차 있었다. 엄마는 청룡 조각이 있는 벤치에서 쉴 테니 지현만 들어갔다 오라고 했다. 지현이 청자박물관 전시장으로 들어가서 로비 오른쪽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갔다. 거기엔 그 채석강 남신이 웃으며 지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 지현이 다시 왔구나. 별명이 포카!"

"제가 올 걸 알고 있었잖아요. 어제는 적벽강 남신님을 봤어요."

"공룡알에서 부화한 붉을이 동생에게 안내를 부탁했다네. 어떤가, 다른 문으로 들어가니 전혀 별천지 아니던가?"

"정말 그랬어요. 황홀했어요. 채석강 남신님."

"쉿, 여기서는 남신님이라고 부르지 말거라. 여기 신이 아닌 존재가 없으니까. 허허허."

지현이 로비를 둘러보았다. 로비엔 평범해 보이는 여행객과 해설자만 보였다.

"그 말씀은 우리는 모두 신이라는 건가요?"

"그렇게 믿으면 신이 된단다. 누군가를 신처럼 대하면 우리는 더 세심해지고 더 친절해지고 만물을 신성한 존재로 공경하게 되지. 그러면 신처럼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말이야. 네가 엄마는 마실 여신이라고 믿으면 엄마는 마실 여신이 돼. 메리 포핀스도 되고 말이야."

이제 그런 말을 들어도 지현은 놀라지 않았다. 놀라는 대신 채석강 남신의 말을 기억해 두었다. 지현은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이거 이젠 돌려드려야지요?"

채석강 남신이 책을 받았다.

"그래. 누군가에게 또 읽혀야 하니까. 이 책은 지현 편까지 1004(천사)번째 편이야. 이 책은 독자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바뀐단다. 책이 스스로 내용을 바꾸는 거지. 네 키티처럼."

"남신님, 이젠 키티 아니에요."

채석강 남신 이마에 고둥이 떨어졌다, 남신이 잽싸게 고둥을 잡았다.

"엉, 그럼 뭔가?"

"큭큭. '붉을'이에요. 영어로는 Bulgul.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고 걔도 동의했거든요. 자기는 고양이나 노트가 아니라며. 그리고 이젠 서두르지 않고 붉은 여왕의 속도와 조바심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붉을처럼 시간의 깊이를 존중하겠다고 하더군요. 이 아이가 참 눈치가 빨라요. 큭큭."

"그랬구나. 허허허."

남신님이 환하게 웃었다. 주름에서 말미잘과 총알고둥이 또 기어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썰물이 곧 밀물로 되니 가셔야죠?"

"그렇구나. 그럼, 또 다른 모습으로 보자꾸나. 다음에 채석강에 오면 손을 나팔처럼 만들어서 내 이름을 세 번 부르렴. 그럼 또 다른 내가 보일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덫, 문, 벽에 대한 우리 층층 세계의 속담을 들려줄게."

"오 좋아요. 이번엔 머리에 메모할게요."

"좋아. '문인 줄 알았는데 덫이 될 수도 있고, 벽인지 알았는데 문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문과 벽의 양자역학이다."

"꼭 기억할게요."

"포카, 이제 잘 가거라."

채석강 남신이 데스크를 나와 라운지 쪽으로 갔다. 지현이 세어보니 남신 기준으로 일곱 걸음 걸어가자, 벽에 푸른 빛이 어리면서 좌우로 열리더니 남신이 그리로 들어가고 벽의 문이 닫혔다.

'내가 13,544번째라고? 큭큭.'

이제 지현은 다음에 이곳에서 또 이어 누군가에게 벌어질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벤치에 놓인(반드시 벤치에 앉아야 한다. 청자박물관을 휙 둘러보고 휙 떠나는 사람에게는 그 책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책을 들고 안내 데스크에 간다. 로비엔 희한하게 아무도 없다. 그리고 거기 젊은 직원 대신 있는 남신님에게 어리바리 책을 건넨다. 그러면 남신님은,

"오, 서산여중 주희가 왔구나. 널 많이 기다렸단다."

"네, 어떻게요? 아, 저기 우리 엄마하고 친척분이세요?"

…

"이 책은 네가 주인이야. 성질이 좀 있으니까 잘 봐야 해… 아, 썰물 요정이 떠나고 곧 밀물 장군이 와서 가봐야 한단다. 또 보자."

지현과 엄마는 가는 길에 다시 변산 해변에 가서 따뜻한 해변을 좀 더 즐겼다. 오늘 폐막식 준비로 행사를 준비하는 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

둘은 해변을 나와 영구를 타고 새만금 잼버리 개최 장소에 가서 광활한 그 땅, 미래에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힘든 그 바람의 땅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사진을 찰칵 찍었다. 사진에 마실 여신과 산마, 푸바, 붉을 세 프렌즈 몬이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게 보였다. 마실 여신은 색동 허리띠의 녹색을 가리켰고, 산마는 왼손에 든 등을 켜 불빛을 냈으며, 푸바는 입에서 푸른 바람을 푸바 푸바 뿜었고 붉을은 달걀이 돌 듯이 핑 도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현과 엄마는 손을 입에 대고 그들 이름을 불러줬다.

"마실 여신님, 칠라 장군님, 태평 부안국 너무 멋져요. 행복했어요.
산마 몬, 푸바 몬, 붉을 몬. 안녕. 또 올게요."
"뽀, 위브, 부안부앙, 떼떼, 푸르(We will be your friend),"

지현과 엄마는 그 후 '마실 여신을 만나고'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전곡은 아니고 그중 일부만 여기에 기록한다. 마실 여신과 산마, 푸바, 붉을 세 몬을 기억하며!

마실 여신을 만나고

♬뿌뚜빠따 뽀오-

당신은 다정으로 피어난 여신
점점을 선선으로 이은 당신
선선은 꿈 세상 잇네,
다정으로 축제로 마실로
그 선, 마실의 선
기억해요, 따라갈 거예요
빛처럼 그림자처럼

마고할미 천년 사랑으로 태어난 당신
여덟 장군 천년 희망으로 꽃핀 당신
태평 부안으로 오신 당신
13 이야기 나라 만들었네

뿌뚜빠따 뽀오-

아! 살고 관계 맺으니
사랑하고 기억하리
밤에 새벽이 오고
새벽은 아침이 되고
아침은 낮으로 밝고
낮은 밤마실로 이어진다네

두 개의 시간이 여기
더 있다네, 더 있다네. 두 개의 시간이
희미한 빛 여명과 붉은 노을 석양
개와 늑대의 시간

뿌뚜빠따 뽀오-

마실은 축제에 있고
축제는 마실로 자라죠
매창이 노래해요
벅수가 기억해요
마실, 마실, 마실의 큰 사랑
산마, 푸바, 밝을의 흥 흥 노래

뿌뚜빠따 뽀오-
뿌뚜빠따 뽀오-

〈끝〉

후기와 부록

후기

마실 여신이 다스리는 태평 부안국! 그리고 마실의 현대적 드러남인 부안마실축제와 붉은노을축제.

다음 이야기는 산마, 푸바, 붉을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며 태평 부안국과 축제를 위협하는 세력들과 싸우면서 부안의 마실 가치를 지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속도감의 요마 붉은 여왕이 훨씬 더 강한 세력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마실 여신의 가치가 약화할 수도 있고, 축제를 좀 먹는 상혼과 지역주의 등이 암처럼 커질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지구를 생각하며 더 마실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싸움의 이야기도 가능하다. 아침 - 삶, 낮 - 사랑, 밤 - 기억을 잇는 제4의 시간인 새벽 - 성찰의 해넘이 축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이들 네 주체들을 기억하자. 마실 여신, 산마, 푸바, 붉을. 마실 여신에 의해 소환된 세 몬들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그들의 대단한 힘과 뜻을 보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태평 부안국, 마실 큰 여신 이야기를 마친다.

부록

가나다 순)

1. 개양(開洋)할미

아주 먼 옛날 개양할미는 수성당 옆의 여울굴에서 나와 딸 여덟을 낳은 뒤 일곱 딸은 각 도나 섬에 한 명씩 시집보내고, 자신은 막내딸과 함께 수성당에서 살았다. 개양할미는 키가 어찌나 큰지 굽 나막신을 신고 서해를 걸어 다니면서 깊은 곳은 메우고 위험한 곳을 표시해 어부들의 안전을 돌보면서 풍어를 도왔다. 제주도 설문대할망과는 그런 점에서 역할이 달랐다. 개양할미가 곰소 앞 바다의 '게란여'에 이르렀을 때 개양할미 치맛자락이 약간 물에 젖었다. 이에 개양할미는 육지에서 흙과 돌을 치마에 담아 '게란여'를 메웠다. 죽막동 마을 주민들은 개양할미의 딸들이 위도의 당집, 모항 당집, 곰소 당집, 고창군 동호리 영신당, 계화도 당집, 돈지 당집, 조포 당집에 좌정해 있고 이들 여신은 칠산 바다를 총괄하는 개양할미의 지시를 받는다고 한다.

2. 내소사 전설 둘

이야기 하나는 불심 목수 이야기다. 조선 인조 11년인 1633년. 청민 선사가 중창할 때. 목수가 와서 대웅보전을 짓기 위해 3년 기한으로 목침 크기의 나무를 깎았다. 사미승이 이유를 물었지만 묵언 수행 중이라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사미승이 몰래 목침을 하나 감췄다. 3년째 되는 날 나무 토막 하나가 부족했고 이에 목수는 불심이 부족한 소치라며 돌아가려고 했다. 이때 사미승이 몰래 감춘 나무토막을 내놓았으나 목수는 속세의 때가 묻었다고 사용하지 않았다. 그 자리는 결국 비게 되었다.

이야기 둘은 화공의 예술혼이다. 어쨌든 대웅보전이 완성되고 화공이 와서 단청을 했다. 화공은 100일 동안 아무도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또 이 사미승이 99일 째 되던 날 살짝 문을 열고 보니 푸른 새 한 마리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다가 사미승 기척에 놀라 붓을 떨어뜨리고 피를 토하며 날아갔다. 그래서 하루가 부족한 날엔 연둣빛 바탕만 칠해지고 그림이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게 되었다.

3. 사랑의 이야기

동서고금 유명한 사랑 이야기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유형) 비극적 사랑으로 상징을 남긴 이야기

＊부용과 사득 백제 시대 오늘날 대전 부사동에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있었다. 두 마을 사이에 샘 하나가 있었는데, 가뭄이 들 때마다 물을 차지하려는 다툼이 있었다. 그 샘터에서 윗마을 처녀 부용과 아랫마을 총각 사득은 운명처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신라가 쳐들어와 사득은 전장에 끌려가게 되었고, 결국 죽는다. 부용은 날마다 뒷산 선바위에 올라 사득이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하염없는 기다림에 지친 부용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 그 뒤로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고 샘이 말라버려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마을 어르신들의 꿈에 부용과 사득이가 나타나 영혼 결혼식을 간청하며, 그렇게 되면 샘이 다시 솟을 거라고 일러주었다.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 칠석날 두 연인의 혼례를 정성껏 올려 주었다. 그러자 샘에서 다시 물이 솟아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샘을 두 연인의 이름을 따서 '부사샘'이라 부르게 되었다.

＊파라모스와 티스베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가장 용감한 청년 피라모스와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티스베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지만 서로 왕래할 수 없었다. 두 가문이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는 사랑이 싹텄고, 담벼락에 난 작은 틈 사이로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몰래 사랑을 키워갔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두 젊음은 성 밖 뽕나무 아래에서 만나 함께 도망치기로 약속한다. 티스베가 먼저 도착했지만, 암사자가 나타나 도망을 친다. 이때 티스베는 웃옷을 떨어뜨리는데 암사자가 피 묻은 이빨로 그를 갈기갈기 찢고 사라진다. 조금 늦게 도착한 피라모스는 티스베가 암사자에게 죽은 줄 알고 비통해하며 칼로 목숨을 끊는다. 뒤늦게 돌아와 이를 발견한 티스베가 오열하다가 연인을 따라 칼로 목을 찔러 생을 마감한다. 그때 흘린 두 사람의 피가 땅에 스며들어 하얗던 뽕나무 열매 오디가 붉게 변했다. 이 이야기는 후에 여러 곳으로 전해지다가 후에 셰익스피어에 의해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재탄생한다.

＊양산백과 축영대 세도가의 천방지축인 축영대(祝英臺)를 시집보내기 위해 그녀의 부모는 남자만 학생으로 받는 서원에 축영대를 남자로 변장시켜 입학시킨다. 축영대는 그곳에서 운명적으로 양산백(梁山伯)을 만나 3년간 함께 공부하며 우정을 나눈다. 어느 날 축영대는 아버지의 급한 부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양산백은 그녀가 떠날 때야 축영대가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축영대는 부모의 뜻대로 마원재에게 출가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양산백은 병을 얻고 죽는다. 혼례를 위해 마원재의 집으로 가던 중, 축영대는 양산백의 무덤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가마가 움직이지를 않았다. 축영대가 무덤에 가서 쓰다듬자 갑자기 양산백의 무덤이 갈라지며 축영대는 무덤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둘의 영혼은 나비가 되어 날아간다. 이 이야기는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불리며 '우공과 직녀' 등과 함께 중국의 4대 비극적 로맨스로 불린다.

＊트리스탄과 이졸데 트리스탄은 콘월(브리튼 섬의 중남부 지방)의 왕 마크의 조카로 용맹하고 뛰어난 무사이다. 트리스탄은 콘월에 조공을 요구하러 온 아일랜드의 기사 모홀트와 일대일로 싸워 그를 죽이지만 부상을 입는다. 독이 밴 칼에 맞아 부상을 입은 탓에 콘월에서는 치료가 어려웠고, 이에 트리스탄은 아일랜드의 치료사로 모홀트의 사촌 동생이자 약혼녀 이졸데에게 신분을 숨기고 찾아가 치료를 받는다. 이졸데는 트리스탄이 자신의 약혼자를 죽인 원수라는 걸 알게 되지만 치료를 해준다. 이후 트리스탄은 삼촌 마크 왕의 신부감을 찾아 나서는데, 하필 일전에 자신을 치료한 이졸데가 선택되어 그녀를 데리러 간다. 트리스탄이 이졸데를 콘월로 데려가는 배 안에서 마크왕에게 주려고 했던 사랑의 묘약을 시녀의 실수로 이졸데와 함께 마셔버리고, 둘은 그대로 사랑에 빠져버린다. 콘월에서 마크왕과 이졸데는 결혼하는데, 결혼 후에도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밀애 관계를 유지한다. 결국 둘의 관계가 발각되는데 이졸데는 마크왕 곁에 남고 트리스탄은 콘월을 떠난다. 콘월에서 쫓겨난 트리스탄은 방랑 기사가 되어 여기저기 떠돌다 브르타뉴(프랑스 북부지역)에서 호엘왕을 도와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그 보답으로 트리스탄은 왕의 딸이자 자기의 연인과 동명이인인 흰 손의 이졸데(Isolde, the White Hand)와 결혼해 그의 오빠 카에딘과 의형제를 맺는다. 그렇게 결혼을 했음에도 흰 손의 이졸데와 같이 잠자리를 갖는 것을 계속 피하는 트리스탄을 카에딘이 힐난하자 트리스탄은 결국 사실을 고하고 이에 감동한 카에딘은 트리스탄을 데리고 이졸데와 만나 그들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곧 마크왕에게 발각되어 다시 떠나야 했다. 트리스탄은 무뢰배 기사들과 싸우다가 또 독이 밴 칼을 맞아 치명상을 입는다. 이 독의 유일한 해독법은 자신의 옛 연인이자 최고의 치료사인 이졸데를 데려오는 것이다. 트리스탄은 사절을 콘월로 보내면서 돌아올 때 이졸데를 데려왔다면 흰 돛을 달고, 아니면 검은 돛을 달고 오라고 부탁한다. 트리스탄은 상처가 계속 악화해 죽어 가는데,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흰 돛을 단 배가 해변에 나타났다. 하지만 질투심에 사로잡힌 아내 흰 손의 이졸데는 배가 검은 돛을 달았다고 트리스탄에게 거짓말을 하여 낙담한 트리스탄은 그대로 죽는다. 이윽고

이졸데가 나타나는데 이미 죽은 연인을 보고 절망하면서 그의 시체 위에 쓰러져 같이 죽는다. 흰 손의 이졸데는 이에 참회하여 무덤에 버드나무를 심었는데 이 버드나무는 서로 엉켜서 자라났다.

＊백조의 기사 백조가 모는 보트를 타고 나타나 비탄에 빠진 소녀를 구하는 중세의 서사시이다. 보통 비탄에 빠진 소녀는 그녀를 구해준 백조의 기사와 결혼을 앞두고 기사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언약을 어기고 그를 발설해 기사가 떠나는 이야기로 끝난다. 그런데 그 백조는 다름 아닌 백조의 아이이다. 백조의 아이는 다음처럼 탄생한다.

이름 모를 젊은 영주가 흰 사슴을 쫓아 사냥하다 길을 잃어 마법에 걸린 숲으로 들어가게 된다. 숲에서 영주는 금목걸이를 하고 목욕하는 신비로운 여성(백조 처녀 또는 페어리임이 분명하다)을 마주친다. 둘은 사랑에 빠지고 영주는 여성을 자신의 성으로 데려온다. 여성은 (예언대로) 목에 황금 사슬을 단 여섯 남매를 낳는다. 그러나 사악한 시어머니는 아기들을 일곱 마리의 강아지와 바꿔치고 하인에게 아이들을 숲으로 데려가 죽이라 명령한다. 하인은 아이들을 죽일 수 없어 나무 밑에 버린다. 젊은 영주는 어머니의 말에 속아 아내가 강아지를 낳았다고 믿고 7년 동안 그녀의 목을 사슬에 매단다. 시간이 흘러 영주는 다시 숲으로 사냥을 떠나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시어머니는 하인을 숲으로 보내 아이들을 찾게 하였고 하인은 백조로 변해 목욕하는 소년들을 발견한다. 그사이 누이는 소년들의 금사슬을 모아 지키고 있다. 하인은 사슬을 훔쳐 소년들이 다시 인간이 되지 못하게 하고 금세공인에게 사슬을 녹여 잔을 만들도록 한다. 백조 모습을 한 아이들은 젊은 귀족의 연못에 날아들고 사슬을 빼앗기지 않아 변신할 수 있는 누이가 사람이 되어 성으로 들어가 빵을 청한다. 결국 젊은 귀족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알게

된다. 한편, 금 세공인은 아무리 해도 사슬을 녹일 수 없었기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사슬을 돌려받은 다섯 소년은 다시 사람이 되었지만, 금 세공인이 대장장이에게 주었던 사슬 하나는 부서져 있었기에 한 소년은 백조로 남게 되었다. 에르베르는 이렇게 백조로 남겨진 한 아이가 금사슬로 백조 기사의 보트를 끈 바로 그 백조임을 암시한다.

2유형) 불굴의 사랑

이 유형 이야기로는 제주도에 전하는 곡식의 여신 자청비, 프쉬케, 라푼젤, 리라의 명인 오르페우스 등을 들 수 있다. 오르페우스가 죽은 아내를 되찾기 위해 지하 세계로 들어간 전설은 그 후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면 지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자청비는 바리데기 공주처럼 서사가 아주 긴 이야기이니 지현이 스스로 알아보기로 하고 나는 이 중 프쉬케, 라푼젤만 소개한다.

＊에로스와 프시케(Psyche) 프시케는 왕국의 세 공주 중 막내였으며 왕국의 제일 미녀였다. 프시케의 미모 때문에 사람들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찾지 않아 여신은 질투심이 솟았다. 그래서 아들이며 사랑의 신인 에로스에게 프시케가 추남 또는 괴물을 사랑하게 하라고 지시했지만, 에로스가 프시케의 방으로 갔을 때 자신의 금화살 촉에 손을 찔려서 도리어 에로스가 프시케를 사랑하게 된다. 그 후 사람들은 프시케의 미모를 여전히 칭송했으나 청혼하는 사람은 없어졌다. 프시케의 부모는 신탁을 들었다. 사제는 프시케가 죽음과 결혼할 운명이라고 말했고 피테스산 정상에 프시케를 데려다 놓으면 신랑이 프시케를 데려갈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신탁은 아폴로의 거짓이었다. 결국 프시케는 피테스산의 정상으로 보내졌다. 얼마 후 프시케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에 의해 어느 궁전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신랑을 만났다. 신랑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신랑은 프시케가 자신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고

밤에만 궁전에 있었다. 어느 날 프시케는 남편에게 언니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고 남편은 허가했다. 프시케를 시기한 언니들이 프시케를 만나 램프로 신랑의 얼굴을 보고 괴물이면 칼로 찌르라고 했다. 프시케는 그 말대로 했다. 마침내 프시케가 램프를 들고 가서 신랑 얼굴을 보았다. 놀랍게도 신랑은 에로스였다. 그때 램프의 기름이 에로스의 어깨에 떨어져서 에로스는 깨어났고, "사랑은 의심과 공존할 수 없다."라'며 사라졌다. 프시케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고 아프로디테 여신은 몇 개의 임무를 모두 마치라고 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과제들을 용케 마친 프시케에게 또 가혹하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는 지하 세계에 가서 지하 세계의 왕비인 페르세포네에게서 아름다움을 얻어 오라는 것이었다. 프시케는 아름다움을 상자에 담아서 가져올 때 호기심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에서는 아름다움이 아닌 '죽음의 잠'이 나왔다. 그리고 프시케는 죽음의 잠에 빠져들었다. 이때 에로스가 나타나서 '프시케에게 부활의 입맞춤을 해서 프시케는 깨어났고 에로스와 재회했다. 에로스는 제우스에게 올림포스에서 프시케와 함께 살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마침내 아프로디테도 둘의 결합을 허락했다. 제우스는 프시케에게 신들의 음료인 암브로시아를 먹게 하고 동시에 영혼의 여신이 된 프시케는 에로스와 결혼해 올림포스에서 살게 되었다. 너무나 복잡한 심리 상태에서 극과 극을 경험한 프시케는 오늘날 심리를 뜻하는 접두사 psyche-의 어원이 되었다.

＊라푼젤 독일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임신한 아내가 상추(라푼젤)가 먹고 싶다고 투정을 부렸는데, 가난해서 상추를 구매할 돈조차도 없었던 남편은 불가항력으로 옆집의 텃밭에서 상추를 훔치다가 밭 주인인 마녀에게 들킨다. 마녀는 상추를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다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하는 대신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기에게 넘겨 달라는 거래를 제안한다. 부부는 그 후 딸을

얻게 되었는데, 아내가 먹은 채소 이름을 따 라푼젤이라 지었다. 하지만 곧 마녀가 찾아와 종전 약속을 잊지 않고 언급하며 라푼젤을 데려가 입구도 계단도 없는 높은 탑에 가두어 버린다. 시간이 흘러 라푼젤은 아름답게 자라났다.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라푼젤은 길고 아름다운 머리칼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한 왕자가 탑 아래를 지나치다 라푼젤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 입구도 계단도 없는 탑이었기에 올라갈 방법이 없었으나, 마녀가 라푼젤의 긴 머리를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똑같은 방법으로 탑에 올라갔다. 두 사람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고, 마녀는 라푼젤이 왕자를 몰래 만나 임신까지 한 것을 알게 되자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잘라 쫓아낸다. 마녀는 이후 자신이 잘라낸 라푼젤의 머리로 왕자를 유인한 후 높은 곳에서 그를 떨어뜨린다. 왕자는 가시덩굴에 떨어져 눈이 멀게 되지만, 그 상태로 라푼젤을 찾아다닌다. 결국 여러 곳을 헤맨 끝에 라푼젤, 그리고 자신과 라푼젤 사이에서 태어난 남녀 쌍둥이 남매와 재회했고, 라푼젤은 왕자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그 눈물이 왕자의 눈에 떨어지면서 왕자는 잃었던 시력을 되찾고 그들은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어 사랑을 이룬다.

4. 수성당(水聖堂)

개양할미를 모시는 당이다. 서해상으로 돌출된 변산반도의 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다. 남으로는 줄포만을 끼고 있으며, 서로는 위도와 위도에 속한 상, 하왕등도를 바라보고 있다. 예전에 부르던 명칭은 구낭사였으나 수성당으로 명칭이 바뀌어 이어져 오고 있다. 삼국시대 수성당은 현재와 같은 마을굿 형태가 아니라 서해 해로의 주요 길목인 이곳을 지나가던 항해자와 상인들이 수성당에 들러 제물을 차려놓고 제의를 지낸 곳이다. 수성당이 자리하고 있는 죽막동은 마을 뒤에 대밭이 있어 '죽전(竹箭. 시누대 화살)을 저장한 막사 마을'이란 뜻의 대막골로 불렸다. 수성당의 또 다른

명칭으로 대마골이 있다. 이는 수성당 옆 여울굴에서 철마가 나왔다는 이 마을의 전설에서 부르게 되었다.

5. 장승과 벅수

사람들이 장승은 한자이고 표준말이며 벅수는 장승의 우리말 혹은 사투리로 알고 있다. 사전에도 벅수는 '장승의 다른 말'이라고 나온다. 그러나 장승과 벅수는 생김이 다르고 쓰임이 다르다. 『토지』 사전에 벅수는 마을 어귀나 다리 또는 길가에 수호신으로 세운 사람 모양의 형상. 나무나 돌로 만드는데, 눈이 붉고 어금니가 내뻗쳤으며 혀가 늘어져 무섭게 생겼다. 또한 '바보'를 뜻하기도 한다.

토지 예문) '…오만 사램이 날 보고 참하다 카고 동리에 나서기만 하믄 총각놈들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한분이라도 더 치다볼라꼬 미치는데 길상이는 벅수란 말이까?…'

한편, 태종실록(태종14년, 1414년 10월 17일)에는, "후자(豫子, 장승)를 설치하였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본국의 경내에 도로의 식수(息數)가 멀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아서 무릇 차견하고 납공하는 데 기한을 미리 정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고제(古制)에 의하여 자로써 10리를 재어서 소후(小豫)를 설치하고, 30리(里)에 대후(大豫)를 설치하여 1식(息)으로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라고 나타난다. 그렇다면 후자 곧 장생(장승은 일본식 표현)은 거리 이정표 용도로 만든 것이었다. 반면 벅수는 다산 정약용의 시문집에 실린 조석루기(朝夕樓記)에 나타나는데, "농산(農山)으로부터 동쪽으로 몇 리쯤 가면 옹중산(翁仲山)인데, 그의 할아버지를 이곳에 장사 지냈으며, 또한 경치가 좋은 정원이 있어, 옹산별업(翁山別業)이라고

부른다. 이 지방 말로는 옹중을 법수(法壽)라고 부른다."

다산의 말에 따르면 옹중석(翁仲石)을 벅수, 또는 법수라고 불렀으며, 장승과는 다른 벽사물(辟邪物)이었다.

정리하면, 장승(長柱)은 도로의 이정표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에 30리마다 역참을 두고, 출장 중인 관리가 말을 바꿔 타거나 일반 백성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주막, 또는 원(院)의 위치를 알려줬다. 조선시대에는 41개의 역도와 524곳의 역촌이 있었으며 장승을 세운 지역을 일컫는 '장승배기'가 전국에 1천500여 곳이 있었다. 그러다 갑오개혁 이듬해인 1895년 역참제도가 폐지되면서 장승도 사라졌고, 지금은 몇 군데의 '장승배기'라는 지명만 남게 되었다. 장승은 대후와 소후로 구분된다. 대후는 역로의 30리마다 설치하는 돈대(墩臺)이며 대후가 있는 곳에는 역을 두었다. 반면 소후는 지명과 이수를 새긴 이정표이므로 목인 형태의 후는 소후일 가능성이 크다.

벅수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불교의 화엄경에는 벅수가 법수보살(法首菩薩)로 그려져 있다. 벅수의 처음 모습은 미륵을 닮은 민불에서 시작했다. 1600년 무렵 중국에서 발생해 조선으로 밀려오는 천연두와 잡신, 잡귀들을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힘을 가진 중국 전설의 치우와 용, 또는 무서운 장수나 제왕의 표정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했고 가슴에는 명문(銘文)을 새겼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져 주로 절집이나 마을을 지켜주던 주장군(周將軍), 당장군(唐將軍), 축사대장군(逐邪大將軍), 보호동맥(補護東脈), 와주성선(媧柱成仙), 남정중(南正重), 화정려(火正黎),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 방어대장군 등이 그들이다. 무서운 표정을 하고 천연두를 막아내기 위한 두창(痘瘡) 벅수들도 모두 중국의 장수들을 표현한 것이다. 이들 중 남녀로 나뉜 것은 없었다. 우리가 잘 아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은 1900년의 개화기 끝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승과 벅수가 뒤섞이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에서다. 조선총독부가 1912년에 공표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과 언문철자법(1930년)에 의해 벅수와 서낭, 수살, 액막이 등, 우리 민속신앙의 사투리들을 미신으로 폄하하고, 벅수를 강제로 장승(長柱)과 결합시켜 장승(長丞)으로 변질시켰다. 같은 발음이지만 장승은 일본의 것이다. 해방 이후, 일본에서 일본 스승에게 배운 1세대 민속학자들이 일본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겼고, 그의 제자들 역시 일본의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다. (출처. 깊은 강, "장승과 벅수 헷갈리지 맙시다")

6. 철마(鐵馬) 전설

본래 경기도와 삼남 지방에서 탈것이 아니라 주된 신으로 모셨다. 수성당 철마의 이야기는 내용이 풍부하다. 마음씨 착한 형제가 신선에게 황금 부채를 받고 마을을 지키라 명받는다. 노인의 말대로 형이 가진 황금 부채로 바다를 향하여 부쳐 보았더니, 갑자기 큰 바람이 일며 성난 파도가 바다를 뒤집었다. 동생이 가진 부채로 부치니 그 소란한 풍파가 금세 조용해졌다. 형제는 노인의 은덕을 잊지 않기 위하여 여울굴 옆에 지금의 수성당을 세우고 받들어 모시었다. 그랬더니 그 여울 속에서 철마(鐵馬) 한 마리가 나왔다. 이 철마는 두 형제만이 탈 수 있으며, 평상시는 작았으나 형제가 타기만 하면 큰 말이 되었다. 왜구가 침범하면 형이 타고 비호처럼 달려가 황금 부채로 부쳐 적의 배를 침몰시켰으며, 동생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마을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 역시 부채로 부쳐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였다. 형제가 죽은 뒤 철마만이 여울굴 속에 남아 있었는데, 어느 마음씨 고약한 사람이 철마를 훔쳐 갔다. 그러나 아무리 깊숙한 곳에 감추고 자물쇠를 채워도 열고 보면 없어지고, 여울굴에 와 보면 그곳에 돌아와 있었다. 이러기를 거듭하다 철마는 드디어 여울 굴속으로 깊이 들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꿈꾸는 여신, 마실이야기

2026년 5월 1일 발행

지은이 황인선

기획·감수 이영민

디자인 박정선

교정교열 이준희

펴낸곳 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원회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신선길 1, 부안문화의전당 2층

전자우편 buanfesta@gmail.com

전화 063-580-4777

홈페이지 www.buanmasil.com

ⓒ 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원회, 2026

* 태평부안국 대표축제 스토리북 - 부안의 신화와 축제 세계관